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4 호 4월 25일

평양 로동 신문사 발행 1955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잡지

제4호 (113)

1955년 4월 25일

내 용

레닌의 학설은 우리의 지침이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

김 일 성

전체 선진적 인류는 四월 二二일에 혁명의 위대한 영재이며 전 세계 근로자들의 수령이며 스승이며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과학의 대가인 브·이·레닌 탄생 八五주년을 맞이한다。

레닌의 이름은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 무한히 고귀하다。 레닌의 학설은 인류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피착취、피압박 인민 대중의 리익과 희망과 지향을 전적으로 반영하였으며 피압박 인민들과 예속 인민들에게 해방 투쟁의 유일하고 옳바른 승리의 길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들을 민족적 해방과 사회적 해방을 위한 결정적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여 주었다。

맑쓰와 엥겔쓰의 기본 교시에 립각하여 레닌은 새로운 력사적 환경、즉 제국주의 시대에 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정확한 학설을 강구하였는바 이는 레닌주의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착취 제도를 타도하고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로동 계급과 그의 동맹자들의 전반적 혁명 투쟁의 구성 부분으로 되였다。

레닌은、피압박 및 예속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과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결합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승리의 필수 조건으로 되며 제국주의 압박으로부터의 제 인민들의 해방을 위한 가장 옳은 길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레닌은 아세아 제국에서 앙양되는 민족 해방 운동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다.

一九一三년에 이미 브·이·레닌은 아세아 제국 인민들의 투쟁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세아에서는 도처에서 강력한 민주주의 운동이 장성하며 확대되며 또한 강화되고 있다. …수억의 사람들이 생활에로, 광명에로, 자유에로 각성되고 있다. 집단주의에로 나아가는 길은 민주주의를 통하여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전체 자각적 로동자들의 마음 속에서 이 세계적 운동이 그 얼마나한 환희감을 불러 일으켜 줄 것인가!』(『레닌 전집』 제一九권 七七—七八페지).

최근 수십년간의 아세아의 제 사변들은 레닌이 예언한 바와 같이 발전되여 왔다. 위대한 쏘련의 존재와 급속히 장성하는 그의 위력과 권위는 아세아 인민들의 해방 운동을 혁명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은 一〇억 이상에 달하는 아세아 인구의 반수 이상이 저주로운 식민지적 압박과 예속으로부터 영영 해방되여 자유로운 새 생활 건설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가고 있다.

위대한 중국 인민은 제국주의와 반동을 반대하는 다년간의 민족 해방 투쟁에서 력사적 승리를 쟁취하였다. 중국 인민의 이 승리는 아세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범위에 있어서 사회주의와 진보에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에게 불리하게 세계 무대에서의 두 진영의 대립 력량을 변동시켰다.

중화 인민 공화국의 창건과 중국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수립과 사회주의 건설에로의 이행은 위대한 레닌의 학설의 승리이며 실제적 구현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몽고 인민 공화국 및 월남 민주 공화국 인민들도 오늘은 불패의 레닌의 학설에 립각하여 자유로운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비르마에 대한 미, 영, 불 및 기타 식민지 통치자들의 간악한 계획들도 파탄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아세아 제국 인민들은 이미 식민지적 노예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곤난하고 헌신적인 투쟁에서 쟁취한 자기들의 민족적 독립을 고수하고 있다.

아직도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예속의 처지에 있는 아세아 국가들에서는 해방 투쟁의 전선이 더욱 광범히 확대 강화되고 있으며 『식민지 통치자들은 아세아 국가들에서 손을 떼라!』고 부르짖는 피압박 및 예속 인

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이 울리고 있다.

一、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에 있어서 레닌의 학설이 가지는 의의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조선 인민은 근 四〇년간 가장 악독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압박하에서 신음하였다.

브·이·레닌은 일찌기 一九二〇년 말에 당시 조선의 형편을 옳바르게 특징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국주의의 국가인 일본과 미국 두 나라를 례로서 든다면 그들은 전쟁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략탈할 권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전쟁을 할 것이다. …일본은 모든 새로운 발명들과 순전한 아세아식 고문을 결합시킨 전대 미문의 야수성으로 조선을 략탈하고 있으며 그를 계속 략탈하기 위하여 싸울 것이다…』(『레닌 전집』 제三一권 四一五페지).

조선에서는 이러한 조건하에서 초기에는 자연 발생적이며 비조직적 성격을 띤 민족 해방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一九二〇년대에 조선에서의 현대적인 로동 계급이 장성되고 형성되여 투쟁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함에 따라 그 투쟁은 점차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되였으며 더욱 광범한 근로 인민을 망라하게 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조선 민족 해방 운동에는 그 운동을 승리에로 옳게 인도할 수 있는 조직적, 향도적 력량이 없었는 바 오직 맑쓰—레닌주의의 불패의 선진적 학설로써 무장된 새 형의 당만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위대한 一〇월 사회주의 혁명은 우리 인민의 해방 투쟁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一〇월 혁명의 승리는 맑쓰—레닌주의의 위대한 혁명적 사상이 우리 나라에 급속히 침투 보급됨에 있어서 급격한 전환점으로 되였다.

조선의 우수한 애국자들은 레닌의 학설을 심오하게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레닌의 교시들은 그들에게 있어 고무적 힘으로 되였으며 자기의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에서 그들의 지침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의 산업 중심지들에서는 로동자들과 선진적 인테리들 속에 비합법적 맑쓰—레닌주의의 연구 소조들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맑쓰—레닌주의 학설은 이러한 소조들을 통하여 광범한 로동자 및 농민층에 침투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한 소부르죠아적 민족주의의 리론과 경향들을 극복하면서 마침내 그 투쟁의

확고한 사상적 기초로 되였다。

레닌의 학설과 해방 투쟁의 전략 및 전술의 기본 문제들에 대한 그의 강철같은 론리와 또한 그 학설의 정확성과 목적 지향성은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의 가슴 속에 생동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 학설의 수 많은 열렬한 신봉자들과 후계자들을 나오게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인민의 해방 투쟁은 새로운 발전을 보게 되였으며 레닌의 학설은 그 투쟁의 정치성과 목적 지향성을 더욱 날카롭게 하였다。

맑쓰—레닌주의 사상의 영향 밑에 이 투쟁은 당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자들만 반대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과 야합한 국내 반동적 지주 및 자본가들과 기타 민족 반역자들을 반대하여서도 진행되였다。 국내의 로동 운동은 조국을 식민지적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민주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위업에서 그의 동맹자로 출현한 농민 운동과 더불어 긴밀히 결합되였다。

조선 로동 계급과 농민 및 인테리의 선진 분자들의 계급적 및 정치적 의식이 제고된 결과 지금으로부터 三〇년전 즉 一九二五년 四월에 우리 나라·민족 해방 운동의 고무자로 된 조선 공산당이 창건되였다。 공산당이 창건된 후 로동자들의 조직적인 동맹 파업과 농민 봉기는 국내 각지에서 더욱 광범위로 진행되였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일제의 경찰、정탐、간첩、테로망이 전국에 펼쳐진 극히 곤난한 조건하에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공산당 대렬과 그의 지도 기관에는 동요적인 소부르죠아 인테리들과 각종 기회주의 분자들이 들어 있었고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경찰 테로가 극심한 결과 공산당 대렬과 그 지도부가 극히 약화되였으므로 조선 공산당은 광범한 인민 대중에 의거하여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진정한 혁명적이며 레닌적인 지도를 보장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三년 후인 一九二八년에 조선 공산당은 조직적 력량으로서의 그 존재를 끝마치였다。

그러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민족 해방 운동의 선두에 남아 있으면서 간고한 투쟁을 계속하였는바 一九三〇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투쟁은 새로운 규모와 력량으로서 공개적인 무장 투쟁의 수준에로 제고되였다。

우리 나라의 많은 지방들에서와 만주의 여러 지역들에서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선진적 로동자、농민 및 인테리들로써 빨찌산 부대들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빨찌산 부대들의 기본 핵심으로 되

였으며 무장 투쟁을 성과적으로 조직함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조선 빨찌산들의 힘의 원천은 그들과 인민과의 밀접한 련계에 있었는바 인민은 빨찌산을 자기들의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투사로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은 자기들의 모든 력량과 수단을 다하여 이 운동을 적극 지지 협조하였던 것이다。

조선 빨찌산들의 무장 투쟁은 조선 지역내에서와 중국 동북 지역내에서 진행되였는바 조 중 량국 인민의 공동의 원쑤인 일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서 그들은 중국 인민 혁명군과의 긴밀한 전투적 우의와 단결을 맺고 있었다。

우리의 민족 해방 운동의 왕성기에 있어 이 공동의 투쟁은 조 중 량국 인민간의 국제주의적 친선과 단결의 견실한 토대를 닦아 놓았던 것이다。

빨찌산 투쟁은 우리 인민의 민족 해방 운동사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빨찌산 무장 투쟁은 우리 나라의 광범한 로동자와 농민 대중 속에 깊이 침투된 맑쓰—레닌주의 사상이 당시 조선의 제 조건에 옳게 적용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그 투쟁은 국제 혁명 운동과 기타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의 일환으로 되였었다。

빨찌산 투쟁은 또한 우리 나라에 있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전개되였으며 발전되였는바 이 투쟁은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 해방 운동에 있어 소극적인 투쟁 형태로부터 적극적인 투쟁 형태로 넘어 가는 새 계단을 열어 놓았다。

일제 식민지 통치자들의 잔인한 테로와 박해가 혹심했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사들에 대한 가장 파렴치하고 중상적인 그들의 선전이 있었으며 민족 해방 투쟁 대렬을 와해시키기 위한 일제의 각종 교활한 술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애국주의자들은 민족 해방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 대중의 동정과 지지를 받으면서 모든 곤난과 장애를 극복하면서 나아갔다。

빨찌산 운동의 지도적 핵심은 자기의 혁명적 활동에 있어 불패의 레닌주의 학설에 굳게 립각하고 있었으며 레닌의 불패의 사상이 구현된 위대한 쏘련은 무장 빨찌산들의 승리에 대한 신심과 힘의 원천으로 되여 있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빨찌산 투쟁을 진행함과 동시에 레닌의 학설에 의거하여 당시 국내의 모든 애국적 력량을 통일적 민족 전선으로 단합시키는 데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一九三五년 五월에 조국 광복회가 조직되였다. 조국 광복회의 강령에는 반제국주의적 투쟁 과업들을 실현할 것과 또한 그 과업 실천을 위한 투쟁에 광범한 인민 대중을 인입시킬 것이 예견되였던 것이다.

조국 광복회가 선포하고 또한 진행한 정치적 로선은 조선 인민의 근본적인 민족적 리익에 부합되였다. 때문에 조국 광복회의 영향은 인민 대중 속에 깊이 침투되였다. 광복회가 조직된 후 불과 수개월간에 그의 산하에 二〇여만의 우리 나라 각계 각층 인민들이 망라되였다는 사실은 우리 인민들 속에서 조국 광복회에 대한 신망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조국 광복회는 우리의 민족 해방 투쟁의 목적과 과업을 광범한 인민 대중에게 해설하며 조국 해방을 위한 공동 투쟁의 기치 밑에 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을 동원 집결하는 데 있어 현저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레닌의 학설로 무장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一九四五년 八월 영웅적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조선이 해방될 때까지 여러가지 투쟁 형태와 력량을 리용하면서 조국의 민족적 해방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을 계속하여 왔다.

二、

위대한 레닌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아세아의 수억의 근로자들은 모든 문명 국가들의 프로레타리아를 믿음직한 동맹자로 가지고 있다. 세계의 그 어떠한 힘도 구라파 인민들과 아세아 인민들을 해방시킬 그들의 승리를 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레닌 전집』 제一九권 七八페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레닌의 사상은 우리 인민의 모든 투쟁과 그의 성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제二차 세계 대전에서의 쏘련의 위대한 승리와 쏘베트 군대에 의한 일제의 패망은 우리 나라를 장구한 식민지적 압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하였으며 조선 인민에게 자유로운 새 생활의 길을 열어 놓았다.

해방 후에 재생된 조선 공산당은 一九四六년에 신민당과 합당하여 조선 로동당으로 되였다. 조선 로동당은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의 학설에 립각하여 민주주의 원칙 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정책

과 북조선에 있어서의 제반 민주주의 개혁 실시 및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공고화를 위한 정책을 변함없이 실시하여 왔다.

해방 후 약 五년간 우리 인민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민주주의 건설 위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를 예속화하며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진압하며 새 세계 전쟁을 준비 도발하려는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미제와 그 주구들이 우리 인민을 반대하여 도발한 전쟁은 우리의 평화적 건설 사업을 중단시켰다.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있어 조선 로동당은 국내 전체 력량을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전 인민적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였으며 로동당원들은 전선과 후방에서 선봉적이며 고무적 역할을 하였다.

우리 인민이 자기의 자유와 독립과 인민 민주 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三년간의 가혹한 전쟁에서 발휘한 무비의 영웅성과 또한 그가 당한 희생과 손실에 대하여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인민은 이 전쟁에서 위대한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인민들의 거대한 원조와 강력한 지지와 또한 전 세계 선량한 사람들의 동정과 지지에 의하여 승리를 쟁취하였다.

조선 전쟁의 교훈은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궐기한 인민을 타승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인민은 자기의 정의의 투쟁에서 모든 나라 근로자들의 지지와 원조를 받을 것이라는 레닌의 현명한 말씀의 정당성을 더욱 힘있게 확증하였다.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레닌의 사상으로 교양되였고 깨뜨릴 수 없는 형제적 친선 관계로 호상 단결된 사회주의와 인민 민주주의 국가 인민들은 자기들이 쟁취한 자유와 사회적 제도를 경각성있게 고수하고 있다. 그들은 전체 선진적 인류가 달성한 가장 위대한 성과이며 자본주의에 의한 피압박 및 피착취 대중의 희망인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의 진영에 대한 제국주의의 침해를 결코 용허하지 않을 것이다.

三、

전후 시기에 있어 조선 로동당은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우리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기 위한 사

업에 공화국 전체 근로자들을 조직 동원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천하고 있는바 공업 부문에 있어서는 벌써 一二〇여 개소의 중요 공장、기업소들이 복구 신설되여 조업을 개시하였다。 우리 농촌 경리도 현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과학、문화 및 예술도 일층 발전되고 있으며 인민들의 물질 생활 수준이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지배층과 그 주구 리 승만 괴뢰들에 의하여 조선은 아직 인공적으로 량분되여 있다。 우리 조국의 남반부는 또 다시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되였는바 거기에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자들 대신에 미제의 식민지 통치자들이 있으며 팟쇼 질서가 수립되여 있다。

국토의 분렬과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적 략탈 정책은 남북 조선의 전통적인 경제적 련계를 파탄시켰으며 남조선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빈궁을 가져 왔다。

조선 로동당은 전후 시기에 있어서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 정책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있는바 이 정책은 남북 조선 각계 각층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강점자들을 철거시키며 반인민적인 리 승만 역도들을 고립시키며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국의 통일 문제를 조선 사람 자체로써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의 모든 애국적 력량을 일층 동원하여 전 인민적 투쟁을 계속 전개할 것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우리의 금후 성과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미 쟁취한 민주주의적 제 성과들과 공화국의 경제 수준을 어떻게 제고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조선 로동당은 레닌의 학설에 근거하여 전후기에 있어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할 과업을 내세웠으며 또한 현재 그 과업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결정적 조건으로 되는 것은 즉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서의 로농 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들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경제적 전제 조건을 조성하는 그것이다。

현재 공화국 북반부에 있는 三개의 기본적인 사회—경제 형태、즉 사회주의적、소상품적 및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들 중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 (국영 및 협동 조합 부분)가 공화국 인민 경제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례로서 공업 부문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는 현재 우리 나라 총공업 생산의 약 九八%를 점하

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농촌에서 협동화된 농호 수는 전체 농호 수의 약 三二%이며 농경지의 약 三분지 一을 차지한다。

레닌주의는、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는 그의 기본적인 경제적 기초를 반드시 조성하여야 하는바 오직 중공업만이 그러한 기초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의 앞에는 우선 국내의 공업화를 실시함으로써 인민 경제의 전체 부문들의 발전을 위한 공고한 물질적 및 기술적 토대를 조성하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는 쏘련이 자본주의의 포위 속에서 단독적으로 국내의 공업화를 실시하던 그 시기에 비하여 전연 다른 국제적 환경 속에서 실시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비할 바 없이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강력한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의 진영의 일원으로 되여 있으며 강대한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들의 사심없는 형제적 원조를 받고 있다。

브·이·레닌과 또한 그의 위업의 충직한 계승자인 이·브·쓰딸린은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없이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으며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유일하고 옳바른 길은 농업의 협동화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조선 로동당은 이 학설에 립각하여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협동화에 거대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당은 이미 조직된 농업 협동 조합들에 각방의 국가적 방조를 주며 그에 대한 옳은 지도를 보장함으로써 협동 조합들을 조직적으로 경제적으로 공고 발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당은 또한 개인 로력 농민들에게도 방조를 주며 해설과 실지 사업을 통하여 엄격한 자원적 원칙에 립각한 농업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개인 농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건설 과업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일제의 식민지적 통치 잔재를 퇴치하며 로동자、농민 및 인테리들 속에서 맑쓰—레닌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한 사상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과업을 해결함으로써만이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사회주의의 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건설 템포를 높일 수 있으며 기한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는 적지 않은 난관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풍부한 원료 자원이 있으며 형제적 국가 인민들의 사심 없는 거대한 원조가

있고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한 우리 인민의 굳은 결의가 있으며 조선 인민의 선두에는 자기의 전체 활동에 있어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의 불패의 학설에 립각한 조선 로동당이 서 있다.

조선 로동당은 대중과 혼연 일체로 되여 있다. 조선 로동당은 공화국 정부와 또한 우리 나라의 모든 진보적 정당 및 사회 단체들을 망라하고 있는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 조선 인민은 인민 대중의 절실한 리익을 반영하며 위력한 조국의 장래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 제고를 목적하며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 진영 제국 인민들과의 형제적 국제주의적 련대성의 발전과 공고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조선 로동당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 찬동하고 있다.

* * *

조선 인민은 전체 근로자들의 수령이며 스승이며 친우인 브·이·레닌의 이름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 위대한 레닌의 사상의 서광은 험악한 식민지 통치의 암운이 우리 조국에 무겁게 덮여 있던 그 때에 그 암운을 뚫고 비치여 주었다. 이 서광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의 길을 밝혀 주었다. 레닌의 학설은 또한 그가 자기의 훌륭한 전 생애와 천재를 이바지하여 건설하려던 그런 찬란한 새 사회를 오늘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의 향도적 지침으로 되고 있다.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인민 민주주의를 위하여!』지 四월 一五일에서 전재)

현 계단에 있어서의 당 사상 사업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 건설에로의 점차적 이행의 길을 지향하고 있는 현 계단에 있어서 당 사상 사업의 총적 임무로 되는 일련의 기본 문제들을 취급한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는 우리 당 사상 생활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갖는 력사적 사변이다.

전후 당 중앙 위원회 제六차 전원 회의에서 규정된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기본 과업은 그후 루차에 걸친 력사적 전원 회의들을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였고 그 실천이 촉진 되였다. 三월 전원 회의는 산업 운수 부문의 복구 건설에서의 제 결함을 급속히 퇴치하고 산업 건설에 대한 지도 수준을 현저히 제고시킬 데 대한 당의 강령적 지침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나라 인민 경제 체계에 있어서 통치적 지위에 있는 산업 운수 부문의 복구를 급속히 촉진시키며 이에 기초하여 인민 경제 전반적 부문의 복구 건설에서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며 나라의 장래 사회주의적 공업화에로의 길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一一월 전원 회의는 농촌 경리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그의 점차적, 사회주의적 집단화를 실현할 데 대한 정확한 당의 방침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우리 당의 전후 경제 건설 위업을 더 한층 힘차게 전진시키였다.

맑쓰—레닌주의에 튼튼히 의거하며 이를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며 그에 충실한 우리 당은 력사적 시기마다 자기의 임무와 과업을 규정하면서 항상 당 사상 사업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시기에 그랬던 바와 마찬가지로 전후 시기에 있어서도 그 첫 시기에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제六차 전원 회의에서 전후 복구 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규정하면서 우리 당은 로동 계급 속에서의 사상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자기의 중요한 임무로 내세웠으며 七차 전원 회의에서 역시 당원들과 인민 대중 속에

서의 당 사상 사업의 의의를 높이 인정하였다。 三월 전원 회의와 一一월 전원 회의등 력사적인 전원 회의들에서 그 시기에 적응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될 그 때마다 우리 당은 제기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당 사상 사업의 선차적 의의를 변함없이 고려하였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 우리 당이 제기한 모든 정치—경제적 과업들은 당 사상 사업의 거대한 변혁적、동원적 역할에 의하여 성과적 실현이 보장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사회의 물질 생활에서는 거대한 변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건설 성과가 크면 클 수록 이에 공겁하여 발광하는 미제와 리 승만 매국 도당의 비렬한 파괴 음모와 책동은 더욱 로골화하고 있는 한편 사회의 물질 조건에서의 급격한 제 변화에 비하여 우리 인민들과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의 사상 의식에서의 개변은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 당원들과 인민 대중들 속에는 우리 건설 사업의 규모와 속도에 비하여 의식 개변이 이를 따르지 못하는 데로부터 오랜 력사를 걸쳐 계급 사회에서 물려받은 자본주의적、봉건적 사상、관습、도덕과 미신、종교적 편견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들이 숙청 근절되지 않고 남아 있다。 낡은 사상 잔재들은 우리의 건설 사업을 약화시키려고 흉악한 음모와 책동을 다하고 있는 국내외의 반혁명적 반동 세력과 반동 사상의 발광적인 침습의 영향에 의해서、공화국 북반부에 아직 남아 있는 분산된 소상품 경리로부터 시시각각으로 산생되고 있는 부르죠아적 사상의 영향에 의해서、또한 사회 발전 행정에서 나타나는 난관、결함、모순의 영향에 의해서 조장되고 또한 소생될 수 있으며 우리 혁명의 전진 운동을 저해하며 이에 저항하게 된다。

로동과 소유에 대한 관계에서、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낡은 사상 잔재들은 각양 각이한 형태——실망、비관、해이、라태、태공、랑비、투기、탐오、략취등의 형태、관료주의、형식주의、자유주의、리기주의、공명주의、출세주의 등——로 발현되며 그것들은 사람들의 머리를 어지럽히며 우리 혁명을 해독하며 파괴하려 한다。

우리 혁명의 성과가 크고 그의 전진이 빠르면 빠를 수록 우리의 사상 전선의 약한 고리에서 이것들은 더욱 완강하게 머리를 들고 일어선다。 오늘 당 및 국가 생활에서 낡은 사상 잔재는 당 및 국가 규률의 위반、지도에서의 관료주의와 형식주의、공명주의、리기주의、기관 본위주의、자유주의、맹동 맹종、출세주의、탐오 랑비등 반당적、반인민적 행위로 표현된다。

때문에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가 오늘 우리 당원들의 계급적 교양 사업을 강화하며 당 및 **국가** 일군들 **속**에서 관료주의를 근절하며 경제 절약、재정 및 자재 통제 규률을 강화하며 반탐오、반랑비 투쟁을 강화하는 **사업**을 **당**면한 우리 당 사상 사업의 중심적 임무로 전당 앞에 제기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전후 우리 당이 제기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방대한 정치—경제적 제 임무의 성과적 실현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오직 그것은 인민 대중의 창조적 로력적 적극성과 그를 선도하는 당원 대중의 혁명 투사로서의、정치적 지도자로서의 혁명적 자질과 품성의 제고 그리고 우리 당 단체들의 사상 정치적 및 조직적 전투력의 가일층 제고로써만이 보장된다。

이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당 사상 사업이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계단에 있어서 당원들과 전체 근로 대중을 맑쓰—레닌주의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당 및 국가 일군들의 지도 사업에서와 경제 활동에 있어서 발현되는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 앞에 제기된 당면한 중심적 임무의 하나로 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로의 지향은 우리 나라 사회의 물질적 발전의 성숙된 요구로부터 출발되는 우리 혁명의 목적이며 조선 인민의 근본적 리해로부터 출발되는 전 인민적 사업이다。 그것은 인민 대중의 창조적 사업이며 또한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이다。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길에서 인민 대중의 창조력과 적극성을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사상과 계급 의식을 튼튼히 하여야 하며 낡은 사상 잔재와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상면에서의 혁명인바 성숙된 물질적 제 조건과 함께 이것이 없이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는 없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인 중요 산업이 인민의 소유로 되였으며 개인 소농 경리로 분산되여 있던 농촌 경리는 사회주의적 집단화의 길로、부분적 개인 기업과 수공업은 사회주의적 협동화의 길로 들어 섰으며 인민 경제에서 절대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요소는 사회주의 건설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쏘베트 군대에 의해 해방된 조선 인민은 그의 사심없는 원조밑에 우리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의 령도하에서 자기의 인민 정권을 창건하고 제반 민주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나라의 인민 민주 제도를 공고 발전시켰으며 민주와 자유와 행복한 새 생활을 체험하였으며 당과 정부와 수령의 령도하에 자기들의 정치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였다。

특히 미제 침략자를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을 통하여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의 국제주의적 원조하에 자기들의 정치적 단결의 위대한 힘과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견고한 생활력을 체득한 조선 인민은 맑쓰—레닌주의의 위대한 기치하에 자기들의 행복한 미래를 보고 있다.

전체 근로 대중은 당의 령도하에 반봉건적 식민지 경제 체제로부터 점차 그것을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로 이행시키면서 인류의 지혜인 맑쓰—레닌주의의 불패의 사상으로 교양되였다. 이리하여 맑쓰—레닌주의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등 실 생활 분야에서 조선 인민의 지도적 사상으로 되였다.

조선 인민의 지도적 사상으로 되였으며 또 조선 인민이 튼튼히 의거하는 사회주의 사상은 실지 능동적으로 사회를 개조하며 광범한 인민 대중을 창조적 위업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변혁적, 동원적 역할을 수행하는 물질적 력량으로 되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공화국 북반부는 그의 경제적 기초에 있어서, 정치 사상적 위력에 있어서 조선 인민의 자유로운 미래와 리상을 체현시키고 있으며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사상적으로 조국의 통일 독립과 장래 륭성 발전을 위한 견고 불패의 혁명의 기지로 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당원들과 지도 일꾼들, 인민 대중을 맑쓰—레닌주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혁명적 계급 의식을 제고시키며 사회주의 사상을 배양시키며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강화한다는 것은 가혹한 계급 투쟁의 환경 속에서 사회주의에로 지향하는 전진 도상에서의 보다 큰 승리를 위한 생동하는 운동이며 진공이다. 그것은 사상면에서의 혁명의 거대한 전진이다.

우리의 혁명이 국내외의 반혁명 반동 세력과의 격렬한 투쟁 속에서, 복잡하고 간고한 장기적인 전 인민적 투쟁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 대중들을 우리 혁명과 건설에 대한 확고부동한 자각성, 일체 원쑤의 기도에 대한 경각성, 온갖 낡은 것과 부정적인 것에 대한 비타협성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그들의 영웅성과 대담성, 헌신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시킨다는 것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촉진시키며 더욱 전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의 사회주의 사상과 혁명 의식을 더욱 튼튼히 하여야 하며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더욱 인내성 있게 꾸준하고 견결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오늘 사회주의 건설 도상에선 우리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주되는 사상적 약점은 그들의 일상적 정치—경제적 생활 부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급 의식의 나약성이다.

우리의 락후한 층의 주민들은 우리 혁명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 나라는 어데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승리는 무엇이며 우리 앞에는 어떠한 전망이 놓여 있으며 우리 혁명의 원쑤는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지 못하며 따라서 당과 혁명의 리익, 국가와 인민의 요구를 바로 보지 못하고 개인의 리익을 높이 세우며 혁명 수행을 위해서는 고난과 애로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똑똑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이리하여 그들에게는 혁명에 대한 자각성과 혁명에 바치는 창조적 적극성이 부족하며 혁명적 락관주의가 결여되여 있다.

이러한 사상적 결함은 우리 지도 일꾼들과 당원들에게서도 적지 않게 발로되고 있는바 우리 지도 일꾼들과 당원들은 그들 자신이 지도적 립장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혁명의 전진 운동에 끼치는 손실은 더욱 크다.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사회 단체 일꾼들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당성있고 검열되고 단련된 혁명의 적극적인 투사들이며 인민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는 인민의 충복들이다.

그러나 우리 일꾼들에게 있는 커다란 사상적 결함의 하나는 그들에게 프로레타리아적 군중 관점이 확립되여 있지 못한 그것이다.

낡은 사상 잔재에 사로 잡혀 있는 일부 일꾼들은 당과 혁명의 리익, 국가와 인민의 요구를 제쳐 놓고 개인의 리익에 관심하며 대중의 리익과 요구를, 사회적 부의 창조자인 인민 대중의 힘과 지혜를 무시하고 그들의 창조성을 억압하며 지어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횡령 랑비하는 일까지도 서슴치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중과 함께 살면서 고락을 그들과 같이 하며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는 물과 불 속이라도 뛰여 들어갈 대신에 실정에는 고려도 없이 결정서와 지시문으로써 하부를 『지도』하며 상부에는 아첨과 허위 보고로써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 한다. 이런 일꾼들 중에서 당 일꾼은 당 『냄새』를 피우면서 『당세』를 쓰며 내무원들은 『경찰 냄새』를 피우고 『경관』 『행세』를 하며 정권 기관 일꾼들은 『벼슬 냄새』를 피우면서 관리 『행세』를 자행함으로써 당 정책을 외곡하고 그의 수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당과 인민을 리탈시키며 인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당과 혁명의 리익을 개인의 공명과 탐욕에 복종시키려 한다.

이리하여 근로 대중의 계급적 의식의 나약성, 우리 일꾼들에게 있는 군중 관점의 결여는 호상 작용하여 대중과 지도를 분리시키며 인민 대중의 창조적 력량을 다독(荼毒)시키며 우리 혁명을 저해하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 혁명의 생기 발발한 전진을 위하여서는 이 모든 병집을 철저히 고쳐야 하며 우리 지도 일꾼들과 근로 대중들에 대한 계급적 교양을 강화하며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계급적 교양을 강화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맑쓰—레닌주의 사

상을 그들의 확고한 지배적 사상으로 만들므로써 매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목적을 똑똑히 알고 당과 혁명의 리익을 제일 생명으로 알고 혁명적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로 충만된 투사로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급적 교양을 강화한다는 것은 당 정책의 실현자로서 대중과 한 덩어리가 될 줄 알며 그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울 줄 알며 대중을 사랑할 줄 알며 군중 관점이 확립된 혁명가의 자질과 품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매개 지도 일꾼을 육성함을 의미한다。

매개 당원들과 지도 일꾼들은 맑쓰—레닌주의적、과학적、혁명적 리론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사회 발전의 객관적 제 법칙、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혁명의 기본 동력과 동맹자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확고한 군중 관점을 수립함과 동시에 당과 혁명의 리익에 배치되는 어떠한 관료주의적 현상과도、어떠한 반동 세력과도 무자비하게 싸워야 하며 사소한 탐오、랑비、횡령과도 융화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철저한 혁명적 사상이 매개 당원들과 지도 일꾼들과 근로 대중들의 일체 사업과 생활을 지배하는 지도적 사상으로 되여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만 대중의 요구와 지도를 창조적으로 결부시키며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키며 혁명적 경각성을 제고하여 우리 조선 인민의 사회주의에로의 전진을 촉진시킬 수 있다。

당이 요구하는 사상 전선에서의 개변이 없이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승리도、三월 전원 회의와 一一월 전원 회의의 결정의 성과적 실천도、인민 생활의 급속한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바로 여기에 력사적 四월 전원 회의의 거대한 의의가 있다。

당 단체들의 과업은 현 계단에 있어서 당의 기본 임무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지향하는 전 인민적 투쟁을 성과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당 사상 사업을 이 임무의 수준에까지 급속히 제고시키는 데 있다。

당 단체들은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을 깊이 연구하여 자기의 소유로 하며 맑쓰—레닌주의 교양 특히 당내 계급적 교양 사업을 강화함에 당적 주의를 집중할 것이 요구된다。당원들과 지도 일꾼들 그리고 전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맑쓰—레닌주의 학설과 제 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우리 나라 사회 발전의 객관적 제 법칙을 옳게 인식하며 사회 발전의 각 계단에 있어서의 경제 형태들과 각 계급들의 사회 경제적 처지 및 그들의 호상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며 혁명에 있어서 적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혁명 승리를 위하여 온갖 가능성과 투쟁 형태들을 다 리용하며 우리 나라의 구체적 정세와 우리 당

의 로선과 정책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를 실천함에 있어 혁명적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자연 및 사회 발전의 일반적 법칙성 특히 자본주의하에서의 계급 투쟁의 본질과 자본주의—제국주의의 불가피한 멸망 및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필연적인 승리에 대한 과학적 사상으로 당원들을 무장시킴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그들의 유물론적 세계관을 확립시키며 우리 혁명의 최후 승리에 대한 신심과 혁명적 사상 의식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전체 당원들과 지도 일꾼들을 우리 혁명의 최종 목적 달성을 위한 투쟁에서 근로 대중의 선구자로、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철두 철미 헌신하는 불굴의 혁명 투사로、열렬한 정치 활동가로 육성하며 생산에서 고도의 창조적 헌신성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모든 로력적 성과를 애호 절약하며 온갖 결함과 오유、원쑤들의 온갖 파괴、암해등 반혁명적 시도에 대하여 예리한 혁명적 경각성으로 준비되고 단련된 당과 혁명의 리익의 수호자로、프로레타리아적 군중 관점을 확립한 인민의 충복으로、혁명적 락관주의로 충만된 적극적 투사로 되도록 결정적 대책을 취하는 것은 당면한 중요한 과업이다。

사상 사업을 자기의 제一차적 과업으로 인정하는 우리 당은 사상 사업을 부차적인 일꾼들에게 일임하는 무책임한 현상과 선전 사업에서의 교조주의적、형식주의적 결점들을 퇴치하고 우리 사상 사업이 우리 혁명 사업에 생기 발랄한 혁명성을 가지고 수응하도록 책임적 일군 자신이 사상 사업에 솔선 참가하여 이를 지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리하여 당과 혁명과 인민의 리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일체 낡은 사상 잔재와의 대담하고 견결하고 꾸준한 투쟁으로써 우리 혁명을 전진시켜야 한다。

당과 혁명의 리익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혁명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것은 혁명 수행에 나선 매개 당원들과 근로자、매개 지도 일꾼들 앞에 열린 유일하게 영광에 찬 길이다。

관료주의자들은 우리 혁명 대렬에 서 있을 자리가 없다

박 천 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악독한 적의 하나는 관료주의이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관료주의는 우리 공화국의 기초로 되여 있는 인민 민주 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고상한 정치 도덕적 품성과 인민들의 강인성을 말살하며 우리의 무진장한 지하 자원을 개발 동원하는 것을 저해하며 집행에 대한 검열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검열을 공허한 형식적인 것으로 되게 하며 비판과 자기 비판을 말살한다』。

우리 혁명 사업 행정에서 발현되는 이 가증할 관료주의는 과거의 봉건 왕권 제도하에서나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소수 지배 계급들이 인민 대중을 억압 착취하며 통치하던 낡은 사회의 악습이며 그의 해로운 유산물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착취 계급들의 국가 기관은 그 자체의 본성으로 보아 관료주의적 기관이며 그들의 관리 체계는 관료주의적 체계이다。

그러므로 착취 계급들의 국가 구조와는 아무러한 공통성도 없는 우리 나라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관료주의적 관리 체계란 존재할 수도 없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전 인민적 국가 부문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차지하고 일체 국가 생활에서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 농 동맹이 결정적인 사회 력량으로 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관료주의를 새로 산생할 사회적 근원은 기본적으로 제거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와 그로부터 흘러 나오는 관료주의적 표현들은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으며 그의 명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장구한 기간에 걸친 봉건 왕권 제도하에서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물려 받은 악독한 유산인 봉건 및 일제 사상 잔재와 그로부터 흘러 나오는 관료주의는 일반적으로는 우리 인민들의 머리 속에, 특수적으로는 우리 지도 일군들의 머리 속에 오래 동안 남아 있을 수 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맑쓰-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의 의식의 변천은 사회 경제의 변혁에 비하여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여 우리는 낡은 사상 잔재와 그의 표현인 관료주의의 발현들을 다만 불가피한 것으로만 인정하고 그것이 저절로 소멸되기만 기다릴 수 없다。 낡은 사상 잔재는 일조 일석에 청산되지 않으며 그것은 장구한 시일에 걸쳐 부단한 투쟁을 전개함이 없이는 청산되지 않는다。

만일 우리들이 그것과의 투쟁을 완만히 진행하거나 또 그것을 차요한 투쟁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진 운동에서 불피코 만회할 수 없는 손실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얻을 것은 없다。

프로레타리아적 군중 관점에 설 대신에 적대 계급의 군중 관점에 섬으로써 력사를 창조하는 인민 대중의 역할을 무시 또는 과소 평가하거나 대중에게 의거하여 사업하며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에게 복무할 대신에 대중을 강박하며 명령 호령하는 그러한 관료주의는 착취 계급의 행위이며 따라서 대중을 당과 정부로부터 리탈시키는 반혁명적 행동이다。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는 관료주의를 엄격히 비판하면서 우리 나라 사회 발전의 현 단계의 요구에 수응하기 위한 우리 당 사상 사업의 총적 임무의 하나로서 당 및 국가 기관내의 일부 일군들에게 아직 남아 있는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낡은 사상 잔재로부터 흘러 나오는 일부 일군들의 관료주의적 작풍은 우리 당 정책 집행에 해독을 추며 당의 전투력을 마비시키며 당 및 정권 기관의 위신을 저락시키며 당과 정권 기관으로부터 대중을 리탈시키는 등 결과를 초래케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전진을 저해하고 있다。

관료주의가 우리 혁명의 전진을 저해하는만큼 관료주의에 포로된 일부 관료주의 분자들은 우리 혁명의 원수이며 우리 혁명 대렬에 서 있을 수 없다。

＊ ＊ ＊

옳은 로선이 세워지고 옳은 결정이 채택된 다음에는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맑쓰-레닌주의는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간부는 당 및 국가적 지도의 결정적 력량이며 지도적 핵심이다。 그러나 아직 적지않은 간부들이 당 및 국가적 지도의 결정적 력량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당 및 국가적 지도의 결정적 력량으로 되기 위해서 간

부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전제 조건의 하나는 프로레타리아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군중적 사업 작풍을 소유하는 문제이다。 이것 없이는 간부로 될 수 없으며 또 이것은 간부의 중요한 사상 관점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불가결한 품성이다。

실천적 경험은 프로레타리아적 군중 관점이 확립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군중적 사업 작풍을 소유하지 못한 간부는 그가 아무리 조직성이 강하고 능력과 열성이 있다 하여도 그는 대중의 무궁 무진한 힘을 혁명 승리에로 옳게 조직 동원할 수 없으며 불피코 반인민적—관료주의적 작풍으로 해서 대중과의 리탈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관료주의가 없는 인민적 사업 작풍은 간부들에게 필수적인 품성으로 된다。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사업 작풍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꾼들의 사업 행정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사상과 방법의 종합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사업 작풍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그것이 일꾼들의 사업상 능력이나 성격상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보다도 일꾼들의 세계관 또는 그들의 사상 의식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낡은 사상 잔재와 그로부터 흘러 나오는 이런 또는 저런 관료주의적 표현들과의 투쟁은 적대 계급의 세계관、 또 적대적 사상 의식과의 투쟁이며 이는 나아가서 첨예한 사상 투쟁이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 행정에서 발생되는 이런 또는 저런 관료주의의 표현들은 그것이 소문난 엄중한 것이거나 또 그렇지 않은 것이나를 막론하고 그것은 가증할 적대 계급의 군중、관점의 표현이며 적대 계급의 사상의 표현이라는 데서는 공통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적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엄중한 죄과를 범한 관료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증오와 규탄을 하면서도 현재는 비록 그것이 은연한 그리고 사소한 형태로 발현되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공공연한 관료주의자로 전변될 수 있는 그러한 숨은 관료주의자들의 작풍에 대해서는 적게 관심하고 있다。 관료주의와의 투쟁이 첨예한 사상 투쟁인 것만큼 우리는 온갖 관료주의적 표현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으며 그를 반대하여 한 사람같이 나서야 한다。

적대 계급의 사상 관점에 립각하고 있으며 군중과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관료주의가 력사를 창조하는 인민 대중을 과소 평가하고 홀시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 운동에서 대중의 열성과 적극성을 저하시키는 사실에 대하여 과연 그 누가 관료주의의 표현의 강도(强度)만을 가지고 관료주의를 시비하며 증오하며 배격할 것인가? 온갖 관료주의의 표현은 그 모두가 우리 혁명의 원쑤인 데서는 공통적이므로 다같이 증오하며 배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형적인 관료주의자들과 지금은 현저하고 공공연한 관료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머지 않아 가증할 관료주의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숨은 관료주의자들까지 포함한 모든 관료주의자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대중에 대한 홀시이며 공명주의와 리기주의이다。

그들은 통례로 일정한 지위에 등용되기만 하면 벌써 등용된 그날부터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공명과 지위를 위하여 틀만 차리며 자기 무능력이 폭로될까 두려워서 상부에 대해서는 노예적 근성으로 해서 아첨 맹종하며 하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도를 줄 대신에 명령 호령하기를 시작한다。

유감스럽게도 어제까지만 하여도 선량한 군중의 한 사람으로 자처하던 분자들이 일정한 지도적 지위에 등용되기만 하면 인민의 충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벌써 공명심과 출세주의에 사로 잡혀 맹동하며 세도와 행세에 급급하여 대중을 자기의 희생물로 하려는 그러한 적대 계급의 사상 관점의 포로로 되고 마는 사실에 대하여 누가 참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분자들은 「… 그들 자체가 아직도 혁명적 기본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것이 우리 당 정책의 기본적 출발점이라는 것」(김 일성)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레타리아적 군중 관점 대신에 적대 계급의 군중 관점에 서서 낡은 통치 계급의 반인민적 관리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락인된 관료주의자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의 일부 하부 지도 일꾼들 속에서도 이러한 관료주의적 표현들이 드물지 않게 발생되고 있다。

평북도 광성군 석하리 당 위원장 김 명천이나 성흥 광산 전 초급 당 위원장이였던 김 화선과같이 틀만 차리고 앉아서 대중에게 큰 소리로 명령 호령하는 것으로 자기 「위신」을 세우려 하며 군중과 자주 접촉하면 「위신」이 서지 않는다 하여 의식적으로 대중의 면전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는 명백히 대중을 깔보는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이며 그것은 관료주의이다。

이러한 관료주의의 분자들은 흔히 상부에 대해서는 아첨하며 숨어서는 국가 재산과 인민의 재산을 노략질하여 사복을 채우며 인민이야 어찌되든지 자기만 행세하면 된다 하여 은연히 혹은 공공연히 일제 관리식 행세를 본받는다。

평양시 신一동 사무소 전 사무장 김 덕화처럼 상급 기관에서 사람이 오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찾아 오면 아주 겸손하고 다정하고 친절히 대하나 로동자、로인、녀성들이 찾아 오면 교만한 태도로 호령하며 숨어서는 인민의 재산을 노략질하여 음주 방탕하는 분자들이나 황해남도 삼천군 탑평리 지도 일꾼들처럼 인민들로부터 세외 부담을 강제 징수하여 리당 위원장의 양복 값과 리급 간부들의 연회비로 탕진한 분자들은 자기들의 비위에 고분고분히 응하고 자기에게 아첨이나 하는 사

람에 대해서는 흡족히 여기면서도 원칙성있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공연히 적대하는 데도 관습되여 있는 것이다。

관료주의자들의 공명심과 개인 리기주의 때문에 우리의 귀중한 근로 대중들이 어떤 개인의 사리 사욕의 충족을 위해서 혹사되는 일도 없지 않다。 근로 대중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근로 대중들이 복무하여 줄 것을 강요하는 관료주의 분자들은 대중의 등을 쳐먹고 있으며 대중의 우에 자기를 내세운다。 이런 분자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사실에 있어서는 군중의 리익보다 사리 사욕을 항상 전면에 내세우는 데 숙련되여 있다。

얼마 전에 평북도 인민 위원회 건설 트레스트 제三사업소 직맹 위원장 강 원성은 시간외 로동으로 로동자들의 생활을 『향상 보장』 시킨다는 그럴듯한 『자선심』 으로 자기의 정체를 은페하면서 그는 로동자들이 박천 인민 약국과 군 농맹 청사를 『부업』 으로 건축하여 받은 돈 八만 六천여원을 착복하여 음주 방탕하여 버렸다。

이와 같이 자기 공명과 지위와 출세와 사욕에 사로잡혀 당과 혁명의 리익보다 자기 리익을 통례로 전면에 내세우는 그들은 결국 착취자들의 계급적 리해 관계를 반영하는 착취 계급의 반인민적 사상 관점에 서게 된다。

군중에게는 해로우나 자기 개인에게는 유익하다면 이러한 분자들은 당도、국가도 기만하기를 겁내지 않으며 상부에 대한 아첨과 허위로써 자기 공명과 지위와 출세를 꾀하여 맹동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상부에 대한 아첨과 범죄적인 허위 보고가 우리 혁명의 실천적 행정에서 근절되지 않고 종종 발생되는가? 바로 그것은 이 가증할 관료주의자들이 자기의 범죄적 행동을 멈추지 않는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중이야 어찌되던、혁명 사업이야 어찌되던 자기 공명과 지위와 출세에만 눈이 어두운 일부 당、국가 및 경제 기관 일꾼들은 당과 국가를 기만하여 허위 보고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전진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고 있다。

현실적 가능성을 타산함이 없이 오로지 자기 개인의 공명에 사로잡혔던 해주 쎄멘트 공장과 고무산 쎄멘트 공장 지도 일꾼들은 생산하지도 않은 쎄멘트를 생산하였다고 상부에 허위 보고함으로써 련관성을 가진 경제 건설 부문에 해독을 끼쳤다。 평북도 운전군 인민 위원회 지도 일꾼들은 자급 비료 생산을 과장하여 상부에 아첨 허위 보고하였으며 길주군 당 위원회 지도 일꾼들은 자기 공명을 위하여 상부에 대한 보고에서 의식적으로 결함을 삭제 은페하였던 것이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그 모두가 프로레타리아적 군중 관점에 립각하여 인민 대중의 리익과 혁명의 리익을

위할 대신에 자기 개인의 공로를 위하여 맹동한 관료주의자들의 범죄 행동이다。

이러한 가증스러운 범죄적 행동들이 결코 군급이나 리급 일꾼들이나 생산 기업소 지도 일꾼들 속에서만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틀만 차리기에 눈이 어둡고 사업에 대해서는 열성이 없으면서도 공명과 지위를 탐내여 『세도』있는 사람에게 아첨 굴종하는 지도 일꾼들이 우리 혁명 대렬에는 아직 남아 있다。

이러한 관료주의 분자들은 자기 개인의 맹동 맹종이 군중의 리익과는 량립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강조하여 다시 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료주의 분자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은 자기 공명과 지위이다。 그들은 자기 공명을 위해서는 동료들간의 호상 협조의 의무까지도 저바린다。

그리하여 그들은 당과 국가를 위하여、인민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면 상급으로부터 『표창』을 받으며 또 『등용』되며 자기 『공로』가 세상에 알려질까 하는 것부터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사업의 질적 보장보다 왕왕 형식적인 겉치장에만 열중하며 책임은 타에 전가하면서도 공로는 자기의 주머니에 넣으려고 맹동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산 직장들과 농촌들에서도 이러한 관료주의자들의 공명주의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즉 남보다 먼저 습득한 기술이나 선진 작업 방법을 동료들에게 가르쳐 주려 하지 않으며 증산 경쟁에서 자기 경쟁자들과 호상 협조할 대신에 도리여 경쟁자가 뒤떨어질 것만을 바라는 등 개인 리기주의와 공명주의가 우리 경제 건설 분야들과 과학 연구 분야에서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

자기 공명을 위하여 남의 공로를 횡취하려는 사실들이 희천 자동차 부속품 제작 공장에 있었다。 얼마 전에 희천 자동차 부속품 제작 공장 선반공 장 관수 동무가 피스톤을 타원형으로 깎을 수 있다고 제기하였을 때 『실패하면 국가에 변상할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고 엄격히 따지던 관료주의 분자인 공정부장 김 달원은 장 관수 동무에게 아무런 구체적 지도와 방조도 주지 않고 있다가 장 관수 동무의 혁신적 발기가 성공된 것이 세상에 알려지자 그는 자기의 『기술적 지도』를 자랑하면서 그 공로를 자기의 『공로』로 횡취하려 서둘었다。

이와 같이 공명주의는 자기의 유능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부에는 아첨하며 하부 일꾼들의 사업 성과를 깎아 내리려고 비방 질투하며 남의 공로를 자기 공로로 내세우며 책임이 들어나면 책임을 하부에 넘겨 씌우려고 한다。

관료주의자들에게서 발현되는 공명주의는 개인 영웅주의와 자유주의에로 통한다。 그들은 자기의 『자선심』

과『지혜』와 『총명』으로 자기 위신을 세우기 위하여 하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의 독단적 『창발성』으로서 종종 지도의 집체성을 위반한다.

론박할 수 없는 사실이 확증한 바와 같이 평양 양조공장 지배인으로 사업하면서 김 성옥은 얼마 전에 알콜 생산 원료로 사용하여야 할 백미 중에서 一톤 四백여 키로를 독단적으로 자기의 『공명』과 『자선심』을 위하여 공급부장을 시켜 하부 일군들에게 비법 분배하여 주고는 상부로부터의 책임 추궁이 있었을 때에 그 책임을 타에 전가하려 한 것과 같은 행위들은 공명주의와 리기주의의 단적인 표현이다.

이와 같이 공명주의와 리기주의에 사로 잡힌 관료주의 분자들은 당 및 국가 규률을 제멋대로 위반하며 당내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제 원칙을 란포하게 유린하는 것도 서슴치 않는다. 만일 관료주의자들의 공명주의와 개인주의가 제때에 시정되지 않고 조장된다면 그것은 우리 혁명에 직접 이런 또는 저런 해독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자신이 종파주의와 기회주의로 통하게 되므로 이는 가장 엄중한 결과까지도 초래한다.

그러므로 관료주의 분자들이 통례로 소유하고 있는 공명주의는 우리 당의 사상과 당원의 품성에 적대되며 따라서 그것은 우리 당내에 허용할 수 없는 해독적 사상이다.

부분적 관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특정적인 것은 그들이 큰 소리로 명령 호령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자기 직권으로서 은근히 하부 일군들에게 압력을 가하며 겉으로는 다정한듯 보이나 속에는 비수같은 복수심을 품고 자고 자대하는 그것이다. 이러한 분자들은 또한 큰 소리로 하부에 대하여 명령 호령하지 않은 것으로써 자기는 관료주의적 악습이 전혀 없는 선량한 사람인것처럼 가장한다.

이러한 지도 일군들은 왕왕 관료주의의 표현을 하부에 대하여 큰 소리를 치거나 또 사업상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는 것까지도 관료주의로 간주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써 하부에 압력을 가한다.

물론 분별없이 큰 소리를 치기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일군들 중에서는 많은 경우에 관료주의가 표현되지만 그러나 사업상 필요에 따라 하부에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관료주의는 아니다. 사업에 대한 강한 요구성, 그것은 지도 일군들에게 있어서 십분 필요하며 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도 일군들은 자기의 관료주의가 세상에 들어날까 두려워서 사업상 강한 요구성까지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에서 성과가 없으면 하부 일군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며 또 질책하기를 좋아 한다. 이러한 표현도 역시 그것은 분명히 관료주의이다. 사업상 강한 요구성과 관료주의는 호상 다른 개념이다.

온갖 실천적 활동이 계급적 행동인 것처럼 적대 계급의 사상 관점에 립각하고 있는 관료주의자들의 온갖 실천적 활동도 역시 적대 계급의 행동과 통한다.

적대 계급 분자들은 자고 자대하여 온갖 정당한 제의와 비판을 억압하며 비판자들을 박해 추궁하며 자기 사업에 대한 검열을 회피한다. 이러한 경향이 모든 관료주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희천 광산 행정 및 당 단체 지도 일군들에게서 발현된 관료주의의 악습은, 확실히 관료주의자들은 대중의 비판을 꺼리며 비판한 사람들을 자기 직권으로써 은연히 혹은 공공연히 억압 추궁 박해하며 자기 기관과 자기 기업소에 자기 『질서』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희천 광산 지배인 리 종화와 초급 당 위원장 리 봉숙이와 같은 관료주의자들처럼 자기를 비판한 아래 일꾼들을 『괘씸』한 『말성 꾸러기』라 하여 철직 혹은 이리 저리 조동하여 놓으며 기업소의 『비밀』이 상부에 반영되지 않도록 『방비』하기 위하여 상부의 검열을 회피하는 그러한 행위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것은 변명할 여지없이 착취 계급들이 대중을 무시하며 그들의 의견과 신소와 요구를 듣지 않으며 오직 자기 개인의 체면과 리익만을 제일이라고 내세우는 그러한 적대 계급의 행동과 일치되는 것이다.

진실을 그대로 말하려는 수천 수만의 인민 대중의 입을 틀어 막고 오직 자기한 일만을 옳은 것으로 내세우려는 관료주의자들은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발력과 열성을 억누르며 군중적 통제와 상부의 검열을 이렇게 꺼린다.

그러나 적대 계급의 사상 관점에 포로된 관료주의 분자들은 자기는 검열당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이들은 하부 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검열에서는 한사코 그 검열을 『정탐』식, 『경찰』식으로 하여 위협과 공갈과 책벌로써 대치하며 검열에서 성과 대신에 부족점만을 들추어 내기를 좋아한다.

검열 사업에서의 이러한 관료주의적 발현들은 국가 및 경제 기관들과 사회 단체와 협동 단체들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부 당 기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대중의 존경과 신임을 받지 못할 죄악인가는 론단하기 어렵지 않다.

대중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치면서도 고용자적 근성에 사로잡혀 혁명자적 긍지를 상실한 관료주의 분자들이 대중을 홀시하며 과소 평가하는 데로부터 대중의 의견과 여론을 상부에 정확히 반영시키지 않으며 다만 상부에 대한 아첨과 맹종 맹동으로써 대중과의 리탈을 가져 오는 그러한 사실이 그 무엇으로 우리 혁명의 전진 운동에 도움을 주겠는가?

혁명의 전진 운동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혁명의 전진 운동에 장해를 주는 외에 다른 것은 줄

수 없다。 혁명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그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

관료주의가 적대 계급의 사상 관점에서 류출하며 따라서 그것이 적대 계급의 사상의 표현일 때 그것은 분명히 인민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사상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그 무슨 사상이 있겠는가? 부르죠아 이데올로기냐、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냐、 다른 중간 이데올로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맑쓰—레닌주의는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온갖 관료주의적 표현은 적대 계급의 사상의 표현이며 따라서 적대 계급의 사상의 소유자들인 관료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의 원쑤에 속하며 그들은 우리 혁명 대렬에 서 있을 자리가 없다。 관료주의와의 투쟁은 심각한 사상 투쟁이며 첨예한 계급 투쟁이다。 계급 투쟁의 포기는 혁명 승리를 위한 투쟁의 포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 시기에 있어서 관료주의와의 날카로운 투쟁은 우리 혁명 승리를 위한 치렬한 계급 투쟁이다。

* * *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는 현 계단에 있어서의 우리 당의 사상 사업의 총적 임무로 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취급하면서 당 및 국가 기관내의 일부 일군들에게 남아 있는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였다。

사상 사업을 자기의 제一차적 과업으로 인정하는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잠시도 멈추지 않았으며 당원들과 비당원 근로 대중 속에서 맑쓰—레닌주의 사상의 선전을 부단히 전개하여 왔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 맑쓰—레닌주의는 조선 인민의 지도적 사상으로 되여 있다。

그러나 장기성을 요구하는 우리 혁명은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우리 혁명이 우리 나라 남반부에 둥지를 틀고 있는 국내외의 반혁명적 원쑤들의 반동 세력과 또 그들의 반동 사상의 침습을 받을 수 있으며 또 다른 편으로는 부르죠아적 사상의 온상으로 되는 소부르죠아적 자본주의와 소상품 경리가 북반부에 잔존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들 속에 뿌리 박고 있는 낡은 적대 계급의 사상 잔재를 완전히 숙청하지 못한 조건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바로 계급 투쟁의 첨예화의 불가피성을 말하여 준다。 모든 사회 혁명에서 그러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혁명에서의 계급 투쟁도 더욱 첨예화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낡은 사상 잔재의 청산、 사회주의적 사상、 계급 의식의 제고를 위한 사업은 치렬한 계급 투쟁이며 사상면에서의 혁명이다。 오직 이러한 투쟁이 없이는 력사

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

사회주의로 지향하는 길에서 인민 대중을 새로운 사상、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앙양된 그들의 창조력을 혁명 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함에 있어서 지도 일군들의 역할은 거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일군들의 중요한 사상적 결함은 그들에게 프로레타리아적 군중 관점이 확립되지 못한 그것이다。 군중 관점의 확립은 정확한 령도 방법을 실현하는 불가결의 조건이다。 프로레타리아적 군중 관점의 확립은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의 정확한 결합을 실효있게 실현시키며 지도와 대중을 련결시키는 중요한 관건이다。

지도와 대중과의 련계의 유일한 형태는 설복과 해설의 방법이며 이러한 형태는 프로레타리아적 군중 관점이 확립되지 못한 지도 일군들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다。 통례로 대중에 대한 관료주의는 프로레타리아적 군중 관점에 립각하지 않은 지도 일군들에게서 발현된다。

프로레타리아적 군중 관점에 튼튼히 립각한 지도 일군만이 대중과 한덩어리가 될 줄 알며 그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울 줄 알며 대중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할 줄 아는 혁명가의 품성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프로레타리아적 군중 관점은 지도 일군들의 계급적 의식과 그들의 맑쓰—레닌주의 사상 의식을 제고하는 데서만 정확히 확립될 수 있다。

계급적 의식과 맑쓰—레닌주의 사상을 자기의 지배적 사상으로 소유한 그러한 지도 일군만이 우리 혁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신심을 튼튼히 가지고 대중과 자기를 혁명적 락관주의로 충만된 적극적 혁명 투사로 만들며 대중을 혁명 승리에로 능숙하게 조직 동원하는 령도술을 소유할 수 있다。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지도 일군들의 사업 작풍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맑쓰—레닌주의의 혁명적 리론과 방법에 의거한 사업에는 진실로 혁명적인 당적 사업 작풍이 이루어 지며 부르죠아 사상과 비맑쓰주의적 방법에 의거한 사업에는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및 기타 각종의 반인민적 작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교시하였다。

이와 같이 지도 일군들의 작풍에 관한 문제는 지도 일군들의 세계관에 관한 문제이며 인민적 사업 작풍、 관료주의가 없는 사업 작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도 일군들에게 중요한 것은 맑쓰—레닌주의와 계급적 교양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지도 일군들과 당원들에 대한 계급적 교양과 맑쓰—레닌주의 교양 사업이 당 단체들의 부차적 사업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형식적 및 교조주의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곳에서는 불피코 관료주의가 산생되며 그것은

로 해서 우리 혁명에 거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는 일부 지도 일군들에게 아직 남아 있는 관료주의를 퇴치하기 위하여 사업에 있어서 집체적 지도 원칙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관료주의자들은 그의 절대 다수가 사업에 있어서 편견에 사로잡힌 주관주의자들이다」。 그러므로 사업에서 집체적 지도 원칙이 수립되지 않은 그러한 기관들과 기업소들에서는 어느 한 지도 일군의 독단과 편견이 허용되여 그로 하여금 편견에 사로 잡힌 관료주의자로 능히 되게 할 수 있다。

오직 세련된 지도의 집체성이 기관들과 기업소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경우에라야만 편견에 사로잡혀 맹동하는 관료주의자들의 소행을 제때에 압살하여 버릴 수 있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실효있는 방법이다。

온갖 관료주의의 표현들과의 투쟁에 있어서 다른 실효있는 방법은 당 단체들이 지도 일군들에 대한 일상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며 하부로부터의 통제와 검열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세련된 간부라 할지라도 당의 통제 밖에 오래 동안 놓여 있게 된다면 그는 쉽게 관료주의자로 전변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은 확증하고 있다。

오직 당 단체들이 지도 일군들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면서 하부 군중들의 비판과 통제를 발양시킬 때만이 비록 그것이 사소한 관료주의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제때에 비판과 통제의 압착기에 몰아 넣음으로써 실효있게 압살 시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도 일군들의 사업 작풍、특수적으로는 일부 지도 일군들의 관료주의적 작풍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군중들의 맑쓰—레닌주의적 사상 의식을 제고시키며 동시에 지도 일군들의 맑쓰—레닌주의 세계관을 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적으로 자각되고 맑쓰—레닌주의적 사상 관점에 튼튼히 선 지도 일군들과 대중들이 통제하는 그러한 곳에서는 관료주의、탐오、랑비、횡령 분자들은 더는 자기의 음폐소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 시기에 있어서의 당 단체들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당원들과 근로 대중 속에서 맑쓰—레닌주의 교양과 계급 교양을 가일층 강화하며 온갖 적대 계급의 사상 잔재와 그로부터 류출되는 반혁명적인 발현들을 무자비하게 폭로 분쇄 제거함으로써 우리 혁명 사업을 성과있게 전진시키는 데 있다。

우리 혁명 사업을 망쳐 먹을 수 있는 낡은 사상 잔재와 그로부터 류출하는 관료주의와의 투쟁은 계급 투쟁이다。

우리는 적대 계급의 사상 관점에 포로된 관료주의 분자들에게 우리 혁명 대렬에서 있을 자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 관료주의는 우리의 극악한 원쑤이다。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

서 춘 식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은 당의 정책과 결정 지시들을 초급 당 단체들과 대중 속에서 해설 선전하며 그의 집행을 조직 지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자기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초급 당 단체들에서와 대중 속에서 보내고 있는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은 대중의 생활과 감정을 일상적으로 체험하며 사람들의 산 활동 속에서 당적 위임을 실현하고 있는 창조적 사업가들이며 초급 당 단체들의 일상적이며 실질적인 방조자이다。

이들은 초급 당 단체들에서 당 조직 사업과 정치 교양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현지에서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의 옳은 결부를 실현시키며 시、군당 위원회와 초급 당 단체를 련결시키며 당원、비당원 대중을 당 위원회들에 련결시키는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당의 조직적、사상적 강화를 위한 일련의 중요한 사업들과 당면한 당과 정부의 제반 결정 지시들이 시、군당 위원회의 지도원들의 활동에 의거하지 않고 실현되는 것은 거의 없다。 우리 당의 모든 사업의 성공적 실현은 이들의 활동과 밀접히 련결되고 있다。

따라서 시、군당 위원회들의 사업 수준과 성과는 지도원들의 정치 및 실무적 준비 정도와 그들의 활동 여하에 크게 의존된다。

오늘 당 및 국가 경제 건설 분야에서 시、군당 위원회들의 수 많은 지도원들은 당 위원회의 위임 실행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점차 그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의 사업 수준은 아직 우리 혁명 임무의 수준에서 뒤떨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에서는 적지 않은 결함들이 발로되고 있다。

따라서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의 지도 수준을 가일층 제고하며 그들의 사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 실시하는 것은 도、시、군당 위원회들

앞에 제기된 긴급한 과업의 하나로 되고 있으며 또 일상적 관심사로 되고 있다。

✽ ✽ ✽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의 기본 사업은 초급 당 단체들과의 사업이다。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은 초급 당 단체들의 자립성을 제고하며 당과 정부의 결정 지시들이 초급 당 단체들에서 옳게 집행되도록 실효있는 방조를 주기 위하여 자기 시간의 거의 전부를 초급 당 단체들에 대한 지도와 방조 사업에서 보낸다。

현지에서 자기 시간의 거의 전부를 보내고 있는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의 사업이야말로 그것은 진실한 의미에 있어서의 창조적 사업이다。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현지에서 진행되는 초급 당 단체들에 대한 지도원들의 방조 사업은 확실히 초급 당 단체들의 자립성 제고에서와 정치 경제적 과업 수행에 있어서 실효있는 지도로 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이 현지에서 초급 당 단체들에 실효있는 지도와 방조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평북도내 일부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의 사업 정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왕왕 초급 당 단체들에 대한 그들의 지도 방조 사업에는 체계적인 연구와 면밀한 준비없이 진행되는 그러한 유해로운 현상이 그리 드물지 않게 있다。

초급 당 단체들에 대한 지도 방조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이 사전에 초급 당 단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료해에 도달하는 그것이다。 초급 당 단체들의 회의록과 결정서、통보 자료들과 실지 사업 정형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현지에서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여 실효있는 지도와 방조를 줄 수 있게 하는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

실지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박천군 신평리 루초 농업 협동 조합과 신평리 당 단체를 지도한 박천군 당 위원회 조직부 지도원은 사전에 초급 당 단체 회의록과 결정서와 통보 자료들을 계통적으로 연구한 기초 우에 현지에서의 리급 일꾼들과 광범한 당원、비당원들과의 생활과 담화를 통하여 당 단체 사업에 현저한 개진을 가져 올 수 있는 중요한 고리를 포착하고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절실한 문제들을 리당 단체들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었다。

이 지도원은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 정황을 깊이 연구 분석한 기초 우에서 리 당 단체 일꾼들을 방조하여 농업 협동 조합 사업을 정치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케 하여 리당 단체 총회들의 토의에 부쳤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리당 단체들에게 농업 협동 조합들에 대한 옳은 당적 지도를 보장할 수 있는 실제적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다。

즉 초급 당 단체 일꾼들에게 적절한 방조를 주어 작

성한 계획에는 몇가지 당면한 중요한 문제로서 수답의 비옥도를 제고하기 위한 一〇〇여톤의 객토 작업과 새로 농업 협동 조합에 가입한 빈농민들의 식량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九・三정보의 논에 二모작을 실시하도록 보장하며 또한 조합원들의 여유금으로 어로 도구를 구입하여 一五〇여톤의 어획고를 보장할 것과 해안 조수와 자연 사료 원천을 리용하여 六、〇〇〇수의 오리를 사육하도록 할 것 등을 예견하였다。

군당 위원회 지도원은 작성된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초급 당 단체 일꾼들로 하여금 농업、어업、목축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참작하여 농작물 작업반、어로 작업반 및 목축 작업반들을 편성하도록 관리 일꾼들을 지도 방조케 함으로써 조합에서의 로력의 합리적 조직 운영을 실현케 하였다。

군당 위원회 지도원의 구체적인 방조에 의하여 신평리 당 단체는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현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자체의 구체적 실정에 적응하여 자기 사업을 점차 자립적으로 조직 집행할 줄 아는 수준에로 도달하고 있다。

운산군 당 위원회 지도원 조 시연 동무가 운산 광산 축대 분 세포를 지도한 경험도 교훈적이다。 광산에 파견되기 전에 축대 분 세포의 회의록과 결정서와 통보 자료 그리고 다른 지도원들의 지도 경험과 그 분 세포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토대 우에서 그는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축대 분 세포 당원들과 열성자들은 생산 계획을 초과 완수할 수 있는 창발적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도 일꾼들에게 잘 접수되지 않으므로 생산 사업에서 현저한 전변을 가져 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분 세포에는 긍정적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적지 않은 당원들이 있으며 그들은 생산 사업에서 주동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능히 판단할 수 있었다。

모든 통보 자료와 실제 사업 경험들과 정황들은 이 지도원의 결론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지도 방조 사업에 앞서 충분한 연구를 거쳐 준비를 갖춘 후에 진행된 현장에서의 지도 검열 사업은 실제 정황이 자기 결론과 부합된다는 것을 더욱 확증하였다。

그리하여 당원인 핵심 로동자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면서 그들의 창발적 제기들을 청취하였으며 그것을 축대 분 세포 총회에서 토의하도록 방조하였다。 좋은 제기들이 군당 위원회 지도원의 지지와 확증을 받으면서 곧 생산에 도입되였다。 정당한 발기를 제때에 포착하여 보급하였던 결과 생산은 급속도로 장성하였으며 분 세포의 활동도 현저히 개선되여 갔다。

초급 당 단체들에 대한 지도 방조 사업을 능동적이며 창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군당 위원회의 수 많은 지도원들은 정치적 지도의 성과를 이와 같은 산

방조 사업에서 보여 주고 있다。

적지 않은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이 초급 당 단체에 대한 지도와 방조 사업에서 일정한 긍정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시、군 당 위원회 지도원들 중에는 초급 당 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피상적으로 혹은 유람식으로 주고 있는 현상들이 적지 않게 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지도원들은 조직 정치 사업을 경제 사업과 결부시킬 줄 모르며 초급당 단체들에 대한 계통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않으며 초급 당 단체들이 처한 실정 밖에 서서 초급 당 단체들을 지도하려 하고 있다。

실제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염주、창성군 당 위원회를 비롯한 평북도내 일부 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은 초급 당 단체들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태도에서가 아니라 단지 초급 당 단체들의 결함만을 수집하려 다니는 데에 자기 사업의 거의 전부를 국한시켰던 것이다。 지난 시기에 옥포리 당 위원회를 수차에 걸쳐 지도한 창성군 당 위원회 지도원은 옥포리 당 단체에 산 지도와 방조를 줄 대신에 다만 차요한 결함만을 지적하고 돌아 왔으며 일부 당 위원회 지도원들은 지도와 방조 사업을 초급 당 단체 회의를 소집하여 놓고 거기에서 한바탕 연설하는 것으로써 대치하는 일도 있었다。

차요한 결함을 적발하는 데만 주력하며 회의에서 훈시적 연설을 늘어 놓는 것으로써 초급 당 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대치하려는 그러한 지도원들은 확실히 초급 당 단체 사업 형편에 대하여 고려를 돌리지 않으며 그 초급 당 단체들의 사업에서의 중요한 결함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전혀 관심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작년 가을에 수차에 걸쳐 유전리 당 단체 사업을 지도하러 나간 창성군 당 위원회 지도원은 군당 상무 위원회에서 채택한 축산업 발전 대책에 대한 결정 집행 정형에는 전혀 관심조차 돌리지 않았으며 다만 일반적인 사업 정형에 대해서만 피상적으로 알아보고 돌아 왔다。 이렇게 한 결과 유전리에는 적지 않은 농가가 무축 농가대로 남아 있었으며 풍부한 사료 원천이 리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지 않은 농민들은 농후 사료가 없이는 가축을 사양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다즙 사료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절실한 사업을 전혀 전개하지 않았다。

초급 당 단체들에 적절한 방조를 주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는 지도원들이 유람식으로 돌아다니기만 하는 그러한 곳의 초급 당 단체들에서는 상급 당의 지도와 방조와 통제가 없는 그러한 틈에서 종종 당과 정부의 중요한 결정 지시들이 지상 공문으로 남으며 일부 리급 일꾼들이 부화하여 대중과 리탈되는 현상까지도 발생되고 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피현군 당 위원회는 리당

단체들에 발송한 군당 위원회의 중요한 결정 지시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때에 지도 검열을 조직 진행하지 않았으며 또 지도원들의 지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해당한 대책도 적절히 강구 실시하지 않았던 결과 일부 리당 단체들의 사업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어는 일부 리당 위원장들이 부화하여 대중과 리탈되는 결과까지 초래한 현상을 제때에 적발 제거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피현군 당 위원회가 초급 당 단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와 방조를 주지 않았던 결과 피현군 동상리 당 위원장 백 영화는 상급 당의 결정 지시들을 빈번히 깔아 버렸으며 여유 토지를 부당 처리하여 사복을 채웠으며 분세포들에 대한 지도를 거의 태공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사실이 동상리 당 단체에 발생되고 있을 그 무렵에 피현군 당 위원회 지도원이 수차에 걸쳐 초급 당 단체를 『지도』하기 위하여 현지에 나가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은 당원 군중들과의 담화도 없이 오직 몇몇 리급 지도 일꾼들만을 상대하여 통계 숫자나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그러한 『지도』로 그쳤던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그리고 진지성과 책임성이 없는 형식적이며 피상적인 지도가 초급 당 단체들에 실효 있는 방조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이 밖에 일부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은 초급 당 단체들을 지도함에 앞서서 그 초급 당 단체들에 대한 실정을 정확히 료해함이 없이、또 경제 사업에 대한 일정한 연구 없이 현지에 나감으로써 정치적 및 실무적인 지도를 실효있게 보장하지 못하는 일도 그리 드물지 않게 있다。

지도를 줌에 앞서 해당한 준비를 갖추는 문제는 지도에서의 성과를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평북도내 일부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은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에 대한 연구 없이 하부에 내려 가서는 되는대로 지도를 주는 경향들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시기 태천군 당 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의 초급 당 단체에 대한 지도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농촌 리당 단체를 지도함에 있어서 막연하게 다수확을 쟁취하자는 구호만을 부르는데 그쳤는바 구체적인 지도와 방조를 주기에는 사실 그들은 너무나 무식하였던 것이다。 농촌 사업에 대한 연구를 차요시하고 또 그것을 태공하였던 결과 농촌 사업 지도에 동원되였던 태천군 당 위원회 지도원들과 태천군 인민 위원회 지도 일꾼들은 농촌 사업의 지도는 고사하고 종종 무식으로 해서 농민들로부터 창피까지 당한 일도 있었다。 이러한 지도원들은 『농사는 지식이 없어도 된다。 왜냐 하면 씨를 뿌리고 김을 매기만 하면 된다』고 단순히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오늘 우리의 농촌 경리는 급격한 템

포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것은 일군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방법으로 지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위원회의 일군으로서의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은 정치사업을 경제 사업과 결부시키기 위하여 응당 경제 건설에 대한 일정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여야 하며 대중의 요구와 제의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귀담아 듣고 정당히 자기 사업에서 참작할 줄 알아야 한다.

대중의 뒤를 맹종하며 그들의 제의와 요구를 정당히 듣지 않은 지도원들은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초급 당 단체들에 실효있는 방조도 줄 수 없으며 또 실지 사업을 통하여 대중과의 보다 긴밀한 련계도 강화할 수 없는 것이다.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의 사업은 사람들과의 사업이다. 따라서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은 실제 사업을 통하여 광범한 군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겸손하고 도덕적 례절을 지키며 군중들을 교양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의 정당한 요구와 동태를 제때에 포착하여 해당한 대책을 강구 실시할 줄 알아야 한다.

군중들과의 긴밀한 련계를 유지 강화하면서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은 실지 사업을 통하여 자기 구역내 간부들을 료해하며 그들을 육성하는 데도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현지에서의 지도와 방조 사업을 통하여 광범한 당원、비당원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또 그들을 시、군당 위원회와 련결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을 통한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의 유지 강화는 지도원들의 사업 작풍과 그들의 준비 정도에 크게 달려 있다.

초급 당 단체들의 생활과 근로 대중의 생활에 암둔하며 자체의 지도 수준 제고에 무관심하였던 결과 지도 사업에서 왕왕 무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일부 지도원들이 자기의 무식으로 인하여 지도 방조 사업을 관료주의적 방법으로 대치함으로써 대중과의 리탈을 가져오는 일이 그리 드물지 않게 있다.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는、지도 일군들의 지도 작풍에서의 관료주의는 낡은 사상 잔재와 무식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또 이 유해로운 관료주의로 해서 지도 일군들이 대중으로부터 리탈되는 엄중한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엄격히 지적하였다.

사실 적지 않은 경우에 일부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은 자기들의 사업이 대중 속에서 진행되며 또 당 및 정부 정책의 실현자는 대중 자신들인 것만큼 대중과의 련계 강화 없이는 지도 사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견지에 서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도원들은 대중 속에서가 아니라 대중의 머리 우에서 대중에게 명령하며 호령하는 것으로 또 대중의 결함만을 적발하는 것으로서 초급 당 단체와 대중에 대한 자기의 지도 방조 사업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

얼마 전에 삭주군 당 위원회 지도원처럼 리당 위원회에 내려가 자기 독방을 차려 놓고 당원들을 호출하며 호령하며 『심사』하는 것으로서 초급 당 단체를 강화하려고 시도한 것과 같은 그러한 방법은 불피코 당원 대중의 신임을 받지 못할 소행이며 나아가서는 당원들로 하여금 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의 지도와 방조를 달갑게 여기지 않게 하는 결과를 초래케 한다.

특별한 임무를 지니고 현지에 파견되지 않은한 지도원들이 부절없이 당원들을 불러 놓고 시비하거나 또 심문만을 일삼는다면 과연 그것으로서 초급 당 단체를 강화하며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은 대중의 친절한 방조자로서 그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아야 하며 또 자기 스스로가 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한덩어리가 되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 없이는 구체적인 지도도、대중과의 련계 강화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겸손치 못하며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기를 싫어하는 일부 지도원들은 관료주의의 악습으로 해서 당 기관의 위신을 훼손시키며 대중들의 신망을 얻지 못하며 그들과 리탈되고 있다.

얼마 전、운산군 당 위원회 조직부 부부장 선우 희처럼 관개 관리 기관 일군들에게 책상 가구등을 무료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 딴 기관의 경비를 차용한지 一년이 넘도록 갚아 주지 않는 현상등은 불피코 대중과의 련계를 약화시키며 당 기관의 위신을 훼손시킨다. 초급 당 단체들에 대한 지도 방조 사업보다 자기 개인의 리익을 전면에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지도원들이 우리 당 기관들에 극소수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 혁명의 전진을 저해하는 참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에 있어서 국영 철산 수산 사업소 초급 당 단체를 지도하려 나갔던 철산군 당 위원회 산업 지도원 차경흠처럼 국가 물자를 비법 강요하는 데만 급급하고 초급 당 단체들에 해당한 지도와 방조를 주는 것을 망각하는 것과 같은 현상은 더는 참을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당과 대중과의 련계 강화에 주는 해독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지도원들은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확실히 『당세』를 믿고 『당 냄새』를 풍기며 돌아다니는 관료、탐오 분자들에 속하는 것이다.

계급적 립장에 확고히 서지 못하고 또 자기 사업에 대한 일상적 연구와 하부 지도 사업에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지도 일군들은 오직 관료주의로서 자기의 체면과 사업을 보장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러나 관료주의는 당적 지도와는 량립될 수 없

으며 그것은 우리 혁명의 원쑤이다. 시、군당 위원회는 정치적 지도 기관이며 그의 지도원들은 정치적 지도자이다. 정치적 지도자는 인민의 충복으로서 인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할 줄 알아야 하며 대중과의 련계를 약화시키는 관료주의를 대담하게 배격할 줄 알아야 한다.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이 인민적 사업 작풍을 소유하는 문제는 우리 당 사업을 전진시킴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의 하나이다. 김 일성 동지는、二월 력사적 연설에서 우리의 지도 일꾼들은『인민들에게 의존하여 사업할 줄 알며 일상 사업에 있어서 인민들의 리해와 결부시킬 줄 알며 인민들을 옳게 동원할 줄 알며 인민들을 교양할 줄 알며 인민들에게서 배울 줄 알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줄 아는 진정한 인민의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라고 교시하였다. 이 교시는 우리 시、군당 위원회 매개 지도원들의 사업에서의 지침으로 또 사업 작풍으로 되여야 한다.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초급 당 단체들과 대중 사업에서 발생되는 제 사실을 지도적 당 위원회에 제때에 통보하는 것이다.

당과 정부 결정 지시들을 현지에서 집행하는 행정에서 발생되는 이러 저러한 경험들과 대중의 여론을 시、군당 위원회에 제때에 통보하며 모든 사업에서 선진적이고 창발적인 것을 제때에 포착 지지하여 그것을 발전시킨 경험을 지도적 당 위원회들에 통보하며 그것을 다른 당 단체들에 넘겨 주는 것은 우리 사업을 전진시키는 유력한 방법이다.

지도원들이 조직하는 이러한 통보 사업은 당 단체들과 지도 일꾼들의 사업 방법을 기동적으로 개선하며 나아가서 전체 당 사업 수준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논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시、군당 위원회 지도원들은 아직 적지 않은 경우에 이 중요한 통보 사업에 무관심하다. 자기 사업에 대한 일정한 총화를 기동적으로 짓지 않으며 나타난 현상들에 대한 정확한 정치적 결론을 짓지 못하므로 해서 응당 제때에 통보되여야 할 자료들이 통보되지 못하고 마는 일들이 있다.

통보의 가치는 그것이 기동적으로 보장되는 데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 개선의 이 중요한 수단이 왕왕 무용지물로 되는 때가 많다.

오늘 시、군당 위원회의 많은 지도원들이 자기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이 일련의 결함들은 일부 지도원들의 당 사업 경험이 청소하며 그들의 정치 실무적 수준이 어린데 크게 기인된다. 이와 같은 실정은 매개 지도원들에게 자기의 정치 실무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지도적 당 위원회들로 하여금 지도원들에게 보다 적절한 지도와 방조를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도원들의 사업에서의 성과는 그들에 대한 시、군당 위원회 책임 일꾼들의 지도에 달려 있다. 경험이 확증하는 바와 같이 박천과 구성군 당 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시、군당 위원회들에서는 책임 일꾼들의 직접 지도밑에 정상적으로 당과 정부 결정 지시들을 집체적으로 연구하며 지도 사업에 대한 정치 실무적 문제들을 계통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지도원들의 수준을 점차 제고시키고 있다. 이러한 당 위원회의 개별적 부서들에서는 특히 자기 부서 사업에 해당하는 상급 당의 결정 지시들을 개별적 지도원들에게 특별히 분공주어 연구시키며 그것을 부내에서 발표시키는 등 실효있는 방법을 정상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실지 지도 사업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군당 위원회 책임 일꾼들은 지도원의 수준이 어려서 곤난하다는 말은 빈번히 하면서도 그들의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에는 적게 관심을 돌리고 있는 현상들을 아직 근절하지 않고 있다.

사실에 있어서 지난 시기에 피현、창성군 당 위원회 책임 일꾼들은 지도원들의 지도 수준 제고와 그들의 사업에 대한 통제에 거의 무관심하였다. 이러한 결과 지도원들의 하부 지도 사업에서 적지 않은 결함들을 발생시켰던 것이다.

지도원들의 지도 수준 제고에 무관심한 일부 시、군당 위원회 책임 일꾼들 중에서는 초급 당 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단지 준비된 몇몇 유능한 지도 일꾼들만으로 보장하려는 그러한 경향도 종종 발현되고 있다. 태천군 당 위원회 지도 일꾼들처럼 수준이 좀 높은 지도원들에게만 당적 분공을 주어 현지에 파견하며 수준이 어린 지도원들에게는 많은 경우에 분공을 주지 않는 경향들은 지도원들을 실제 사업을 통하여 훈련 교양하며 육성하는 원칙과는 전혀 배치된다.

오늘 우리의 형편에서 준비된 지도원들로서만 당 위원회의 지도원을 보충해 낼 수는 없다. 피현군 당 위원회의 실정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지도원들의 대부분의 현직 년한은 六개월 내외에 불과하다. 이러한 실정은 더욱 그들에 대한 특별한 지도와 방조를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 시기에 있어서 지도원들의 지도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사업에 고착시켜 경험을 축적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평북도내 일부 시、군당 위원회들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지도원들을 이러저러한 리유로 빈번히 교체하는 현상들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빈번한 교체는 일꾼들을 일정한 사업에서 능수가 되도록 하는 것을 장해하는 참을 수 없는 현상이다.

지난 해에 곽산군 당 위원회는 선전 선동부 전임 선전원 一명을 학교에 보낸 후에 나머지 전임 선전원 一명마저 三차나 조동한 사실이 있었다. 이러한 유해로

운 조동으로 해서도 지난 해에 곽산군 당 위원회 선전선동부 사업은 불만족하게 진행되였던 것이다。

지도원들을 귀중히 여기며 그들의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기 위한 사업은 시、군당 위원회 책임 일군들의 관심 밖에서는 보장될 수 없다。일련의 군당 위원회 책임 일군들은 지도원들을 자기 자리에 고착시키며 그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조를 주고 있다。

수준이 어린 지도원들을 고착시키며 그들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서 철산군 당 위원회는 일정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군당 위원회 책임 일군들의 직접 참가하에 지도원들은 정치 학습 외에 계획적으로 보통 교육 과정도 학습하고 있다。실효 있는 통제 밑에 진행되는 이 학습에서 이미 초급 중학 과정을 끝마치고 고중 과정을 학습하는 지도원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그들의 지도 수준도 현저히 제고되면서 있다。

당 위원회들의 이러한 배려는 지도원들에게 사업에서 자신을 가지게 하며 지도 수준 제고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게 하는 습성을 가지게 하고 있다。

지도원들의 지도 수준 제고에서 다른 실효있는 방법은 그들을 시、군당 위원회 상무 위원회와 전원 회의에 참가시켜 사업 경험과 창발적 의견들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조건을 지어 주는 문제이다。공작상 임무가 끝난 후에 시、군당 위원회에 돌아와 총화한 사업 경험들과 현지에서 제기된 문제들 그리고 당 사업 방법에서 개선하여야 할 문제들을 지도원들이 대담하게 제기할 수 있게 조건을 지어 준다면 확실히 우리 사업에서 전진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왕왕 우리 일부 지도원들은 책임적 지도 일군들의 관료주의로 해서 당면하여 모든 문제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많은 경우에 조심하여 이야기하는 나머지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듯이 이야기하거나 또 결함 대신에 우점에 대해서만 무난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리 드물지 않다。

시、군당 책임 일군들의 비위에 맞추어 이야기하게 되는 분위기들이 일부 시、군당 위원회들에서 근절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이러한 경향은 범죄적인 허위 보고를 낳게 하며 이리하여 이 유해로운 경향은 필경에는 우리 사업을 망쳐먹을 수 있게까지 한다。

시、군당 책임 일군들은 지도원들과의 사업에서 사소한 관료주의적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배격 근절하고 그들로 하여금 허심하게 진실을 토로하도록 그들에게 보다 접근하며 상무 위원회와 전원 회의들에서 그들이 발언할 수 있게 조건을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지도원들의 지도 수준이 제고되면 될수록 시、군당 위원회들의 사업 수준도 제고되며 우리의 전진 운동도 보다 촉진될 것이다。

지도원들은 시、군당 위원회의 기둥이다。

농촌 사업에 있어서의 근로 단체들의 역할

황 강

우리 당은 광범한 근로 대중을 자기의 계급적 기초로 삼고 그들 속에 뿌리를 박았으며 또 그들과의 긴밀한 련계의 체현으로서 창건되고 강화 발전되였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항상 근로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유지 강화하며 그들의 지지와 신뢰를 획득하는데서 강력하다。

당은 전위와 선진 계급의 대중사이와 또한 선진 계급의 대중과 근로 대중 사이와를 련결시키는 인전대 없이는 독재를 실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레닌이 교시한 바와 같이 우리 당과 대중과의 밀접한 련계의 유지 강화와 당 정책의 군중화는 근로 대중 사이의 인전대적 역할을 수행하는 근로 단체들을 통하여 보장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당 주위에 근로 단체들을 조직하고 이들을 혁명 투쟁의 길에로 지향시켰으며 또 이 단체들을 통하여 당의 정책 실현에로 군중을 조직 동원하여 왔다。

근로 단체는 우리 당과 근로 대중을 련결하는 인전대로서 인민 경제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한 투쟁에로 근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며 이 투쟁을 통하여 인민 대중의 물질 문화 생활의 향상을 보장하며 광범한 근로 대중을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구성원으로서 하층 통일전선을 견실하고 긴밀하게 발전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위업에로 전체 근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나라 절대 다수 주민들인 농민들은 농촌 지역의 근로 단체들인 민청、녀맹、농맹 단체들에 각각 조직 결속되고 있다。

오늘 우리의 농촌에는 四五만여명의 민청원들과 一○○만여명의 녀맹원들과 一六○여만명의 농맹원들이

있는바 이들은 우리 나라의 농촌 경리 발전과 문화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력량으로 되고 있다.

지난 기간 조국 발전의 매 계단, 매 시기에 취하여진 우리 당의 정치 로선들과 제반 조직적 대책들은 근로 단체들의 사업 강화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농촌 지역의 근로 단체들은 근로 대중을 당 주위에 굳게 결속하여 당의 정책을 대중 속에 침투시키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조직 동원하는 투쟁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민청을 위시한 녀맹, 농맹 단체들은 조선 인민의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우리 당의 호소에 따라 전선 원호와 후방 공고화를 위한 투쟁과 전시 식량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로 산하 맹원들을 불러일으켰으며 후방 인민들의 정치 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여 전쟁 승리를 보장하였으며 수 많은 영웅들과 로력 혁신자들을 배출하였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 농촌 지역의 근로 단체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농촌 경리를 복구 발전시키며 우리 나라 농촌을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투쟁에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시기 농촌 지역의 근로 단체들의 사업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은 당이 근로 단체 사업에서 거둔 귀중한 열매들이며 또 이것은 근로 단체들이 당의 로선과 지도에 의하여 믿음직하게 발전 강화되고 자기 사업을 정확히 조직 집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우리 당은 농촌 지역의 근로 단체들에게 전 당적, 전 인민적 전투적 강령인 당 중앙 위원회 一九五四년 一一월 전원회의 결정과 一九五五년 四월 전원회의 결정 들을 성과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숭고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광범한 대중적 동원이 요구되며 농촌 경리가 사회주의적 집단화의 길에 들어선 현실적 제 조건은 농촌 지역의 근로 단체들의 역할을 가일층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

농촌 지역의 근로 단체들의 임무는 자기의 조직적 성격과 특성에 따라 각이 부동하다.

민청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며 적극적 방조자이다.

농촌에서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을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여 조국 보위와 로력 투쟁에로 부단히 준비시키며 농촌 지역의 경제 및 문화 건설에서 영웅주의와 희생성을 발휘케 하며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의 선구자로 나서게 하며 그들의 우수 분자들을 당 대렬에 보충하고 있다.

농촌에서 녀맹 단체들은 녀성들 속에서 정치 문화

계몽 사업을 광범히 전개하여 그들 속에서 모성과 아동의 보호 사업을 진행하며 그들을 나라의 정치 및 사회 생활에 적극 참가시키며 농산물 증산과 가축 및 양잠업 발전 등 생산 활동에 적극 참가케 하며 녀성들을 높은 도덕적 품성으로 배양시키고 있다.

농맹은 오늘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당의 정책에 의하여 농민들을 사회주의와 집단주의적 사상으로 교양하며 개인 경리 농민들을 농업 협동 경리의 길로 인도하며 농산물 증산과 부업을 장려하여 농민들의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투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 지역의 근로 단체들은 당의 지향에 따라 농민 대중을 교양하며 조직 동원하기 위한 공통된 임무를 담당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각 동맹 조직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또한 각각 다른 구체적 임무들이 있는 것이다.

현단계에 있어서 근로 단체들의 공통적 임무는 우리 당의 정치 로선에 립각하여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혁명의 원천지인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강화하며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에로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전체 근로 대중을 조직 동원함에 있다.

현 시기에 있어서 농촌 지역의 근로 단체들의 선차적 과업은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당 정책을 집행하여 전후 농촌 경리 복구 발전을 위한 三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기 위한 로력 투쟁에 전체 농민들과 농업 협동 조합원들을 조직 동원하는 데 있다.

특히 새로 조직된 농업 협동 경리들이 농업 생산과 조합원들의 생활을 계속 향상시키며 우리 나라 농촌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정확히 수행하는 문제는 오직 이들에 대한 당 및 근로 단체들의 옳은 지도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새로 조직된 협동 조합들이 자기의 경리 운영을 옳게 하며 절서있고 규률있는 협동 조합으로 발전하도록 지도 사업을 강화할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근로 단체 특히 일부 민청 단체들은 자원적 원칙에 의하여 협동 단체에 망라된 농민 청년들을 아무런 지도없이 자연 생장에 방임하거나 혹은 농업 협동 조합원들과 개인 농민 청년들을 일률적으로 지도하는 그릇된 지도 방법들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급 근로 단체 특히 군 민청 위원회는 협동 조합내 민청 단체에 대한 지도를 종래의 형식적인 지도로부터 실질적인 지도로, 부분적인 지도로부터 전반적 지도로 전환시켜 조합내 초급 단체들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며 청년들의 역할을 제고시키여 조합의 내부 질서를 강화하며 조합을 공고화함에 주목을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근로 단체내 지도 일꾼들은 위대한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선진 경험들을 연구하여 우리 나라의 현실에 알맞도록 적극적으로 섭취 적용하는 동시에 우리 나라 협동 조합들이 이미 거둔 우수한 사업 경험을 체계화하며 일반화하기 위한 견학 및 경험 교환 사업을 조직 강화하며 구두 및 직관물 선전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협동 조합내 민청 단체들은 농업 협동 조합에 대한 리론과 경험을 소유하며 선진 영농 방법의 도입을 위한 사업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며 자급 비료 증산 경쟁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여 다수확을 보장하며 목축업을 비롯한 각종 부업을 급속히 발전시키여 전반적 수익성을 제고하며 조합원들 속에서 나타나는 비근로적 경향들과 조합의 공동 재산을 탐오、랑비、절취하는 경향들과의 투쟁의 선두에 나서도록 맹원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농촌 지역의 근로 단체들은 농업 협동 경리의 공고 발전과 함께 우리 나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품 생산의 성격을 가진 분산된 개인 농민 경리에 대한 지도를 차요시하거나 홀시하여서는 안된다。

우리 농촌 경리에 있어서 아직도 그의 三분의 二는 개인 농민 경리이며 우리 나라 농산물의 절대량은 이 부문에서 생산된다。 그러므로 현 시기에 있어서 협동 조합원들과 개인 농민들에 속한 근로 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그 어느 부문도 홀시할 수 없으며 농업 협동 조합 그 자체가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인 것만큼 협동 조합 내에서 그의 존재와 역할이 필요없게 된 농맹은 개인 경리 농민들 속에서 자기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근로 단체 군 위원회들은 동맹의 각이부동한 특성과 자체의 기본 임무들을 옳게 인식하고 산하 맹원들을 농촌 경리와 문화 건설을 위한 투쟁에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농촌 지역의 근로 단체들 중에서 주동적 역할을 담당하는 민청은 청년들을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당 정책 수행에 있어서 농업 협동 조합 운동에의 적극적인 참가자로、그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나서게 하며 온갖 낡고 보수적인 것과의 투쟁과 선진 영농 기술 도입에 있어서 자각적인 선구자로 되게 하며 토지 복구 및 보호 사업과 제방 및 관개 시설 공사등 곤난하고 힘든 일을 솔선 담당 수행케 하며 자급 비료 증산 경쟁 운동을 광범히 전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녀맹은 농촌 녀성들을 가축 및 가금 증식과 양잠업 생산에서 주동적 역할을 수행케 하며 식량 증산과 절약을 도모케 하며 또 그들을 호상 원조와 자생 자결의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농맹은 오늘 우리 농촌에 있어서 三분의 一에 해당한 농민들이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된 농촌 경제 발전

의 변화와 개인 경리 농민들 속에서 사업하는 자체의 기본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개인 농민들 속에서 보수성과 침체성을 타파하고 그들을 집단주의적 사상으로 교양하여 점차 농업 협동 경리의 길에로 인도하며 농산물 증산을 보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우리 당의 정책을 성과적으로 실행하며 농업 협동 경리와 개인 농민 경리들에서 농산물의 다수확을 보장하며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 단체들의 기본 과업은 근로 대중들에 대한 정치 문화 교양 사업이다。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혁명의 성격과 그로부터 제기된 농촌의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농업 협동 조합 운동의 전개——이 모든 것은 농촌 주민들 속에서의 계급적 교양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적지 않은 농민들은 아직도 혁명성과 계급적 의식으로 튼튼히 무장되여 있지 못하다。

우리 나라의 농민들은 과거에 일제와 지주의 탄압과 착취를 체험하였으나 적들과의 투쟁에서 혁명적 세련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견결한 계급 투쟁이 없이 토지 개혁의 혜택에 의하여 토지를 가지게 됨으로써 지난 날의 압박받던 처지를 잊어버리는 가운데서 소상품 생산으로부터 부단히 발현되는 소 부르죠아 사상의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오늘 농촌에서 부농화하는 부유한 농민들과 빈농민들간의 부동한 경제적 처지가 로골화되고 있으며 당과 정부의 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한 적대 분자들의 암해 준동이 더욱 적극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지 않은 근로 단체들은 자체의 선전 수단을 통하여 적대적 사상을 폭로 분쇄하며 그들의 계급 의식 제고를 위한 교양 사업을 아주 미약하게 진행함으로써 적지않은 농민들은 현 단계에 있어서의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우리의 최종 목적 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혁명의 리익보다 개인의 리익을 존중히 여기는 계급적 나약성을 폭로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은 근로 농민 대중 속에서의 계급적 의식 제고를 위한 사상 교양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함께 농민들의 낡은 사상 의식을 개변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촌에서 정치 문화 교양 사업은 우선 청년들에게 돌려져야 한다。

그것은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어느 민족을 물론하고 그 민족의 장래는 그 민족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이 어떻게 훈련되고 교양받고 준비되였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청 단체들은 민청 교양의 중심 인물인 선전원들을 당 단체의 방조를 받아 학교、기관 및 농촌의 유능한 일꾼들로 선발 배치하고 그들에 대한 방조와 통제를 강화하며 그들의 정치 및 실무 수준과 책임성을 높이여 주도 세밀하고 높은 사상성을 가진、현실과 밀접히 결부된 풍부한 내용으로써 새 세대들인 청년들을 교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지않은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극히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강서군 민청 학습 지도자 쎄미나르 참가률은 四〇%에 불과하며 산하 五七%에 해당한 학습망들은 중단되고 있으며 일부 학습회들은 무미 건조하게 필기 전달식 제강 랑독의 방법과 어렵고 딱딱한 술어들로 현실과 분리되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형식주의와 현실과 분리된 교양으로 인하여 청년들의 요구와 흥미는 무시되고 있으며 일부 청년들 속에서는 부르죠아적 심리와 낡은 도덕적 잔재는 계속 발로되고 있다。

민청단체들은 열정적이며 진취적인 청년들의 특성에 맞추어 교양사업에서의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그들의 뼈와 살과 힘이 되도록 진실성있게 청년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즉 청년들을 사상적으로 준비시키며 그들을 혁명과 당의 리익이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사상으로 교양하며 온갖 령역의 과학적 선진 리론과 지식과 기술을 소유시켜 과학의 요새를 점령케 하는 동시에 그들을 건설 투쟁에서와 난관과의 투쟁에서 교양 하며 원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으로 그리고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또한 청년들의 모든 투쟁을 반드시 조국 통일에 대한 열망과 결부시키며 그들을 우리 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조국 보위와 로력 투쟁에 나서도록 준비시키며 청년들 속에서 나타나는 무관심성、무사태평성、안일성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농맹、녀맹 단체들은 농촌에서 대중 정치 사업을 통하여 정치 문화 계몽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농민들의 정치적 및 문화적 시야를 점차 확대하며 그들 속에서 국제주의 사상과 집단주의 사상 교양을 강화하며 조국에 대한 사랑과 민족적 긍지감을 고취시켜야 한다。

농촌 대중 정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주민들이 분산되여 거주하는 농촌의 실정과 주민들의 정치 문화적 수준과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심중한 고려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결함을 시급히 퇴치하여야 한다。

농촌 대중 정치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농촌 민주 선전실이다。

그러나 적지않은 농촌 지역의 근로 단체들은 민주 선전실을 농촌에서 우리 당과 정부의 결정 지시들을 대중속에 깊이 해석 침투시키며 농촌 주민들을 교양하는 대중 정치 문화 사업의 중심지로、선진 영농 방법과 다수확 방법을 배우는 학교로 리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중을 교양할 수 있고 그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일정한 설비와 장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농촌 근로 단체들은 당 단체들의 지도하에 민주 선전실에서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당과 정부의 시책의 해설、선진 영농 방법의 도입과 보급、증산 경쟁、농업 생산 예비의 동원、부업 경리、농업 협동 경리의 조직과 운영 기타 문제들로 강연과 좌담회、경험 교환회들을 광범히 조직하는 한편 민주 선전실을 농촌에서의 락후한 봉건 유습의 잔재、라태하고 부화한 농촌 건달군、비근로적인 발현들 그리고 자기의 물질 문화 생활 향상에 대한 무관심、혁명적 경각성의 해이、자기 본위주의 사상의 발현등 기타 온갖 부정적 현상들과 투쟁하는 장소로 전환시켜야 한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그들의 요구의 다양성、그들의 생활 경험의 부족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다양한 방법과 형식으로 정치、과학、문학、예술、체육、스포츠등 써클을 광범히 조직 발동시킴으로써 청년들의 개성의 다방면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근로 단체들의 활동 범위는 광범하고 다면적이다。

근로 단체들의 모든 활동의 기초는 초급 단체들이며 동맹 전반적 사업의 강화 발전은 초급 단체들의 활동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농촌 근로 단체들의 전력량은 초급 단체들을 강화하며 그들의 자립적 역할을 제고시킴에 돌려져야 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군 민청 위원회들은 번잡한 상무 위원회 회의와 초급 단체 위원장 협의회 조직、형식적으로 되는 맹증 교부、맹비 정수、통계 작성、그리고 분석과 연구가 없는 무수한 결정서와 지시문을 하부에 하달하거나 또는 경제 깜빠니야 사업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등으로 자기 사업의 전부를 대치하고 있다。

근로 단체들은 행정 기관이나 사무소가 아니고 정치적 단체이다。

이러한 사무실적 지도 사업이 지속된 결과 초급 단체들의 회의와 학습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며 근로 단체들 호상간에 사업의 한계와 방법들이 명확치 않고 사업은 서로 얼키여 동일한 조직체가 중복되여 있는 듯한 경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 단체 일꾼들은 사무실적 사업 작풍을 근절하고 산 사람들의 집단인 초급 단체에 접근하여 그들의 사업 방법을 가르쳐 주며 핵심을 육성하며 초급 단체를 강화하기 위한 꾸준하고 계통적인 지도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근로 단체들에게는 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업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단체들은 당 결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민활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자기 단체의 실정에 적응하게 이를 구체화하며 그의 집행을 꾸준히 추진시켜야 한다.

그러나 일부 농촌 근로 단체들은 문제 토의에서 자립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동맹 상급의 결정과 실정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구체적 문제 해결에 세심한 주목을 돌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꾼들이 사업하는 곳에서는 당의 결정이 군중화되지 못하며 사업에서 통일성이 없고 침체와 락후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농촌 근로 단체들은 동맹 상급의 결정에 립각하여 해당 지역의 구체적 실정에 적응하게 문제를 토의 해결하며 그의 실행에 맹원들을 조직 발동시키며 제때에 총화 결속하는 제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에 제기된 농촌 경리 발전과 축산 및 잠업 생산 등 농촌의 경제 및 문화 건설에 대한 기본 문제들에 대하여는 해당 당 단체 및 정권 기관들이 제시한 구체적 과업에 근거하여 제때에 토의하여야 한다.

사업 방향과 구체적 방법이 설계화된 결정및 계획이 수립된 연후에는 그의 실행을 위한 지도 사업에 그의 성과는 달려 있다.

하부 지도 사업은 어데까지나 초급 단체 일꾼들과 핵심 맹원들에 의거하여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그들의 사업을 방조하여 주며 한가지 문제라도 해결하여 주는 방향에서 중점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일꾼들은 농촌에 파견되기만 하면 거만하고 교만한 태도로 그들의 사업을 심문하며 문제의 중점은 보지 않고 결정서를 구체화한 건수만 따지고 군중들의 실천에서의 성과를 보지 않으며 맹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조건과 계기를 지어주지 않고 권세를 부리는등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들을 취하고 있다.

만포군 민청 위원회는 지난해 六개월 동안이나 사업계획서도 없이 주먹치기로 사업하면서 사업이 잘 안되면 불시에 초급 단체에 일꾼들을 파견하여 결함을 수집하여 욕설과 지적을 일삼으며 하부의 의견을 억제 말살하며 지어는 군민청 월동용 신목까지 초급 단체에 할당하여 징수하는 관리식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을 감행하였다.

우리의 사업에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는 상용될 수 없으며 탐오 랑비 현상들은 허용될 수 없다.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의 발현은 근로 단체 일꾼들의 정치 및 실무 수준이 어린 데도 있거니와 그보다도 그것은 그들의 계급적 의식의 나약성, 그리고 당성이 없는 데서 발생된다.

그러므로 근로 단체내 일꾼들은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의 결정을 사업의 지침으로 행동의 강령으로 삼고 자체의 정치 및 실무 수준 제고에 노력하여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맹동주의적 사업 작풍, 탐오, 랑비, 절취 등의 부화한 사상들과의 투쟁을 전 동맹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동맹 사업을 민주화하며 대중 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을 가르쳐 주며 대중에게서 배우며 그들의 요구와 신소를 제때에 해결하여 주는 기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중에 대한 특히 자수자, 월남자 가족들을 취급함에 있어서 표현되고 있는 그릇된 견해와 태도를 근절하고 광범한 대중을 쟁취하고 결속하는 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 지역의 근로 단체들은 자기의 조직적 대렬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며 자체의 조직적 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만일 광범한 근로 대중을 자기의 주위에 결속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전투적 역할을 약화시키며 자체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혁명적 력량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민청 단체들은 동맹의 대중적 성격을 무시하고 당 장성을 모방하여 『교양 부족』, 『환경이 좋지않다』는 등 부당한 리유로 제때에 청년들을 동맹 대렬에 인입하지 않고 있다.

결과에 농촌 지역에만 하여도 적지 않은 비조직 청년들을 남겨 두고 있다.

민청을 비롯한 근로 단체들은 동맹의 대중적 성격으로부터 출발된 동맹 장성 정형을 계통적으로 연구 분석하며 복잡한 수속과 부당한 견해들을 배격하고 자체의 조직 대상들을 옳게 장악하고 이들을 동맹 대렬에 인입하는 사업을 추진시켜야 한다.

농민 대중 속에서의 우리 당의 정책은 민청 교양망과 근로 단체들의 대중 정치 사업을 통하여서와 근로 단체들의 회의를 통하여 침투된다.

그러므로 맹원들의 생활의 기초인 초급 단체 회의의 사상적 내용과 교양적 의의를 제고시키는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근로 단체들은 자체의 구체적 임무와 환경에 따라 동맹 앞에 제기된 문제들을 동맹의 독자성을 발휘하여 토의 해결하며 문제의 내용에 따라 근로 단체 련합 회의에서 토의 해결함으로써 문제 토의에서 이중성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많은 근로 단체들은 근로 단체 련합 회의 혹은 부락 농민 회의들에서 토의할 수 있는 농촌 경제 과업까지도 각기 자기 동맹의 독자성을 발휘한다 하여 회의를 서로 중복되게 번다하게 조직하고 있다.

결과에 많은 회의들이 맹원들을 정치적으로 교양 훈

련하는 학교로 되지 못하고 도리여 맹원들에게 회의에 대한 염증을 가지게 하며 육체적 피로를 주는 현상들을 초래하고 있다。

사실 많은 회의들이 준비없이 낮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의되는 문제들은 다수 경우에 교양적 의의를 가지지 못한 문제들인바 그 절대 다수가 서로 중복된 문제들로 국한되고 있으며 동맹 단체 회의들에서 민주주의와 사업 분공도 미약하게 보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 단체들은 해당 당 위원회의 지도 하에 하부 단체들의 회의를 련합하며 회의 시간을 단축하며 그의 사상적 내용과 교양적 의의를 제고함으로써 초급 단체 회의로 하여금 맹원들을 정치적으로 교양 훈련하는 학교로 맹원들의 제의와 비판의 연단으로 되게 하며 회의에서 일정한 질서와 규률을 확립함으로써 결정의 구체성과 실천성을 보장 하여야 할 것이다。

* * *

근로 단체들의 사업 강화는 정상적이며 신축성있는 당적 지도와 방조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농촌 근로 단체들에 대한 당 단체들의 일상적 지도 방조라함은 그 단체들에 대한 간부 배치와 경제 사업 수행을 위한 그들의 사업 조직 및 집행에 대한 검열등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분적 당 단체들은 오늘 인민 대중 속에서 우리 당의 위신과 신임이 제고되였다 하여 근로 단체 사업을 과소 평가하며 근로 단체 간부들을 한층 낮은 일군으로 취급하며 홀시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러한 당 단체들의 지도하에 있는 근로 단체 일군들이 당에서 제시한 일정한 사업 실행 과정에서 자기의 열성과 정력을 다하지 못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당 단체들과 당 일군들은 근로 단체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당 사업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근로 단체 사업 강화에 대한 당의 정책과 당적 지도 방법들을 연구하며 그의 개선 대책을 강구하며 그들의 조직적 성격과 임무에 적응하게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근로 단체에 대한 당적 지도는 그 지방 실정에 적응하게 당 중앙 위원회의 정치 로선의 실천을 위한 유일한 목적 달성에로 그들의 사업 방향을 규정하여 주며 구체적 방법들을 제시하여 주는 데로부터 출발된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군당 위원회들의 사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년에 상무 위원회에서 一、二차 정도로 근로 단체들의 사업을 토의하거나 또 사업 계획서를 받아 철하여 두는 것으로 지도 사업을 다한것 같이 생각하는 옳치 못한 경향들이 있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당의 정책을 근로 대중 속에

구체화하며 그의 실행에 근로 대중들을 발동시킬 당 단체의 방침과 계획에 의하여 그들의 사업 방향과 구체적 실행 방법들을 제시하여 주며 그의 실행에 있어서 근로 단체들의 자립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써는 부족하다。 당 단체가 사업 방향을 제시한 다음에는 근로 단체 책임 일군들이 당으로부터 제시된 사업 방향에 의하여 이미 수립된 자체의 사업 계획을 자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당 단체는 실제적 가능성을 지어주어야 한다。

당 단체들이 근로 단체 간부들을 본신 사업 이외의 깜빠니야 사업에 빈번히 또는 장기간 동원하거나 군당 위원회 각 부서들에서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을 매일같이 군당에 불러들이는 졸렬한 사업 방법들은 근로 단체들의 사업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의 본신 사업을 방해하며 그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그릇된 지도 방법임으로 시급히 시정되여야할 것이다。

근로 단체들에 대한 당적 지도 방법은 근로 단체들의 특성에 따라 그를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 단체들은 같은 문제이라 할지라도 근로 단체들의 각이한 성격을 고려하여 과업과 분공을 주며 그의 실행을 위한 지도 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당 단체들이 근로 단체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 책임 일군들이 근로 단체의 사업을 깊이 연구하며 그들을 지도하기 위한 분공을 옳게 하는 문제이다。

근로 단체에 대한 당적 지도의 분공、이것은 당의 방침에 의하여 근로 단체들의 사업을 단일한 목적 달성에로 인도하며 근로 단체 호상간의 사업상 련계와 통일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되여야 한다。

만포군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은 민청、부위원장은 농맹、조직부장은 녀맹단체에 대한 지도를 맡는 등으로써 조직부장은 민청、농맹 사업들을 모르며 부위원장은 농맹 사업외의 다른 단체들의 사업은 모르고 있으므로 그들의 사업에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었다。

근로 단체에 대한 시、군 당 위원회들의 당적 지도는 전체 부서들과의 련계밑에 조직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근로 단체들의 사업 강화는 농촌 리 (읍) 당 위원회들이 리 (읍) 근로 단체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 가에 많이 달려 있다。

그러므로 군당 위원회들은 리당 위원회들의 근로 단체 지도 사업 정형을 수시로 청취 토의하며 리당 단체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내의 근로 단체들에 대하여 일군들의 사업 수준을 제고하며 맹원들에 대한 계급적 교양 사업을 강화하도록 지도 통제하며 토의할 문제들을 심중히 선택하여 주며 그들의 결정 실행을 지도 방조하도록 정상적인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 단체들은 근로 단체 일군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그들의 정치 및 실무 수준을 제고하며 그들의 자립성과 군중 속에서의 위신을 제고시키며 그들의 역할을 높임에 당적 주의를 경주하여야 한다。

근로 단체 일꾼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며 그들의 정치 및 실무 수준과 위신을 제고시키며 그들의 당적 책임성을 제고시킴이 없이는 그들의 정치적 자각과 열성을 제고시킬 수 없으며 당의 결정을 철저히 군중화할 수 없다。

오늘 근로 단체내 일부 일꾼들에게는 문제의 중심을 모르며 사물에 대한 부정확한 관점을 가지며 당의 정책을 현실과 결부시키지 못하며 군중적 립장에서 사업하지 못하고 단순한 실무가로 전락되는 경향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당의 결정들을 연구하는 군당 실무 학습회에 근로 단체 일꾼들을 참가시키며 그들의 당 생활과 학습을 통제하며 집체적 교양과 일상적 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정치적 시야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근로 단체내에서 로동당원들의 핵심적 역할을 제고시키며 그들의 사업 정형을 당 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청취 토의하는 것은 근로 단체 사업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부분적 당원들은 당원이 지닌 고상한 책임을 옳게 인식하지 못한 데서 당에서 이미 토의된 문제라 하여 근로 단체 회의에 잘 참가하지 않으며 근로 단체들의 결의를 심중히 여기지 않는 옳지 않은 태도들을 취하고 있다。이러한 경향들은 당 규약상 의무로부터 벗어난 당성이 없는 행동들이다。

매개 당원들은 근로 단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사업 개진과 발전을 위한 건설적 의견들을 제기하며 근로 단체들의 대중적 결의를 솔선 실천하며 그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특히 당원인 청년들은 민청 생활에 참가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일상적으로 청년들의 감정과 요구와 의견들을 알아 보며 그들의 유익한 발의、귀중한 제안들을 근로 단체 지도 기관들을 통하여 도입 및 일반화하며 비당원 맹원들과 혼연 일체가 되여 사회 및 문화 생활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농촌 지역의 근로 단체들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도당 위원회들이 군당 단체들에 대한 지도 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도당 위원회들은 시、군에 대한 일률적인 지도 방법을 근절하며 근로 단체에 대한 당적 지도를 해당한 담당 지도 일꾼들에게만 일임하는 폐단을 시정하며 그의 사업 정형을 책임 일꾼들이 통제하여야 한다。

도당 위원회는 근로 단체들에 대한 당의 정책과 근로 단체들의 기본 임무와 역할、당적 지도 방법등을 실무 학습회를 통하여 매개 당 일꾼들에게 철저히 인식시켜야 하며 특히 도당 위원회는 시、군들에서의

산업 분포와 농촌 경리의 비중과 주민 구성들을 옳게 고려하여 자체의 지도 력량과 도급 근로 단체들의 지도 력량을 옳게 농촌에 배치하며 지도하여야 한다。

도당 위원회 지도원들을 농촌 시、군、리에 파견함에 있어서 반드시 당 단체의 사업과 근로 단체들의 사업을 련결시켜 연구케 할 뿐만 아니라 공작상 임무가 끝나고 돌아온 후에는 근로 단체들의 사업 정형과 당적 지도 정형에 대하여 총화하는 제도를 철저히 수립함으로써 지도원들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매개 당 단체들과 당원들에게 농촌 근로 단체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며 농촌 지역의 근로 단체 일꾼들의 책임성을 제고시켜 농촌 지역의 근로 단체 사업을 부단히 개선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 ✻

오늘 우리 당 앞에는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의 결정 실천을 위한 투쟁이 나서고 있다。

이 투쟁은 농촌 사업에 대한 당 단체들의 지도 수준의 가일층의 제고와 농촌 근로 단체들의 자립적 역할의 제고를 요구하며 매개 당 일꾼들과 근로 단체 일꾼들의 당성 제고와 정치 및 실무 수준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경험은 농촌 경제 사업의 성과와 확고성은 당 단체들과 근로 단체들에 의하여 실시되는 조직 정치 사업에 의하여、농민 대중의 창발력과 열성의 발휘 여하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농촌 근로 단체에 결속된 수백만 농민 대중의 앙양된 정치적 열성을 농촌 경리 발전에로 옳게 향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당의 적극적 방조자인 농촌 지역의 근로 단체들의 전반적 사업을 당의 정치적 임무의 수준에까지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인민 경제 계획화의 기본 과업

장 천

매개 사회에서의 경제 발전은 해당 사회 경제 구성태에 고유한 객관적 경제 법칙들에 의하여、특히 해당 사회의 기본 경제 법칙에 의하여 규정된다。매개 사회 경제 구성태에 고유한 기본 경제 법칙은 그 사회의 생산 발전의 어떤 개별적 과정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전의 주요한 전체 측면과 주요한 전체 과정을 규정한다。따라서 그것은 해당 사회의 생산 방식의 본질을 규정하며 해당 사회에서의 생산의 목적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규정한다。

쓰딸린은 사회 경제 발전에 관한 맑쓰—레닌주의 학설을 더 높은 계단에로 발전、풍부화하면서 자기의 로작『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적 제 문제』에서 사회주의 생산 발전의 모든 주요한 측면들과 모든 주요한 과정들、사회주의적 생산의 본질을 결정하는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을 천명하고 그를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였으며 또한 사회주의적 생산 발전의 개별적 측면、개별적 과정을 규정하는 다른 일련의 경제 법칙들도 과학적으로 분석 천명하였는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는 인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 법칙이다。

쓰딸린은 매개 사회에서의 기본적 경제 법칙과 그외의 일련의 경제 법칙들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맑쓰주의는 과학의 법칙을 자연 과학의 법칙이거나 정치 경제학의 법칙이거나를 막론하고——사람들의 의지로부터 독립하여 진행되는 객관적 과정의 반영이라고 리해한다。사람들은 그 법칙을 발견하며 그것을 인식하며 그것을 연구하며 그것을 자기들의 활동에 있어서 고려하며 그것을 사회를 위하여 리용할 수 있다。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변경시키거나 그것을 폐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하물며 그들이 과학의 새로운 법칙을 구성하거나 창조할 수는 없는 것이다』(『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적 제 문제』조선 로동당 출판사판 三페지)。

우리 당은 쓰딸린의 이 교시에 튼튼히 의거하여 인민 경제를 지도함에 있어서 객관적 경제 법칙들의 작

용과 그 요구에 상응하여 자기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며 그의 실현에로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한다。우리 당은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제 요구에 수응하여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자기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인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 법칙의 제 요구를 고려하여 인민 경제를 지도하고 있다。

* * *

우리 나라에서의 인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의 필연성과 가능성은 해방 후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의 지도하에서 수행된 제반 사회—경제적 개혁의 결과로써 즉 생산 관계에서의 근본적 변혁의 결과로써 조성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방 후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은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경제 법칙에 의거하여 산업、운수、체신、은행 등 인민 경제의 중요 부문들을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켰는바 이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적 토대 축성을 위한 현실적 가능성을 조성하여 놓았다。

중요 산업 국유화의 결과에 우리의 인민 경제에는 새로운 경제 형태 즉、사회주의적、국가적 경제 부문이 형성되였는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산업에서는 새로운 경제 법칙들 즉 사회주의적 경제 법칙들이 발생하게 되였다。중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화의 기초 우에서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이 발생 작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자본주의적 경쟁 및 생산의 무정부성의 법칙에 대립하여 인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 법칙이 발생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인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 법칙은 우선 국영 경제 부문에서 작용하게 되였다。여기에서의 사람들의 호상 관계는 지배와 굴종의 원칙에서 해방되여 새로운 동지적 호상 협조의 관계하에 놓이게 되였다。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 상응하는바 따라서 우리 나라 국영 경제 부문에서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자본주의적 경제 공황、생산력 발전의 정체 등 제 모순이 제거되였다。동시에 이것은 우리 나라 산업 부문에서 사회적 생산을 통일적、조직적으로 발전시키며 생산과 소비간의 적대적 모순과 인민 경제의 불균형적 발전을 제거함으로써 생산의 모든 부문들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 법칙은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간의 모순을 해결함이 없이는 발생 작용할 수 없다。이 법칙은 오직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사회에만 고유한 새로운 경제 법칙이다。

쓰딸린은 영국 작가 웰레쓰와의 담화 가운데서 다음

과같이 썼다: 『자본가들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원칙을 청산하지 못하고서는 당신들은 계획 경제를 조성할 수 없다』(『레닌주의의 제 문제』 一〇판 六〇〇—六〇一페지).

레닌과 쓰딸린은 자본주의의 기본적 모순 즉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 수단에 대한 사자본주의적 소유간의 모순의 표현은 생산과 소비간의 적대적 모순, 자본주의하에서의 피할 수 없는 생산 발전에서의 불균형성 등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자본주의의 기본적 모순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적 생산은 계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다. 리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비조직성, 생산의 무정부성은 불가피적으로 공황, 실업, 생산의 중단, 생산력의 파괴 등에 이르게 한다.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은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단한 균형성을 의식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을 국가에 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부단히 장성하는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의 최대한의 충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체 사회적 생산의 계획성과 부단한 장성을 보장한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 법칙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을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되며 이 법칙의 요구를 완전히 반영하는 계획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된다』(쓰딸린). 이것은 우리의 계획 기관들과 그 일군들이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작용을 인식하고 그를 옳게 리용하는 데서만 사회적 생산을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은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 법칙이 아니다. 따라서 그의 작용은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 법칙의 제 요구에 복종할 때에라야만 인민 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인민 경제 계획화는 쓰딸린이 교시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이 아니며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에 관한 객관적 법칙의 다소간 옳바른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민 경제의 계획화는 정치 경제학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 지도 기관들의 경제 정책의 대상이다. 만약 정치 경제학이 사람들의 생산 관계의 발전 법칙들을 연구한다면 경제 지도 기관들은 이 법칙들로부터 실천적 결론들을 지으며 그를 구체화하며 그에 기초하여 자기의 일상 사업을 조직한다. 계획화는 그것이 사회의 경제적 발전의 객관적 법칙에 관한 지식에 립각하여 그를 위반하지 않으며 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그를 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계획화를 경제 법칙으로 인식하는 것은 계획화 자체의 과학적 기초를 파탄시킨다. 왜냐 하면 계획화는 그것이 객관적 경제 법칙들의 제 요구, 우선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 법칙의 제

요구에 수응하여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을 완전히 반영하는 조건하에서만 정당하며 실제적으로 인민 경제의 계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들이 객관적 경제 법칙들을 『창조』및『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계획화를 『경제 법칙』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혼돈과 우연성의 심연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될 것이며 가장 초보적인 경제적 지도에서까지도 실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과 함께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은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발생하는 기초 우에서 발생, 작용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 작용은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발전, 공고화됨에 따라, 인민 경제에서의 사회주의적 우클라드의 비중이 확대 강화됨에 따라 자기의 작용 범위를 확대 강화한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이 법칙들은 사회주의적 우클라드——국영 경제 부문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칙들은 완전한 정도에서 작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일정한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인민 경제의 전 부면에 걸쳐 자기의 작용 범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경제 제도의 다우클라드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소상품 경리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적 요소가 남아 있는 조건하에서 국가는 인민 경제의 전체 부문을 계획화 체계에 망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부문들에 필요한 계획 과제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경제 부문들에 대하여는 다만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는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지도적 역할을 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정권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국가는 소상품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며 사자본주의적 요소를 통제 축소하는 방향에서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의 계획화는 일정한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인민 경제의 전반적 부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나 인민 경제의 전체적인 발전은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과 인민 경제의 계획적 발전 법칙의 제 요구에 상응하여 추진되고 있다.

❊ ❊ ❊

우리 나라에 있어서 인민 경제 계획화의 기본 과업은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 법칙의 제 요구에 수응하는 인민 경제 발전의 목적——전 사회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 문화적 수요의 최대한의 충족의 보장——을 위한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제 요구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민 경제 발전의 기본 방향에 의거하여 규정되는

인민 경제 계획화의 기본적 과업들은 당과 정부가 객관적 경제 법칙들의 제 요구를 깊이 인식하고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력사적 경험、현실적 경제 조건들 및 국내외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 구명한 기초 우에서 수립된 우리 당의 정책을 경제적으로 보장하는데 복무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의 인민 경제 계획화의 기본적 과업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을 달성하며 인민 민주주의의 경제적 토대의 공고화를 위한 경제 건설 사업에 종속되는바 그것은 현 시기에 있어서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그것이다。

오늘 우리 당과 정부는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경제적、문화적、군사적 토대를 공고화하며 민주 기지를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시장에 의거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국제 민주 시장에 의거하면서 인민 경제의 자주성과 다면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인민 경제의 발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이와 같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 방향과 객관적 경제 법칙의 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와 전후 시기에 있어서 인민 경제 계획화의 기본적 과업들을 규정하였다。

전전 세차례에 걸치는 인민 경제 계획들과 전후 三개년 계획은 바로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립각하여 작성되였는바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계획화의 제 일차적 중요 과업은 우리 나라 경제를 인민 민주주의적 발전의 일반적 진로에로 도입하는 정책 즉 인민 경제의 발전을 우리 나라 국내 시장에 의거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사회주의와 인민 민주주의의 세계 민주 시장에 의거하면서 자본주의의 침해로부터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자주성과 다면성을 보장하며 장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중공업、특히 기계 제작 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동시에 보장하는데 있다。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위업을 달성하며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완성을 위한 민주 기지의 군사적、정치적、경제적 토대의 강화와 직접적으로 련결되는 것이다。인민 경제의 자주성을 보장하며 국방력을 공고히 하는 문제는 우리 나라를 국내외의 원쑤인 자본주의의 침해로부터 보위할 뿐만 아니라 조선 인민의 최대의 념원이며 우리 혁명의 당면한 기본 과업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으로 된다。왜냐 하면 인민 경제의 자주성과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인민 경제의 사회주의적 발전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며 국내외의 적들의 침해를 막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六차 전원 회의에서 『금후 우리 나라의 통일 독립을 완성함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더욱 강화하며 민주주의적 인민의 력량을 더욱 집결하며 민주 기지의 경제적、문화적、군사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 그것이다。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우리 나라의 통일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교시하였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자주성을 보장하며 국방력을 공고화하는 과업은 우선 우리 나라의 경제적 위력의 기초이며 국방력 강화의 원천인 중공업 특히 기계 제작 공업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성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과 정부는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경제적、문화적、군사적 토대를 공고화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우리 나라의 장래 공업화를 예견하여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전후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위한 경공업의 급속한 동시적 발전을 제기하였다。

위대한 쏘련이 자본주의의 포위 속에서 오직 단독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공업의 발전을 어느 정도로 희생하면서도 중공업의 급진적인 발전에 전 력량을 기울인 다음 중공업 발전의 확고한 성과에 기초하여 비로서 경공업을 발전시키게 되였던 조건과는 달리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중공업과 경공업의 동시적인 급진적 발전이 보장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존재하고 있다。그것은 강력한 세계 민주 시장이 형성된 환경 속에서 위대한 쏘련 및 중화 인민 공화국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거대한 기술—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으며 세계 민주 시장과의 경제적 련계를 더욱 공고화하고 있는 그것이다。

인민 경제 발전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계 제작 공업、화학 공업、전력 생산、연료 공업、금속 공업등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자주성과 국방력을 공고히 하는 물질적 토대로 될 것이며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전후 인민 생활의 급격한 향상과 함께 우리 공화국의 생활적 기초이며 우리 혁명의 기본 동력인 로 농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가일층 강화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보장하기 위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의 동시적 급속한 발전은 인민 경제의 경제적 독자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인민 복리의 증진을 충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책으로 된다。그러나 이에 있어서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인민 경제의 자주성과 다면성을 보장한다하여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 요구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우리 자체의 손으로 반드시 만들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다。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우리는 어떠 고립된 섬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제一위의 공업국인 쏘련을 비롯한 중화 인민 공화국 및 인민 민주

주의 제 국가로 형성된 사회주의와 인민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들과 더불어 정치、경제、문화등 각방면에 걸쳐 유기적 련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방대한 민주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계단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기 어렵고 또한 생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수요품을 당장에 생산하기 위하여 거액의 투자와 로력을 허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계획화의 두번째 과업은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 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에로 지향하고 있는 인민 민주주의 경제 토대를 더욱 공고화하는데 있다。 우리 나라의 공업 및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 계획은 인민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인 국영 부문의 지배적 지위를 시종 일관하게 강화하는 방향에서 작성되여 왔으며 또 작성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의 기초는 경제의 국가적 부문과 조합적 부문과 개인적 부문의 발전을 국가적 부문의 우세와 지배적 역할을 가진 조건하에서 결합시키는 원칙이며 생산과 무역 및 금융에 대한 계획적 원칙과 국가적 관리에 대한 원칙을 수립한 경제 정책이다』(선집 제二권 七二페지)라고 교시하였다。

인민 경제 계획화의 기본적 과업을 규정하는 우리 당의 이와 같은 경제 정책은 해방후 당과 정부에 의하여 창설된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 경제 체계의 다우클라드성으로부터 귀결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 경제 체계에는 八·一五 해방 후 수행된 사회—경제적 변혁에 의하여 새로 발생하여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있는 반면에 낡은 사회의 유물로서 낡은 경제 형태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다종 다양한 경제 우클라드가 서로 혼재하여 그들 사이에 일정한 투쟁과 협조가 진행되고 있다。따라서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띤 경제(또는 반사회주의적 경제)와 비사회주의적 경제 우클라드가 있다。

우선 사회주의 경제에 포괄되는 것은 중요 산업、운수、체신 및 은행의 국유화에 의하여 국가의 기본적 생산 수단들이 전 인민적 소유、국가적 소유로 되고 있는 국영 경제 부문과 협동 단체 경리가 이에 포괄된다。 이에 있어서 국영 경제는 완전히 사회주의적 경제이다。 그러나 협동 단체 경리는 그 사회—경제적 성격으로 보아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이지만 그 발전의 정도——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관계와 로동의 사회화——에 있어서 서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바 실례로서 우리 나라의 제三 형태의 농업 협동 조합은 사회주의적 성질의 경제이며 제二 형태는 반사회주의적 성질의 경제로 구별된다。 전자에 있어서는 생산 수단의 사회화와 로동에 의한 분배에만 기초하는 이미 높은 정도에 도달

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경제이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아직 사소유적 요인과 협동 소유적 요인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반사회주의적 경제이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 체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경제로서는 우선 사자본주의——개인 상업、개인 기업——가 있으며 또한 소상품 경제——개인 농민 경제와 도시의 수공업 경제——가 있다。 이에 있어서 사자본주의는 사회주의 경제에 직접 적대되는 경제 형태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민족 해방—인민 민주 혁명의 수행에 있어서 민족적 중소 자산 계급은 일정한 범위와 한도 내에서 진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것은 본질상 사회주의 경제와 서로 적대되는 것이나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부문의 지배적 지위하에서 그것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 또는 제한 축소의 방법에 의하여 소멸하게 될 것이다。

다른 또 하나의 비사회주의적 경제는 소상품 경제 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아직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망라된 대다수의 농민들과 도시 수공업자들은 시장과의 련계를 가지고 그의 생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따라서 이 경제는 생산 수단을 사유하고 있는 점에서 자본주의와 동형의 경제이다。그러나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로동을 착취하지 않는다。이 경제는 과거의 락후한 경제 형태가 그대로 잔존하게 된 것으로서 그의 경제적 활동은 가치 법칙의 자연 발생적 작용하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레닌이 교시한 바와 같이 부단히 자본주의와 부르죠아지를 산생하며 필경은 자본주의적 방향에로 발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 현존하는 이와 같은 다양한 경제 형태들 중에서 전체 인민 경제 발전의 지도적 력량은 국영 경제이다。 당과 정부는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 경제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와 같은 다우클라드 경제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지도적 력량인 국영 경제의 발전에 전 력량을 집중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국영 경제의 기타 경제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제고시키며 그의 지배적 지위를 공고 확대하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경제 정책의 중심 고리의 하나로 된다。 당과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으로 말미암아 현재 국영 경제 부문의 지도적 역할과 지배적 지위가 보장되여 있는바 공업 부문에서 국영 경제는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배적 형태로 되여 있다。

당과 정부는 국영 경제의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나라의 소상품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협동 경리의 발전에 대하여 부단한 지도와 방조를 주고 있다。 소생산자들을 사회주의적인 협동 조합에로 망라하기 위한 당과 정부의 협동화 정책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

의 가장 광범한 주민층인 개인 농민 및 수공업자들을 협동 경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바 이것은 레닌—쓰딸린적 협동 조합 계획에 의거한 유일하게 정당한 정책이다。 당과 정부는 협동 조합에 개인 농민들과 수공업자들이 자체의 경험을 통하여 광범히 망라되도록 지도하면서 이미 조직된 협동 조합에 있어서는 협동적 성격이 점차로 증대되고 사유적 성격이 극복되여 높은 형태의 협동 조합에로 발전하도록、즉 반(半)자본주의적 경제로부터 사회주의적 경제에로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아직도 사자본주의가 존재하고 있다。 당과 정부는 이것이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우리의 전진 운동에 도움이 되는 한 그 경제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며 인민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에는 제재를 가한다。 그러므로 당과 정부는 개인 기업가、개인 상인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방향에서 그들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제한 축소하며 사회주의적 경제 요소의 장성과 공고화를 촉진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요소의 활동 범위를 축소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공업화든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소상품적 형태와 더우기 자본주의적 형태에 대한 사회주의 공업 형태의 장성하는 우세를 보장하는 공업화가 필요하다。 우리 공업화의 특징은 사회주의적 공업화 즉 개인 경리적 부문에 대한 사회화된 공업 부문의 승리를 보장하는 공업화이다』(쓰딸린)。

이러한 경제적 기본 방향에 의거하여 수립된 우리의 모든 경제 계획들은 인민 민주주의 경제 체계의 공고화를 위한 경제 건설 계획이다。 우리의 매개 계획은 사회주의에로 지향하는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진을 지향하며 매개 계획의 중심적 고리는 우리의 진지—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인민 경제 발전의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공고화에 집중된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계획화의 세번째 과업은 악독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물려받은 인민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근절하여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물자 폰드와 로동력의 예비를 보장하는 데 있다。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 발전을 규정하는 인민 경제 계획들은 락후한 식민지적 편파성을 근절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재생산 과정에서의 제一부문과 제二부문과의 상호 관계、또한 인민 경제 각 부문간에 필요한 균형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수립되여 왔으며 또 수립되고 있다。

인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은 쓰딸린이 교시한 바와 같이 사회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문화적 수요의 최대한의 충족을 보장하는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제 요구에 상응하여 그 목적 달성에 봉사한다。

사회적 생산의 모든 부문들의 균형성과 조화성의 보장은 그의 부단한 장성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되는 바 이것은 호상 련관된 부문들의 장성을 촉진함으로써 매개 부문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인민 경제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때문에 인민 경제 발전에 있어서 균형성의 보장은 사회적 확대 재생산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는 일제의 장구한 식민지 통치의 결과에 혹심한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형성을 면치 못하였다。 조선 인민에 대한 일제의 략탈 정책의 강화와 조선을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로 전변할 목적으로 건설되였던 조선 경제는 조선 인민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며 민족 경제의 발전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인민 경제 각 부문、공업 각 부문간의 구성과 배치에 있어서 불균형성과 편파성을 내포하는 식민지적 기형성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조선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은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간의 불균형、공업과 농업간의 불균형、공업 내부에서의 호상 련관된 각 부문간의 불균형 즉 채취 공업과 가공 공업간의 불균형、완제품 생산과 반제품 생산간의 불균형、농업 내부에서 농산업과 축산업간의 불균형、생산력의 지역별 배치의 불균형등으로서 특징적이였다。

당과 정부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이와 같은 형편을 타산한 기초 우에서 인민 경제의 발전 방향을 규정하는 기본적 과업의 하나로서 식민지적 편파성의 퇴치와 그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은 우리 인민의 무궁한 복리 증진을 위하여、인민 민주주의 경제 토대의 공고화를 위하여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왜냐 하면 인민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인민 경제의 부단한 장성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생산력의 부단한 장성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일본 제국주의의 장기간 통치의 결과인 우리 경제의 기형적 식민지 성질을 숙청하며 우리 인민의 물질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민족 경제가 자립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토대를 축성하는 것이다』(一九四七년도 북조선 인민 경제 발전에 관한 보고)。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인민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함이 없이는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사업을 련결 조화하며 인민 경제의 계획화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과 정부는 인민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는 기초 우에서 인민 경제 각 부문간의 옳바른 상호 관계를 보장하며 인민 경제에서 불균형을 허용치 않을데 대한 대책들을 취하고 있다。 당과

정부는 인민 경제 계획에서 공업과 농업간、 채취 공업과 가공 공업간、『A』그루빠와 『Б』그루빠간、 운수와 인민 경제간의 사업을 련결시키며 생산의 장성과 소비의 장성간、 인민 경제에 대한 자금 지출과 그의 물질적 보상간의 균형을 보장하며 기업소의 옳바른 배치를 보장한다。 그러나 인민 경제에는 고정한 균형도、 불변하는 상호 관계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 인민 경제내의 균형은 당과 정부의 경제 정책에 의하여 규정되는바 그것은 당과 정부가 제시하는 매개 단계의 정치―경제적 과업들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인민 경제의 부단한 발전과 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은 또한 국가적 예비의 조성이다。 예비의 조성은 계획 경제 수행의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이다。 맑쓰는 부단한 재생산을 위하여서는 고정 자본 특히 원료、 자재 등등의 저장을 그해의 예정 소비량에 비하여 초과 생산함으로써 저장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국가적 물자 예비는 계획에 예견되지 못한 추가적 수요――국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불의의 사변、 농촌 경리에서의 흉작 등등과 결부된 수요를 충족하는 원천으로 되며 인민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 정책의 기동성을 보장하는 좋은 수단으로 된다。 즉 개별적 기업소 및 부문들의 계획을 미수행、또는 초과 수행하는 데로부터 초래되는 개별적 부문들의 발전상 불일치는 오직 국가적 물자 예비에 의해서만이 극복될 수 있으며 예견하지 않았던 국방상 돌발 사건등에 대한 방대한 물자 수요는 오직 방대한 국가적 예비에 의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매문에 국가적 예비의 조성은 탄력있는 계획화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되며 필요한 경제적 기동성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당과 정부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식민지적 편파성을 근절하는 문제를 인민 경제 발전의 중심 과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적 예비의 조성을 그의 기본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을 규정하고 있는 인민 경제 계획화의 기본적 과업들은 대체로 이상과 같다。

그러면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 법칙과 인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 법칙의 제 요구와 당과 정부가 제기하는 정치―경제적 과업들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계획 앞에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요구들은 어떤 것들인가? 그것은

(1) 공업 제품 및 농산물에 대한 인민 경제 및 주민들의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며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며 또 부족되는 생산물 품종의 현저한 장성을 위하여 공업 및 농업 생산의 모든 부문들에서 전체 사회적 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기술적 진보를 보장하는 것이며、

(2) 인민 경제에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근절하는 한편 그의 주도적 부문들과 중요 고리들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물자의 예비를 보장하는 데 기초하여 계획기의 정치―경제적 과업들에 적응하는 인민 경제 각 부문 호상간의 균형들을 계획에서 설정하는 것이며、

(3) 소비품(Б그루빠) 생산의 장성에 비하여 생산수단(A그루빠)생산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4) 선진적 경험의 일반화와 계획 수행의 체계적 검열에 기초하여 생산 장성 및 개선을 위한 생산 예비의 동원 리용에로 전체 근로자들을 고무 추동하는 과제들을 설정하는 것등 문제이다。

당과 정부는 인민 경제 계획의 기초에 놓여 있는 이러한 기본적 원칙들에 립각하여 인민 경제의 발전 템포와 범위를 규정하며 그의 정확한 계획 작성을 위하여 일정한 방법론적 지시를 계획 기관들에게 지시한다。

* * *

인민 경제 계획화는 이상과 같은 과업과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적 범위에서 근로 대중의 로동을 향도하며 근로 대중에게 명확한 전망을 주며 로력적 위훈에로 그들을 고무한다。 계획――이것은 대중의 산 창조적 활동의 목표이며 그의 지향이다。

인민 경제 계획은 계획 기관들이 대중의 창조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것、 선진적인 것에 의거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동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계획은 생산에서 달성된 산술 평균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동 지출、 설비의 리용、 원료、 연료、 자재 소비의 루진적 기준 즉 선진 기업소와 선진 일군들의 경험의 수준을 제고시키는 기준에 의하여 설정되여야 한다。 때문에 협소한 기관주의적、지방주의적 경향으로부터 생산 장성의 예비를 엄폐하며 또 바로 그것으로서 인민 경제의 발전 템포를 지연시키는 축소된 계획 작성의 모든 시도들에 대하여서는 당과 정부는 결정적 타격을준다。 당과 정부는 또한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현실적 조건에 엄격히 립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획 작성에서의 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 태도는 계획화에 있어서 모험주의를 가져오며 인민 경제 발전의 현실적 조건들로부터의 계획화의 유리를 초래하며 인민 경제 계획화의 물질적 기초를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계획 기관들과 그 일군들은 인민 경제의 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부원과 예비들을 정확하게 타산하여 경제 발전 속도를 정확하게 보장할 수 있는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인민 경제 계획 작성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적 원칙으로 된다。 이 원칙에 립각하여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는 때에라야만 우리의 계획은 쓰딸린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측의 계획이 아니라 지도로 되는 계획으로 될 것이며 그것은 모든 지도 기관들의 의무로 되며 인민 경제 발전의 방향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의 강화

김 종 완

레닌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어서의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의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그 실시의 가능성과 필연성을 과학적、리론적으로 해명하였으며 또한 쏘베트 정권이 이를 조직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방도를 제시하였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의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에 관한 레닌의 리론과 그에 대한 쏘베트 정권의 실천적 경험을 연구하여 그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은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과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가일층의 공고화를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새로운 경제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업은 수천만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생산물의 계획적 생산 및 분배를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적 조직 체계들을 창설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그것이다。 부르죠아지의 반항을 분쇄하며 사회주의적 경제를 건설하는 행정에서의 이와 같은 전투적、창조적 사업은 오직 근로 대중의 고도의 계급적 각성과 정치의식、애국적、헌신성과 적극성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방대하고도 복잡한 사업이다。 그것은 수백 수천만 대중 속에 뿌리 깊이 박은 낡은 생활 토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제적 토대를 축성하여 그 토대 우에서 사회주의적 생산을 조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폐절되고 인민 경제의 지도적、지배적 부문들에서 전 인민적、국가적 소유가 설정된 과도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르죠아지는 타도되였으나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섬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는——일찌기 레닌은 가르쳤다——부르죠아적 요소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보다 높은 새로운 투쟁 형식이 요구된다。 자본가들을 철저히

수탈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과업으로부터 부르죠아지가 존재할 수도 없으며 다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조건들을 조성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다 높은 투쟁 형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투쟁 형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이 과업을 수행함이 없이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는 것이다。

레닌은 이 새로운 투쟁 형식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제품의 생산 및 분배에 대한 가장 엄격한 전 인민적 계산 및 통제의 조직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부르죠아지에게서 몰수한 제 기업과 경제 제 부문에 있어서 아직도 계산 및 통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함이 없이는 사회주의의 실시의、같은 정도로 본질적인 제二의 물질적 조건 즉 로동 생산 능률을 전국적 규모에 있어서 제고시킨다는 것은 론의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레닌、쓰딸린 『사회주의 경제 건설』 조선 로동당 출판사판 제一권 一四六페지)。

제품의 생산 및 분배에 대한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의 실시는 로동자와 농민등 근로 대중의 로동 규률과 조직성을 강화하는 문제와 직접 련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를 강화하는 사업은 회계를 정밀하게 정확하게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탐오、랑비、횡령、절취등 자본주의적 낡은 잔재들을 반대하며 엄격한 절약 제도를 실시하며 로동에 대한 자각적 태도와 엄격한 사회주의적 로동 규률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것은 레닌이 교시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부르죠아적 요소를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 투쟁의 한 형식이며 사회주의의 최후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의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레닌은 사회주의 一○월 혁명 직전에 혁명적 민주주의 정부가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실시하여야 할 통제의 제 방책으로서 『一、일체 은행의 하나에로의 통합 및 그 업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또는 은행의 국유화、二、신지케이트들 즉 거대한 독점적 자본가 동맹들(사탕、석유、석탄、금속 등등의 신지케이트들)의 국유화、三、상업 비밀의 철페、四、산업가 상인 및 기업주 일반의 강제적 신지케이트화 (즉 동맹들로의 강제적 통합)、五、소비 조합에로의 주민의 강제적 통합 혹은 이러한 통합의 장려와 그에 대한 통제』(『저작 선집』 조선 로동당 출판사판 二권 一분책 一七七페지)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주의 一○월 혁명이 승리한 후 쏘베트 정권은 레닌이 제시한 이 방책에 근거하여 경제적 제 과업을 혁명적으로 수행하였다。

수탈자들에 대한 직접적 수탈의 방법으로써 중요 생산 수단을 전 인민적 소유로 전변시킨 쏘베트 정권은 이미 수탈된 경제 부문을 비롯하여 기타의 모든 경제 부문에 대하여 계산 및 통제 사업을 정비、강화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과업을 수행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쏘베

트 정권은 그의 구체적 대책으로서 수탈된 부르죠아지가 남아 있을 수도 없으며 다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전 인민적 계산 및 통제 사업을 조직 진행하였다。그리하여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로동 생산 능률을 전국적 규모에서 제고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레닌은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를 조직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는 데서만 은행의 국유화、대외 무역의 국가 독점화、화폐 류통에 대한 국가적 통제、프로레타리아적 견지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재산세 및 소득세의 실시、의무 로동제의 실시등 인민 경제 제 령역에 있어서의 경제적 및 재정적 정책의 당면 과업을 옳게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레닌은 신 경제 정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소상품 생산과 자본주의적 경리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던 로씨야에서 국가 자본주의는 소부르죠아적 자본주의를 사회주의에로 일보 전진시키는 것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가장 완전한 물질적 준비이며 출발이라고 인정하였다。그리고 또 레닌은 국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공통되는 것은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이며 소부르죠아적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 국가 자본주의에로 전화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라는 중간역을 통과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레닌은 이미 一九一八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사회주의 사회에로 넘어감에는 부분적으로 이에 접근하려 할에 있어서조차 장구하고 복잡한 과도기 (자본주의가 덜 발전하고 있을 수록 더욱 장구한)、사회주의적 계산과 통제를 거치는 과도기가 필요하다』 (레닌、쓰딸린 『사회주의의 경제 건설』 제二권 一三四페지)。

쏘베트 정권은 신 경제 정책 시기에 레닌에 의하여 천명된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의 리론에 의거하여 현물세제、상업의 자유、기업소들의 독립 채산제에로의 이행、협동 조합 운동등 구체적 제 방책을 실시하였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제품의 생산 및 분배에 대한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는 그것 없이는 국가 재산을 보존하며 절약 제도를 확립하며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키는 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가 정비되면 될수록 저주로운 자본주의 사회의 잔재、기식자들、그리고 사기꾼、태만 분자、불량 분자와 같은 인민의 적들을 완전히 제압、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 사업의 강화는 과도기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요소와 그 잔재들을 반대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논다。

* * *

오늘 우리 앞에는 우리 나라 북반부에 창설 공고화된 민주 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가일층 공고화하며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축성하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할 중요한 과업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민 경제의 높은 생산력을 보장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라의 공업화와 농촌 경리의 협동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인민 경제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산생할 수 있는 개인 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로동에 대한 새로운 자각성과 공동 재산을 애호 절약하는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며 사회주의적 사상 교양 사업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여야 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유능한 기술 문화 일군들을 대량적으로 양성하며 그들을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 사업에 광범히 인입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제품의 생산 및 분배에 대한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레닌이 제시한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에 관한 리론과 쏘베트 정권에 의한 이 리론의 실천적 적용의 경험에 의거하여 그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왔다。우리 당과 정부는 경제 건설을 지도함에 있어서 전 인민적、국가적 계산과 통제의 정비에 부단한 주의를 돌렸으며 국가 경제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전 인민적、국가적 계산과 통제 사업을 일층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 실시하였다。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는 교시하기를 『통계 사업이 똑똑하고야 옳은 결론을 지을 수 있고 결론을 옳게 지어야 일을 잘 할 수 있다』 (선집 제二권 六一一페지) 고 말하였다。

우리 당 三월 전원 회의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지배인들의 역할을 일층 제고할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지배인들이 『기업소에 국가 재산이 얼마나 투자되였으며 기업소의 독립 채산이 어떻게 되여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심한 경우에는 자기 기업소에 로동자가 얼마나 있으며 한달에 식량이 얼마나 소비되는지도 모르고 있다。이 뿐만 아니라 많은 지배인들은 생산이 어떠한 형편에 있으며 왜 기업소가 생산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며 무엇이 생산에 애로가 되며 어떻게 하면 그를 타개하며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이 결과에 『우리의 기업소들에는 확고한 경리 규률이 준수되지 못하며 매 생산 제품에 대한 기술 공정 소비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여 있지

않으며 연료、전력、원료들이 랑비되며 비생산적인 지출이 허용되며 귀중한 설비들과 자재들이 사장되거나 필요 이상 마모되며 수 많은 량의 불합격품들과 낮은 질을 가진 생산 제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국가에 거대한 손실을 주며 기업소 자체의 경리 운영에서도 거대한 곤난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일부 기업소들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경제적 제 과업의 수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 원인의 하나는 계산과 통제를 불충분하게 실시하는 데 있다。 따라서 기업소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부정적 현상들과 결함들은 그 대부분이 기업소 지배인들과 당 단체 일군들이 계산과 통제 사업을 과소 평가하거나 홀시하는 데서 초래되고 있다。

장구한 시일에 걸친 일제 식민지 통치의 악독한 결과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는 아직도 일제 사상 잔재가 남아 있다。 이는 특히 일부 락후한 계층들 속에 농후하게 남아 있는바 그것은 현존하는 소상품 경리와 개인 기업、 개인 상업 부면에 물질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의 물질적 근거로 되는 소상품 경리와 개인 기업、개인 상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동시에 대중 정치 사업을 일층 강화하여 인민들의 정치 사상적 의식 수준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장구한 시일을 요하는 사업이며 그를 위해서는 물질적 조건 즉 높은 기술적 토대 우에서의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당면하게 제기되고 있는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 및 초과 완수하여 생산력의 가일층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장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힘을 다 바쳐야 하며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의 제 방책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은행의 국유화와 은행 업무에 대한 국가적 통제이다。 레닌은、통일적인 최대의 국립 은행은 전국적 부기이며 생산물 분배의 전 국가적 계산이며 사회주의 사회의 골격이라고 말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반부에서는 중요 산업 국유화 법령에 의하여 은행이 국유화되였으며 해방 후 창설된 조선 농민 은행은 비록 그것이 주식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마는 국가가 그에 거액의 투자를 하고 있는만큼 그는 완전히 국가 통제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민 경제에서의 사회주의적 요소의 계속 장성과 소상품 경리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와 함께 특수 은행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그를 더욱 전문화하고 지점망들을 확장하며 은행 사무를 간소화하며 은행을

주민들 속에 더 한층 접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개인 상공업자들과 일반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저축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은행 사업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 보험 사업을 가일층 강화 발전시켜야 하는바 이는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의 범위를 현저히 확대하는 것으로 된다。

자유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부기와 은행 거래도 포함한 상업 비밀이 그 나라들의 법령에 의하여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주권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고 생산 수단이 전체 인민의 공동 소유로 되여 있는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인민들 자신이 국가 기관 및 기업소의 주인이므로 상업 비밀을 보존할 필요는 없으며 또는 그를 보존할 객관적 조건조차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생산 수단의 전부가 전체 인민의 공동 소유로 되여 있지 않으며 소상품 경리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 조건하에서는 소상품 경리 및 개인 기업가、 개인 상인들에게 한하여서는 상업 비밀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는 현재 비록 소상품 경리、 개인 상공업자들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상업 비밀에 의거하여 전개되는 그들의 경리 활동에 대해서는 방임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상업 비밀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개인 상공업자들이 필연적으로 모리 간상배로、투기업자로 전락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폐절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인민 경제에서 국영 및 협동 단체 부문의 지배적 지위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야 하며 개인 기업、 개인 상인들의 경제 활동에 대하여 국가적 통제를 가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는 개인 기업가들로부터 수시로 결산 보고를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사회 단체측으로부터 서류 및 회계의 검사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국가는 개인 기업가들을 강력한 통제하에 은행과 거래를 하도록 그들을 지도 통제하며 한편 은행 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방법으로써 그들에 대한 계산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 상인、 개인 기업가들에 대한 이와 같은 특별한 계산 및 통제 사업을 조직 강화하지 않고서는 기업가、 상인들의 상품에 대한 매점、 매석 기타 모리를 위한 투기적 행동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을 제때에 적발하여 낼 수 없는 것이며 더욱 개인 기업가들로부터 재산세 및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는 사업에서 정확성을 기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그들에 대한 계산에 의한 통제 및 지도 사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비법적인 경제 활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으며 그들의 국가적 의무 수행을 정상적으로 보장할 수 없

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주요 산업 국유화 법령에 의하여 중요 산업、운수 및 체신등이 국유화되였다。이 변혁 행정에서 인민 정권은 이 부문들에 종사하고 있던 로동자 및 사무원들을 통하여 계산과 통제의 조직을 비교적 단시일내에 성과적으로 조직 개편하였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의 국가적 계산과 통제의 정비는 장구한 일제 통치의 악독한 결과로 매우 지연되였으며 이 지연은 국유화한 산업、운수、체신등을 관리하며 그것들을 복구 발전시킴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더우기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에 의하여 도발된 전쟁은 이러한 형편을 더욱 악화시켰다。이 분야에 있어서의 계산과 통제 사업은 당과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계산과 통제에 대한 이 부문의 이러한 락후성은 우리 계산 일군들의 일반적 계산 기술 수준이 낮고 정치 사상적 각성이 미약한 데 있는 바 이것을 급속히 퇴치하기 위하여서는 계산 기술 수준을 계통적、조직적으로 향상시키며 맑쓰—레닌주의에 의한 사상적 개변을 더욱 촉진시킴으로써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 인민 경제에는 개인 농민、수공업자 및 기타 자유업자등을 포괄하는 소상품 경리가 존재하고 있는바 그들은 인민 생활을 급속히 개선 향상시키며 민주 기지 강화와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 경제의 국가적 요구에 순응하여 자기 경리를 발전시키고 있다。물론 이것은 우리 나라의 경제 체계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인민 정권의 지도 통제하에 자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리는 소소유에 근거하고 있는만큼 자연 발생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산출할 수 있으며 모리 간상배와 투기업자들의 준동의 온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소상품 경리에 대한 국가적 및 사회적 계산과 통제를 조직 실시함으로써 그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은 우리 인민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필요 불가결의 요구로 되는 것이다。

소상품 생산자들에 대한 계산과 통제의 최선의 방책은 레닌이 교시하였고 쏘베트 정권에 의하여 실천된바와 같이 그들을 협동 조합에로 통합하는 그것이다。협동 조합은 분산적인 소생산자들을 통합하며 국가측으로부터 그들에게 기술적、재정적 지도와 방조를 줌으로써 그들과 국가간에 긴밀한 련결을 맺을 수 있게 한다。따라서 국가가 분산적인 소상품 생산자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협동 조합을 통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협동 조합은 그것이 소소유자적인 소상품 생산자들의 경제적 협동 단체인만큼 일부 락후한 층은

공동 리익보다도 개인 리익을 추구하는 나머지 개인 기업가들과 결탁하여 투기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리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이 점에 있어서도 협동 조합에 대한 계산과 통제 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서는 협동 조합을 인민 경제의 계획화의 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요구되는 원료 및 생산 자재등을 통제 보장하며 그들의 생산 및 제품 판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소상품 생산자들을 협동 조합에 인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일반적 정치 의식 수준 및 문화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소상품 생산자들에게 협동적 생산의 유리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자원적 원칙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그들이 협동 조합에 인입하게끔 하여야 한다。

당과 정부는 소상품 생산자들의 경리를 협동 경리에로 이행시킴으로써 그들을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일련의 시책들을 계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당과 정부는 로동자、사무원들의 식량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공업 원료의 공급을 보장하는 한편 농민들의 경제 형편을 개선하며 농업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물세제를 실시하며 량곡 매매를 포함한 상업의 자유를 허용하여 왔다。물론 우리의 상업은 인민 정권의 통제 지도하에서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자체내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발생 성장시키며 투기 행위와 모리 간상배들의 온상으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상업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과 통제를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여기에서 량곡에 대한 개인간의 자유 매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 상업의 자유의 제한을 위하여서는 개인 상업의 범위와 화폐 류통을 국가적으로 통제하는 문제가 제기된다。투기업자와 모리 간상배들의 경제적 활동의 기초는 소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에 있는 바 화폐 류통의 조절에 의한 소시민들의 축적 자금의 국가 은행에로의 흡수는 개인 상인들과 모리 간상배들의 투기적 행동을 통제 축소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된다。

상업의 조절은 개인 상인들의 상업 활동을 법령으로 통제하는 것만으로써는 불충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자체가 상품 생산과 류통 즉 화폐에 의한 상품의 류통을 조절함으로써 상인의 상업 활동의 여지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국영 경제 기관을 통하여 인민 소비품을 상품으로서 생산하며 류통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 상품 생산과 상품 류통이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 가치 법칙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작용하게 되며 가치、가격、원가、수익성등 자본주의적 경제 도구들이 경제 활동에서 현실적으로 의의를 가지게 된다。이러한 조건하에서 국가의 옳바른 가격 정책은 국가 기업소들의 활동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가、개인 상인들의 활동에 대하여서도 계산 및 통제의 한가지 방책으로 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들에는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 기관 외에 약간의 개인 상업가들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소비 조합 상업은 국영 기업소와 협동 조합의 생산물을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판매하며 농민들의 농산물을 수매하여 도시에 있는 로동자와 사무원들의 식량으로 그리고 또 국영 기업소 및 생산 협동 조합들의 공업 원료로 넘겨줌으로써 투기업자와 모리 간상배들의 준동을 배제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고 로동 계급과 농민간의 경제적 동맹의 기초를 구축하는 데 거대한 역할을 놀고 있다。소비 조합은 농촌 주민의 대부분을 포괄하며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공업 상품과 여유 농산물을 매매하는 바 그것은 농촌 주민의 소비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계산과 통제 기관으로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전달꾼、기식자、절도등 자본주의의 잔재들이 근절되지 못하였다。이들을 사회적으로 개조 교양하여 새 사회의 진실한 성원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그들에 대하여 사회적―국가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바 그의 실천적 수단으로 되는 것은 그들에게 의무 로동제를 실시하는 것이다。의무 로동제는 그들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니 소위 로동세를 징수함을 의미한다。이를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로동 수첩을 소유케 하며 이것을 통하여 그들의 로동에 대한 계산과 통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러한 계산과 통제가 정비될 때에는 전달꾼들은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국가적 계산과 통제 사업은 이에 로동자들을 광범히 인입함으로써 수십 수백만의 로동자와 농민들이 자각적인 혁명적 열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나서도록 그들을 동원하며 그들 속에서 나오는 온갖 창조적 재능을 발휘시키며 그들을 경쟁적으로 이 사업에 참가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자와 농민들을 국가적 계산과 통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기 위하여서는 인민 경제의 중요 부문에서 창조적 로력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성실하고 유능한 모든 로동자와 농민들이 실지 생산과 생활 행정에서 능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적 계산과 통제 사업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서는 공장、기업소、국가 경제 기관은 물론 소비 조합、협동 조합、공급소등 인민 경제의 매개 단위들에서 매개 일

꾼들이 생산과 생산물의 분배에 대한 계산과 통제의 실천적 조직자로서 호상 경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제 활동에서의 계산과 통제의 방법과 형태의 다양성은 기업 관리 운영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담보로 되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들을 규정한다。때문에 계산과 통제의 방법과 형태는 매개 경제 단위들에서 구체적 실정에 알맞게 안출되고 실천에서 시험되는 것이 필요하다。이러한 것은 통일적인 전 인민적―국가적 계산 체계의 수립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강화하며 발전시키는 필수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몇가지 방책들과 방법들이 실지 경제 활동면에서 실천 보장된다면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 사업을 일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 사업이 강화되면 될수록 과도기의 현 단계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의 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며 사회주의적 생산 발전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승리적 보장은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전 인민적 통제와 계산에 있다。

선진 농학 기술의 창조적 도입과 그 발전

림 희 춘

오늘 우리 앞에는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전투적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농촌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발전되는 공업과 도시 주민들에게 식료와 원료를 원만히 보장하며 농민들의 경제 문화 생활 수준을 현저히 제고시킴으로써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촉진하는 그것이다.

이 전투적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업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하는바 이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선진 농학 기술을 우리 나라 농촌 실정에 알맞게 창조적으로 도입 발전시키는 문제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농촌 경리가 대규모적인 협동 경리의 길을 따라 발전하고 있는 현 조건 하에서 선진 농학 기술의 창조적 도입 및 발전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 템포를 촉진하는 강력한 추동력의 하나는 농촌 경리를 협동화하는 길이며 그의 중요한 물질적 기초의 하나는 선진 농학 기술의 광범한 도입과 현대적 농기계들로써 그의 기술적 장비를 부단히 강화하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농업 과학 기술 령역에서의 선진 농학 기술의 창조적 도입 및 발전에 대한 문제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농촌 경리 령역에서 제기되는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농업 과학 연구 기관들과 과학 일군들 앞에는 선진 농업 기술을 더욱 광범히 연구 섭취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연구 사업을 전후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 템포를 보장하기 위한 방대한 임무 수행과 밀접히 련결시키며 우리 나라의 농업 기술상 제기되는 일체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주며 다수확 농민들의 우수한 경험들을 연구하여 이를 체계화하는 등 우리 나라 농업 과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영광스러

운 임무가 제기되고 있다.

농업 과학 기술 일꾼들이 이 임무 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데서만 선진 농학 기술을 창조적으로 도입、발전시킬 수 있으며 우리 나라 농업 과학을 더욱 높은 계단에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곡물 생산 총 수확고를 제고함에 있어서 결정적 조건으로 되는 단위당 수확고의 제고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며 농촌 경리의 협동화를 촉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농업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 시기에 있어서 선진 농학 기술의 창조적 도입 및 발전을 위한 투쟁은 곧 곡물 총 생산량의 증대를 위한 투쟁이며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보장함으로써 나라의 장래 공업화와 인민 생활의 급속한 개선 향상을 위한 투쟁으로 되는 것이다.

* * *

일본 식민지 략탈자들은 조선을 강점한 후 략탈적 식민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반동적 봉건 지주들과 결탁하여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장래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에 많은 식량과 공업 원료를 략탈하기 위한 악랄한 정책을 취하였다. 그들은 조선 농민들에게 화학 비료를 대량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여기에서 많은 리윤을 획득하며 또한 단기간내에 량곡과 원료를 략탈할 목적으로 화학 비료는 사용케 하면서도 선진 농학 기술을 도입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그에 대한 제 요구를 억제 묵살하고 그 발전을 장애하였다.

그들은 원시적인 농업 생산 도구들과 락후한 영농 방법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농민들로부터 고률의 소작료를 받아 들임으로써 농민들을 착취하였다. 그들은 또한 관개 시설을 광범하게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 안되는 관개 시설들을 독점하고 농민들에게 과중한 수세를 부담시킴으로써 조선 농민들을 二중、三중으로 착취하였다.

결과에 우리 농경지의 토질은 농작물에 가장 유해로운 산화 토질로 변화되여 점점 척박하게 되였으며 농촌 경리는 령락의 길을 걸었다.

우리 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해방된 후 당과 정부는 력사적인 토지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조선 농업 발전에서 세기적 질곡으로 되였던 토지에 대한 봉건적 소유 관계를 숙청하였으며 조선 농촌의 일체 봉건적 락후성을 퇴치하는 기본적 토대를 축성하여 놓았다.

이 변혁 행정에서 당과 정부는 농촌 경리의 급속한 부흥 발전을 위하여 농학 기술 교육 및 농업 시험 연구 기관들을 광범히 창설 확장하는 한편 선진적 농업 과학 기술 및 선진 영농 기술 체계들을 우리 나라 실

정에 창조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 조직적 대책을 강구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 우리의 농업 과학은 선진 농학 기술을 부단히 도입 섭취하면서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되였는바 그것은 농민들의 영농 방법의 개선과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복무하게 되였다. 자유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된 우리 농업 과학 기술은 일본 식민지 략탈자들의 낡은 사상 및 과학적 잔재를 청산하며 위대한 쏘련의 선진 농학 기술을 연구 도입하는 투쟁 속에서 발전하게 되였다. 즉 우리 나라 농업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일제식 낡은 농산 과학의 잔재를 숙청하는 투쟁은 곧 선진 농업 과학 기술을 연구 섭취하는 과정이였으며 이것은 또한 일제 사상 잔재를 청산하는 투쟁 과정이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농업 과학은 형이상학적, 관념론적 관점에 기초한 멘델, 모르간, 와이즈만등의 반동적 낡은 농업 생물학의 리론과 방법에 기초한 일제식 농산 기술의 잔재를 구축하고 변증법적 유물론에 완전히 립각한 위대한 쏘련의 선진적 농업 생물학의 리론과 방법에 철저히 의거한 선진 농학 기술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알맞게 창조적으로 도입, 발전시키고 있다.

때문에 선진 농업 과학 기술의 창조적 도입과 그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는 것은 농업 생물학 령역에 있어서의 형이상학적, 관념론적 견해를 반대 배격하는 것이며 반동적 부르죠아 이데올로기를 반대하는 투쟁과 직접적으로 련결되는 것이다.

와이즈만, 멘델, 모르간등을 비롯한 비과학적, 반동적 부르죠아 어용학자들은 자기들의 관념론적 견해로부터 출발하여 생물 유기체의 발전과 그의 유전 현상의 변화를 부인하고 있다. 그들의 론거에 의하면 유전 현상은 소위 『인자 (겐) (因子)』라는 특수한 물질에 의하여 진행되는바 이 『인자』는 고정 불변한 물질로써 인간의 힘으로써는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형이상학적 리론은 인간의 무능력성을 설교하는 것으로써 인간을 실천 활동에서 무장 해제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반동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부르죠아 반동 생물학자들은 과학을 외곡 비속화하며 인민들을 기만하면서 착취 계급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고 있다.

선진적 쏘베트 생물학은 다윈주의를 옹호 발전시키는 기초 우에서 반동적 부르죠아 생물학자들의 형이상학적, 관념론적 견해들을 분쇄하였으며 자연은 인간의 요구에 의하여 인간의 힘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을 론증하였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철저히 립각하고 있는 미츄린 생물학은 생유기체의 진화 현상으로부터 그의 유전성

및 변이(變異)성의 법칙과 그의 성장과 발육을 위한 가장 적합한 조건등 자연을 인간의 요구에 수응하여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론증하였는바 이는 자연 개조의 합법칙성을 천명한 실천적이며 혁명적인 산 과학으로 되는 것이다.

미츄린은 반동적 부르죠아 생물학자들의 형이상학적 견해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우리는 자연에서 혜택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그를 쟁취하는 것 곧 이것이 우리들의 과업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미츄린과 리쎈꼬 및 기타 쏘베트 생물학자들은 이와 같은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선진적 농업 생물학의 기초를 닦았으며 그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자연 개조의 강력한 무기로 되게 하였다.

미츄린 생물학은 자연을 개조하며 농업 발전에 대한 리론적, 기술적 해명을 줌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동적, 반인민적 인종론자들의 우생학적 리론의 허위성을 폭로 분쇄하였다.

우리 나라의 농업 과학은 미츄린 생물학에 철저히 의거하고 있으며 쏘련 생물학자, 농학자들이 부단히 발전시키고 있는 농업 과학의 리론들과 선진 영농 방법들을 창조적으로 연구 도입하고 있다.

선진 농학 기술을 도입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의 농업 과학 기술 일꾼들은 멘델, 모르간, 와이즈만등의 염색체 유전 리론의 반동적 본질과 그의 허위성을 명확히 파악하게 되였으며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하여 다수확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경종법과 신 품종의 육성을 위한 투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쏘련의 저명한 생물학자 윌얌쓰의 『각 요소들의 등가설』의 학설은 부르죠아 반동 학자들의 소위 『최소 법칙』의 비과학성을 폭로하였으며 작물 발육에 필요한 각 요소들을 최대량으로 보장한다면 높은 수확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실로 우리의 농업 과학 일꾼들과 선진 농민들은 윌얌쓰의 이 학설에 의거하여 그에 상응한 선진 영농 방법을 도입 실시한 결과 소위 일제의 『토지의 비옥도 감소』에 관한 리론으로부터 출발하여 한정되였던 수확의 한계를 돌파하고 기록적인 다수확을 거두게 되였다.

토양학 령역에 있어서도 쏘련 과학자들은 반동적 부르죠아 학자들의 학설의 허위성과 무익성을 실천을 통하여 분쇄하였다. 우리 농업 과학 일꾼들은 이 분야에 있어서도 일제가 남겨 놓은 반동적 학설의 잔재를 청산하는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선진 농학 기술을 창조적으로 도입 적용함으로써 토양 비옥도의 부단한 제고를 보장할 수 있게 되였으며 작물 발육에 필요한 제 요소의 최대량을 합리적으로 리용한다면 수확을 계속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증되였다.

선진 농업 과학 기술을 창조적으로 도입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 행정에서 우리 농업 과학 일꾼들이 쟁취

한 성과는 다만 리론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리론과 실천은 호상 밀접히 련관되여 있는만큼 농업 과학의 리론 분야에서의 성과는 곧 영농 방법의 과학적 기술 체계를 광범히 도입 적용하는 실천적 성과를 달성케 하였다。

영농 사업의 과학적 기술 체계에 립각하여 우량 품종 육성을 위한 육종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맥류와 마령서의 야로비자찌야를 비롯하여 각종 종자의 화학적 처리등 우량 종자를 선종하기 위한 기술적 방도가 도입되였다。 또 선진적 경종 기술 체계인 평규식 광조파와 륙상모、소주 밀식등 다수확의 기본 조건으로 되는 파종 방법과 기경 파종 기일을 과거보다 二〇여일이나 앞단겨 실시하게 되였다。 중경、제초、시비등 작물의 재배 관리 체계에 있어서도 기술적으로 많은 개선을 가져오고 있다。

축산 분야에 있어서는 농후 사료를 적게 급여하면서도 높은 생산 능률을 보장할 수 있는 선진적인 사양 관리법이 도입되였으며 수의 과학 부문에 있어서도 쏘련의 선진적 방역 방법들을 도입 적용하고 있는바 쏘련 수의학의 연구 성과들에 기초하여 우역 수산화 왁찐、돈 폐스트、크리쓰달、비오렛트 왁찐등을 연구 생산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우역과 돈 폐스트등 중요 가축 질병의 만연을 방지하고 있다。

잠업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누에 품종、국잠 四三호、국잠 四七호등이 광범히 육성되고 있으며 상모 육성에도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고 있는바 잠업 부문의 기술 령역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선진 농업 과학 기술을 창조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농업 과학 기술 연구 사업에는 아직도 적지 않은 결함들과 부족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일제 사상 잔재를 청산하며 반동적 이데올로기를 반대하는 것인 동시에 그에 기초한 일체 낡은 기술적 견해들을 숙청하고 선진적 농업 과학 기술을 연구 섭취하는 것인만큼 무엇보다도 사상 정치적 준비가 필요하며 기술 력량을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에 가장 절실한 기술적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기간에 우리 농업 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우리 농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적 제 문제의 경중과 선후차를 과학적으로 타산한 기초 우에서 우선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 과학 기술을 계획적으로 도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 우리 나라 농업 발전에 긴급히 요구되는 수다한 농업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 농업 발전에서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새 품종의 선출 사업과 새로운 우량 가축 품종 산출등 사업이 불만족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 발전의

기본 조건으로 되는 기상학적 특징들과 토성에 대한 연구 사업이 거의 방임 상태에 놓여 있으며 가축 사양 관리의 개선、새로운 농기구의 창안 제작등 일련의 기술적 문제들도 락후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결함을 낳게 한 원인은 우리 농업 과학 기술 일꾼들이 선진 과학 기술 도입 사업을 우리 나라 농업과 밀접히 련결시켜 창조적으로 진행할 대신에 적지 않은 경우에 과거의 낡은 학설과 기술적 방법에 의거하여 연구 사업을 수공업적、기계적 방법으로 진행하며 그를 협소한 개인적 취미나 연구실에 국한시킨 데 있다。 때문에 우리 나라 농촌 경리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연구의 대상으로 되지 못하고 적지 않은 경우에 비현실적이며 부차적인 문제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어는 농업 과학 기술 체계에서 리탈하여 근거없는 우연적 현상에 몰두하는 경향들도 발로되고 있다。

또한 일부 농학 기술 일꾼들은 과학 기술을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구체적 다양성과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함이 없이 교조주의적으로 공식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다른 한편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을 과대 평가하는 나머지 선진 기술 도입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현상들도 발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선진 농업 과학 기술의 창조적 도입 발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농촌 경리 발전을 저해하는 극히 유해로운 현상으로 된다。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하여 선진 농학 기술의 창조적 도입 및 발전이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오늘 농학 기술 일꾼들은 이와 같은 결함들을 급속히 퇴치하고 구체적 과업 실천을 위하여 자기의 재능과 정력을 다하여 과학 기술 체계를 성과적으로 확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농학 기술 일꾼들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우량 품종을 급속한 시일내에 창조하기 위하여 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 규명하며 각 농작물의 발육 또는 가축 및 누에들의 각 생육 계단에 따르는 특수성을 해명함으로써 그의 사육에 대한 기술적 방책과 옳바른 관리 방법을 과학적으로 포착해 내여야 한다。 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연구 대상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자기의 연구 사업을 실지 생산과 밀접히 련결시킴으로써 연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실지로 검열하고 연구의 결과에 대한 과학적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농업 과학 기술 일꾼들은 쏘련의 선진적 농업 과학 기술 연구 체계에 정확히 의거하여 우리 농업 발전에 긴급히 요구되는 기술 문제들을 급속히 해결하도록 사상적、기술적 력량을 총 집중하여야 할 것이

다。이렇게 되는 때에라야만 선진 농업 과학 기술은 창조적으로 도입 발전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선진 농학 과학 기술의 창조적 도입 발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적 문제들이 제기되며 그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농산 부문에서 지금까지 등한시하였던 지방 품종들을 널리 수집하는 동시에 그것들의 특징을 해명함으로써 적어도 二、三년내에 우수한 품종을 선택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목적 의식적인 이종 교잡의 방법으로 신 품종을 육성하며 우량한 원원종 및 원종 생산과 채종 사업을 백방으로 조직 실시함으로써 퇴화된 일체 종자를 퇴치하고 우량종으로 완전 갱신하는 농업 기술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유기체의 생육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농업 기상적 특징을 정확히 연구 분석하여 각 지방들에서의 품종과 농작물의 생육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자연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토양의 구조와 그의 비옥도를 정확히 분석 규명함으로써 그에 적합한 작물 배치와 옳은 경종 체계를 적용하도록 할 것이며 토지 개량 사업과 관련하여 간석지들의 농경지에로의 전환、산성 토양에 대한 비옥도의 제고 및 재배 기술을 급속히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토양 관리 체계인 뜨·쓰·말쩨브의 토양 관리 및 파종 방법들을 조선 실정에 알맞게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기경 체계의 개선과 함께 또한 경종 체계의 기술적 제 문제를 급속히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우선 자급 비료 생산 방법의 개선、유기 광물질 비료 사용의 일반화、니탄 사용 방법의 보급등 시비의 기술적 방법들을 급속히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공업의 중요 원료로 되는 공예 작물 특히 면화의 지대별 우량 품종의 선정、사탕무 재배 적지의 규명 및 그의 재배 기술의 체계화를 보장하며 과수의 로쇄목의 갱신、과목의 수세(樹勢) 강화등 과수 재배 기술을 발전시키며 과수 배치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 기술적 제 대책을 강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농업 과학 기술 령역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그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농촌 경리가 급속한 템포로 협동화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재까지의 조사 자료에만 의하더라도 우리 나라에는 기계화를 실시할 수 있는 농경지가 약 六〇만 정보에 달하고 있다。이 방대한 면적을 기계화하려면 현대적 농기계들의 대량적 도입과 새로운 농

기구들의 창안 보급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축산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의 기후 풍토에 적합한 현유의 품종들을 토대로 가축들의 품종을 개량하며 사료 분석과 그의 재배 방법을 규명함으로써 공고한 사료 기지를 조성하며 가축 증식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급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인바 수의、위생 방역 사업을 일층 발전시키며 축산에서의 힘든 작업의 기계화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잠업 부문에 있어서는 내한성 다수확 계통의 뽕나무를 육성하며 누에의 신 품종을 육성함과 동시에 양잠 기계화를 추진시키며 작잠 사육의 일반화를 위한 사육 기술 방법을 급속히 규명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기한 기술적 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업 과학 기술 일군들의 연구 사업과 선진 기술을 실지 생산에 도입 적용하는 생산 혁신자들과의 련계를 일층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리론과 실천의 긴밀한 련계를 보장함이 없이는 그리고 과학 일군들과 생산 일군들의 창조적 협동이 없이는 과학 기술의 진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 과학 기술 일군들과 농업 시험 연구 기관들에서는 연구 사업을 협소한 시험소、포장에만 국한시키던 종래의 결함을 퇴치하고 국영 농목장、농업 협동 조합등 생산 현장에 진출하여 생산 혁신자들과의 창조적 협조밑에 진행하는 것이 극히 필요하다。여기에 있어서 특히 류의하여야 할 것은 농업 과학 연구와 기술 보급 사업을 조직함에 있어서 반드시 선후차와 경중을 가려 가장 기본적이며 긴급한 문제에 기술적 력량을 집중하여 그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이와 함께 과학 기술 일군들은 이미 달성한 과학 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더욱 앞으로 전진하여야 할 것인바 그러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성과들을 섭취리용하면서 일체 교조주의적、보수주의적 사업 태도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 기술 연구 사업에 대한 조직 지도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검열 지도 사업을 계통적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할 것인바 농업 과학 보급 사업에서 원칙적이며 비타협적인 비판과 자기 비판의 기치를 일층 높임으로써 기술 발전에서의 새 싹들을 조장 발전시키도록 날카로운 사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확인되고 실증된 선진 영농 기술을 철저히 보급 일반화하는 그것이다。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하여도 그것을 직접 생산에 도입함이 없이는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민들에게 선진 영농 기술의 유리성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를 생산에 직접 적용하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선진 영농 기술의 도입 및 적용은 농민들이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그의 유리성을 옳게 인식한 기초 우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이에 있어서는 어떤 강요나 행정적 방법도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어디까지나 꾸준한 선전과 교양을 통하여 또는 실제적인 산 모범을 통하여 농민들 자신이 유리성을 인식하고 자진하여 실천하게 되는 때에라야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진 영농 기술 보급에 있어서 선전 교양 사업은 이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본 고리로 된다。

선진 영농 기술 보급의 방법들은 다종 다양하다。 동기간을 리용한 기술 강습회、 전습회、 농민 집회 및 좌담회、 모범 농민들과의 경험 교환회 및 견학등 여러가지 방법과 수단이 있다。

우리는 선진 영농 기술 보급의 온갖 가능성을 다 리용하며 국가적 영농 기술 지표를 정확히 침투시켜야 한다。 확인되고 검열된 국가 기술 지표가 전체 농민들에게 정확히 침투되여 생산에 도입된다면 현유의 농경지에 국가적 투자가 없이도 년산 수십만톤에 달하는 곡물을 증수할 수 있는 생산 예비를 조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진 영농 기술을 보급 일반화하는 문제는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촌 당 단체들과 농촌 지도 일꾼들은 전체 농민과 협동 조합원들이 영농 기술 강습회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실지 자기 영농 작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구체적이며 방법적인 지도를 주며 그들이 제기하는 요구와 애로를 해결하는 데 방조를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농촌 경리 지도 일꾼 자신이 농업 생산에 대한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 왜냐 하면 알지 못하고서는 산 지도를 줄 수 없으며 모르고서는 정확한 지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는 사회주의의 새 싹인 농업 협동 조합들이 점점 자라나고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은 약동하고 있다。 다수확을 쟁취하려는 농민들의 증산 의욕은 비상히 제고되였으며 선진 영농 기술 도입에 대한 그들의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농촌 경리 지도 일꾼들과 농업 과학 기술 일꾼들 앞에는 자라나는 새 싹들을 더욱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증산 의욕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구체적인 산 지도를 줌으로써 알곡 총수확고를 더욱 제고하며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잠업、 과수등 농촌 경리의 전반적 발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업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과 가능성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매개 일꾼들과 전체 농민들의 노력과 열성 여하에 있으

며 매개 일꾼들의 조직적 기능과 창발성에 달려 있다。

농촌 당 단체들과 농산 지도 일꾼들의 정확한 지도가 보장되고 농업 과학 기술 일꾼들의 선진 영농 기술의 창조적 도입 및 발전이 보장되는 데서만 농촌 경리 부문에 맺겨진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나라 농촌 경리가 더욱 높은 계단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선진 농업 과학 기술의 창조적 도입 발전——이것은 농촌 경리 부문 앞에 제기된 전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교육 문화 발전과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

장 익 환

오늘 우리 나라 교육 문화 사업은 비상한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인민의 력사적 숙망이던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이 불원간 실현되게 되였다。

이는 우리 당의 시종 일관한 인민적 정책의 정당성의 발현이며 그 정책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필연적 성과인 것이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창건된 우리 당은 사회의 물질 생활 발전의 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백승불패의 맑쓰—레닌주의 리론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면서 우리 인민의 모든 투쟁을 조직하며 령도한다。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 당의 정책은 우리 나라의 력사적 제 조건과 조성된 정치, 경제 문화적 형편에 적응하여 실시되여 왔다。

쏘베트 무력에 의하여 우리 나라가 일제 통치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후 우리 당은 조성된 복잡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기초 우에서 당면한 우리 혁명의 과업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제반 민주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튼튼한 민주 기지를 구축하였는바 우리 나라의 산업 총 생산고는 벌써 一九四八년도에는 一九四四년도의 七〇%까지 회복되였으며 로동 생산 능률은 一九四六—一九四九년 기간에 三〇〇%로 장성되였다。 산업 운수、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은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켰으며 그 토대 우에서 우리 당의 인민적 시책은 교육 문화의 비약적 발전을 보게 하였다。

＊ ＊ ＊

전쟁전 一九四九년에 공화국 북반부에는 근 五천개

의 각급 학교들에서 一九二만명의 근로 인민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일제 시대에는 전연 없던 一五개의 대학에서 一만 八천여명의 대학생、九六개의 각종 전문 학교들에서 四만여명의 청년 학생들이 선진 과학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으며 일제의 식민지 통치가 남겨 놓은 수 많은 성인 문맹은 一九四九년 三월까지에 기본적으로 퇴치되였었고 一九五〇년에 와서는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이 완비되였었다。 우리 나라 교육 문화는 량적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 질적면에 있어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었다。 그것은 우선 낡은 식민지적 노예 교육 제도의 잔재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맑쓰—레닌주의적 원칙에 립각한 민주 교육 제도를 확립한 데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 이후에 三〇여년의 경험을 축적한 선진 쏘련의 인민적 교육 문화 정책을 우리 나라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과거의 낡은 교육 체제를 청산하고 一九四七년까지에는 인민 학교로부터 초중、고중、전문、대학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교육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대학 예과、대학내로동 학원 및 산간학부、통신 대학、야간 대학、성인 중학、야간 전문 학교등을 신설하여 일제 통치의 탄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교육을 받을 길을 열어 주었으며 선진적 리론과 경험을 기초로 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등을 혁신하였으며 교육 도서들의 출판 사업을 광범히 조직하였다。

낡은 식민지적 노예 교육 제도와 그 잔재의 청산은 우리 나라 교육 문화 사업에서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였는바 그것은 우리 당의 기본 력량으로 되는 로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 대중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물질적 조건을 조성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일반적 문화 수준을 급속히 제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 대중 속에서 낡은 일제 사상 잔재를 숙청하고 그들을 맑쓰—레닌주의 선진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중요한 공간으로 되게 하였다。

이리하여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벌써 우리 나라에는 인민적 교육 문화 체제가 확립되였으며 수천명의 새로운 민족 간부들이 양성되여 인민 경제의 각 부문에서 훌륭한 역군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성과들로 충만된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는 실로 『조선 력사에 있어서 가장 행복스러운 기간 이였으며 실로 길지 않은 황금 시대였다』(김 일성)。

그러나 전쟁은 이 평화적 건설 시기、행복스러운 황금 시대를 중단시켰다。 원쑤들은 우리 나라를 정복하고 형제적 린방 중국까지도 침범하려고 날뛰면서 온갖 만행을 감행하여 우리의 도시와 농촌、경제、문화 시설들을 잿더미로 만들었으며 수 많은 생명을 빼앗아 갔다。

전쟁의 이 어려운 시기에 해방 후 민주 학원에서 교

양된 수천 수만의 청년 학생들은『모든 것을 전선에로!』、『모든 것을 전쟁 승리를 위하여!』라는 당과 수령의 부름에 따라 원쑤 격멸의 성전에로 한사람같이 궐기하여 전선과 후방에서 애국주의적 헌신성과 영웅성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유명한 락동강 전투에서 불후의 위훈을 세운 벽성고급 중학교 학생 리종수 영웅、조선의 마뜨로쏘브로 불리워지고 있는 순천 고중 학생 리수복 영웅、김책공업 대학 학생 황정숙 영웅들을 비롯하여 五、○○○여명의 학생 출신 전투 위훈자들이 배출되였다。 우리의 전략적 후퇴 시기에 원쑤들이 우리 나라 북반부를 침습하자 안주 탄광 로동자 자녀들로 구성된『안주 탄광 소년 빨찌산』、선천 애육원 원아들로 구성된『선천 소년 빨찌산』을 비롯하여 영흥、함주、단천등 각 지방들에서 조직된 수 많은 소년 빨찌산들은 원쑤와의 싸움에서 놀랠만한 용감성을 발휘하여 조선 인민의 아들딸들의 고귀하고 참다운 애국주의와 영웅성을 전 세계 인민들 앞에 시위하였다。

이는 실로 해방후 우리 나라 교육 문화 사업의 질적 량적 발전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우리 당의 교육 정책의 정확성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되는 것이다。

✻ ✻ ✻

전쟁은 우리 나라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견고성과 우리 당 정책에 대한 중대한 시련이였다。 우리 당은 전체 인민들을 전쟁 승리를 위한 투쟁에 궐기시키면서 이 시련을 영예롭게 감당하였다。

전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당은 우리의 교육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여 왔다。 전쟁 시기에 당은 모든 학교 사업을 전시 체제로 개편하고 학교들을 안전 지대에 소개하며 지하 교실과 방공호 교실을 굴설하며 학습반을 조직하는 등 다종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에 적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

우리 당과 정부는 전시에 학생들의 곤난한 조건들을 타산하여 그들이 실지로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기 위하여 거액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한편 장학금 급여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생활 필수품을 대량적으로 공급하여 줌으로써 학생들의 수학 조건들을 보장하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전시에 적지 않게 발생된 전재 고아들과 애국 렬사 유자녀들의 교육 교양을 위하여 초등 학원、유자녀 학원、애육원들을 신설 확장하여 그들의 양육과 교육을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민족 간부들을 계속 양성하여 왔으며 이미 쟁취한 공화국 교육 사업의 성과들을 더욱 공고 발전시켰다。

이 어려운 기간에 보통 교육 부문 각급 학교들에서는

一七二만 二천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각종 기술 전문 학교들에서는 二만 六천명의 젊은 중등 기술자들이 양성되였고 一三개의 대학에서 八천여명의 학생들이 선진 과학 리론과 과학 기술을 련마하였으며 천여종에 달하는 교과서들을 출판하여 교육 사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전쟁 시기에 근 五천여명에 달하는 전문、대학、류학생과 연구생들을 쏘련、중화 인민 공화국 및 기타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에 파견하여 선진 과학 기술로 무장된 간부들을 대량적으로 양성케 하였다。

그리하여 전쟁 시기에 우리는 수천명의 새로운 과학 기술 간부들을 전문 대학들에서 졸업시켜 전시 생산과 적들의 일시적 강점으로 부터 해방된 지역들에서 인민 경제 복구 사업에 커다란 역군으로 활동하게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전시에 우리 당의 옳바른 정책에 의하여 이루어진 교육 문화 사업의 성과는 정전 후 교육 문화 사업을 정상화하며 그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되고 있다。

✻ ✻ ✻

전후 교육·문화 사업에서 제기된 과업은 실로 방대하다。 그것은 짧은 기간내에 파괴된 교육 시설들을 복구 정비하며 교육 교양 사업을 정상화하며 학령 아동의 취학률을 점차적으로 제고시켜 오랜 숙망이던 초등 의무 교육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조건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인재들을 급속한 시일내에 양성하는 데 있다。

이 과업은 우리 당의 정확한 시책에 의하여 三개년 계획 년간의 첫해인 一九五四년에 벌써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一九五三년에 각급 학교들은 전시 체제로부터 정상적인 체제로 완전히 재편성되였으며 건설 대학、인민 경제 대학、송도 정치 경제 대학등을 새로 창설하였으며 현직 일군들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통신 기술 대학들이 새로 설치되여 전후 복구 건설 사업에 요구되는 과학 기술 간부들을 대량적으로 양성할 기초를 구축하였다。 이미 一九五三년부터 각급 학교들의 기본 건설과 교구 비품 시설들을 정비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바 一九五三년 말에는 기본적으로 각급 학교들이 지하 교실 또는 반토굴 교실로부터 지상 교실 또는 원교사에로의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一九五四년에 와서는 국가 투자와 전 인민적 운동으로 一만 五천여개의 교실을 신축 또는 복구하였다。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에는 일찌기 우리 나라에서 보지 못한 근대적 고층 교사들이 수 많이 건축되였으며 현대적 시설들로 교구 비품들을 갖추어 놓았다。

一九五四년 말에는 기본적으로 각급 학교들이 정규 교사 또는 대용 교실들로써 기본 시설을 완전히 구비

하였으며 교육 사업 발전에 필요한 물질적 토대가 거의 완성되였다。 특히 이 기간에 미제와 리 승만 매국 도당의 강점하에서 배움의 길을 박탈당하였던 신 해방 지구 아동들과 청년들의 교육 사업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배려에 의하여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

이 지구에는 정전 이후 인민 학교、초급 중학교、고급 중학교들이 신설 또는 확장되여 리 승만 통치하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던 근로 인민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조건을 보장받았으며 학령 아동의 거의 전원이 취학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一九五四년 말에 이르러 각급 학교 수는 四천 九백여교로 장성되였으며 학생 수는 一八八만 八천여명으로써 벌써 전전 수준에 도달하게 되였다。

우리 교육 사업은 전후 시기에 다만 량적으로 비상한 발전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그의 질적면에 있어서도 많은 개변과 발전을 가져왔다。

위대한 쏘련이 축적한 교육 사업의 새로운 경험들과 선진적 과학 리론들을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창조적으로 도입하여 인민 학교、전문 학교、대학들의 학제를 새로 개편하였으며 선진 과학 리론을 내용으로 하는 교과서들과 참고 서적들을 대량적으로 출판하여 벌써 인민 학교들에 있어서는 학생 수의 근 一〇〇%가 교과서를 소지하게 되였으며 학기를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교육 교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각급 학교 학생 구성에서도 많은 변동이 있었는바 현재 우리 나라 학교들에는 八명의 영웅과 四천여명의 수훈자들이 공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성과들은 실로 우리 나라 교육 사업에 있어서 비약적 발전의 계기를 이루는 것이다。

금년에 들어와 우리 나라 인민 교육 사업은 더욱 새로운 전망을 보이고 있는바 각급 학교 수는 五천교로 확장될 것이며 학생 수는 二一〇만명으로 장성될 것이다。이는 전전 수준에 비하여 학교 수에 있어서 一〇〇•二%、학생 수에 있어서 一〇八•三%에 각각 해당하는 것이다。특히 금년도에 있어서 우리 교육 부문에는 새로운 학교들과 교육 시설들이 확장되게 될 것인바 그것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복구 발전과 밀접히 련관된 교육 시설의 확장인 것이다。우리 나라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이에 수요되는 간부를 급속한 시일내에 양성하기 위하여 수의 축산 대학이 신설되며 재직 간부들의 과학 기술 수준과 자연 과학 지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신 대학과 야간 전문 학교들이 확장되며 야간 간부 학교、통신 중학、야간 중학、로동 청년 학교들이 새로 개설되게 될 것이다。이는 실로 우리 나라 교육 문화 부문에서의 새로운 전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인민 교육 사업의 전반적 장성은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이 성숙되였음을 말해 준다。이에 기초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九차 회의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연기되였던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七년)제를 一九五六년부터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우리 나라 교육 문화 사업의 이와 같은 급속한 발전은 우리 당의 인민적 정책의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증시하여 주는 것이며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물질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공화국 남반부에서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역도들의 반인민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식민지 노예 교육이 보존 감행되고 있다。

학원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그 자취조차 찾아 볼 수 없으며 진보적 교원들과 학생들은 계속 학원에서 추방 체포되여 고문、학살을 당하고 있다。학원에 대한 탄압은 계속 우심하여 가고 있는바 최근 서울시에만 하여도 한국 대학을 비롯하여 二五개의 학교가 폐쇄당하였으며 수 많은 학교들이 미군과 리 승만 괴뢰군의 병사와 군용 창고로 화하고 있는 형편이다。이로 인하여 남조선 국민 학교들에만 하여도 一만 九천 二백여 교실이 부족되고 있으며 一九五四년도에만 하여도 六一만명의 학령 아동들이 취학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류랑하고 있었다。명목상으로 개교되고 있는 학교들까지도 모리배들의 영업소로 화하여 반동 특권 계층들과 괴뢰 관리들의 자녀들만이 들어 갈 수 있고 근로 인민의 자녀들은 교육을 받을 조건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소위 북진 통일에 미쳐 날뛰는 리 승만 역도들은 개교된 학교들에서도 교육은 고사하고 학생들의 군사 훈련에만 몰두하면서 소위 『집단 입대 군사 훈련』 방책을 취하여 학생들을 강제로 괴뢰군에 대량적으로 입대시키는 흉책을 감행하고 있다。이리하여 오늘 남반부 학교들은 문자 그대로 동족 상쟁의 값싼 대포밥의 예비 창고로 화하고 있다。그러나 남반부의 진보적인 수천 수만의 학생들과 교원들은 최고 인민 회의 제八차 회의의 호소문에 호응하여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로골적인 군사적 노예 교육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힘차게 나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교육 문화의 찬란한 성과와 초등 의무 교육제 실시는 남반부 인민들에게 커다란 충동과 희망을 던져주고 있으며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여 주는 동시에 미제와 그 주구 리 승만 역도들에게는 커다란 공포와 타격으로 되고 있다。

❋ ❋ ❋

정전 후 불과 二년으로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의 실시를 보게 되는 것은 우리 당의 인민적 정책과 우리 인

민의 창조적 로력과 쏘련、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인민들의 막대한 원조에 의하여 달성된 인민 경제의 급속한 복구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후 인민 경제는 三개년 계획의 첫해에 우리 나라에는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대규모의 현대적 공업 시설들이 창설되였으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현저히 제고되였다。 이와 같은 발전은 우리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토대를 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 령역에서 의무 교육제 실시의 물질적 전제 조건들을 조성하여 필연적으로 의무 교육제 실시에로 넘어가게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의 실시— 이것은 다만 우리 나라 문화사에서의 새로운 전변으로 될 뿐만 아니라 경제 생활 령역에서의 새로운 환경을 반영한다。 사회의 정치、경제적 생활 제 조건의 변화는 인민들의 정신 생활 령역에서의 변화를 일으키며 인민들의 의식의 변화는 또한 환경의 변화를 촉진시키며 물질적 조건의 변화를 촉진시킨다。 초등 의무 교육제의 실시는 우리 나라 인민들의 일반적 문화 수준을 현저히 향상시키는 기초로 되며 따라서 우리 나라의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커다란 힘으로 되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나라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가일층 강화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혁명 완수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커다란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초등 의무 교육제의 실시는 우리 나라의 위력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시위하는 것으로 된다。 세계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그 나라의 물질적 생활 토대가 튼튼히 되고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현저히 제고됨이 없이는 의무 교육제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의 전성기에 있어서 소위 세계 최강을 참망하며 고도의 문화 수준을 자랑하였으나 그들은 끝끝내 전반적 의무 교육은 실시하지 못했었다。

그것은 비단 일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전반적 의무 교육제란 불가능한 것이며 또 부르죠아지는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우리 당의 옳바른 인민적 정책은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三년간의 가혹한 전쟁의 상처를 최단 기간에 복구하면서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현저히 향상시키고 있으며 정전을 달성한지 三년 후인 一九五六년도에 가서는 완전히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고 인민 경제의 전전 수준을 훨씬 릉가하여 이해에 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물질적 토대를 닦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인민의 평화적 로동에서의 영웅성과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조국의 정치 경제적 위력의 장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시위함을 의미한다。 실로 우리 인민이 전후 약 二

년 동안에 쌓아 놓은 빛나는 성과들은 자본주의 국가들 같으면 수십년이란 세월을 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인민 대중의 이러한 창조적 력량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발휘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국가 제도、사회 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이 유감없이 표현되여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중요한 초등 의무 교육의 실시는 우리 당 앞에 제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이 중요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 및 정부 정책의 정확한 집행을 위한 각급 당 단체들과 국가 기관들 및 그 일군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 실시를 앞두고 우리 당 단체들과 국가 기관들 앞에는 허다한 당면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一九五六년도부터 학령 아동의 전부를 빠짐없이 취학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이다。

학령 아동 전원의 취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령 아동을 정확히 조사 장악하는 것이 필요한바 모든 공민들은 학령에 달한 아동들을 빠짐없이 등록하며 그들을 제때에 학교에 보내도록 제반 준비를 진행하여야 한다。 학령 아동을 정확히 장악함이 없이는 학교 통학 구역을 확정하며 그들을 제때에 취학시킬 대책을 강구할 수 없음은 물론 의무 교육의 시책을 정확히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이 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취학 아동의 급격한 장성에 따라 요구되는 학교 시설들을 확장하며 학교의 기본 건설 사업을 제때에 완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 인민들의 앙양된 교육열을 더욱 고무 추동하여 인민들의 열성적 지지하에서 매개 학교 구역내 학교 건설 사업을 급속히 추진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로동자구 및 기타 중요 직장 학교들의 기본 건설들은 그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원칙에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용이한 사업이 아니며 또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만일 학교 시설들을 정비 확장하는 사업이 불충분하게 진행된다면 학령 아동의 전원 취학에 적지 않은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또 만약 이 사업을 신중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면 인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돌아가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 단체들과 국가 기관들은 이 사업의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고려하여 주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또 중요하게 제기되는 사업의 하나는 초급 중학교와 고급 중학교망을 확장하며 이 학교들에서 기본 기술 교육을 실

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민들의 일반적 문화 수준을 제고시키며 우리의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사업에 요구되는 기술 인재들을 양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후 복구 건설 사업에서 『기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나서고 있다』(김 일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물론 전문、 대학에서의 간부 양성 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초급 기술 일꾼들을 보충하며 공업、 수산업、 농업 부문에 새로운 선진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 매년 대량적으로 졸업하는 초、 고급 중학생들이 또한 커다란 역할을 논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산업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실천함에 있어서 대량적으로 요구될 과학 기술 간부들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되는 이 학교들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정치 경제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쓰딸린은 『재건기에는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구호를 주었는바 이것은 인민 경제를 사회주의적、 현대적으로 재건하는 시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 문제는 또한 자유 자재로 기술을 구사할 줄 아는 인재의 문제와 련결되는 것이다。

초등 의무 교육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사업이 가지는 정치적、문화적 의의 및 그와 경제와의 호상 관계를 대중 속에 철저히 해설 침투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당과 정부의 모든 정책의 실현은 인민 대중의 자각적、적극적인 참가와 그들의 창발성의 발휘로써 보장된다。 우리 당과 정부의 정책은 철저한 인민적 정책이며 그것은 인민의 복리 이외에 다른 아무 것도 목적하지 않는다。

매개 당 단체들과 국가 기관들은 력사적 의무 교육제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인민 대중에게 이 사업의 의의를 철저히 침투시키는 동시에 자기들에게 맡겨진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로운 웽그리야의 一〇년

윤 철 호

자유로운 인민 민주주의 웽그리야 인민은 지금 따뜻한 봄날과 함께 자기들의 최대의 민족적 명절——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한 해방 一〇주년을 맞이한다。

一〇년전、 一九四五년 四월 四일 위대한 쏘베트 군대는 히틀러 강도배들과 그들과 야합한 웽그리야 파시쓰트들로부터 웽그리야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쏘베트 무력의 승리의 결과에 웽그리야 인민은 장기간에 걸쳐 피를 흘려가면서 투쟁한 세기적 숙망——민족적 독립을 달성하였으며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러므로 쏘베트 무력에 의한 웽그리야의 해방은 웽그리야의 재생을 의미하며 웽그리야 인민의 력사에서 위대한 전환점으로 된다。

해방 후 웽그리야 인민은 위대한 쏘련 인민의 부단한 형제적 지지와 원조에 의거하면서 투쟁에서 단련된 자기들의 선봉대이며 리익의 진정한 수호자인 웽그리야 근로자당의 령도하에 제반 사회—경제적 개혁을 실시하고 파괴된 국가 경제를 복구하였으며 사회의 근본적 개조를 위한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

이 성과는 자유로운 인민 민주주의 웽그리야의 정치、 경제、 문화적 토대를 공고화하였으며 과거에 락후한 농업국이였던 웽그리야를 발전된 사회주의의 공업과 선진적 문화를 가진 나라로 전환시켰다。

* * *

해방전 웽그리야는 근 四〇〇년 이상이나 외래 침략자들의 예속하에 있었다。 민족적 독립을 박탈당한 자유 애호 웽그리야 인민은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수세기간이나 자기의 민족적 독립과 자유、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 해방적、 혁명적 투쟁에서 웽그리야 인민은 많은 피를 흘렸으며 훌륭한 자기의 아들들、 신성한 해방 투

쟁의 영웅들——라꼬치、꼬슈트、뻬제피、딴시츠등과 같은 수 많은 투사들을 낳았다。

그러나 그들이 진행한 그 모든 투쟁은 그들의 영웅주의에도 불구하고 외래 침략자들과 또 그들과 야합한 국내 반동들의 광포한 테로로 실패당하였다。 一八세기 초엽、하프스부르그 왕조의 식민지적 압박을 반대하여 라꼬치가 지도한 민족 해방 운동도 실패하였으며 一八四八——一八四九년의 영광스러운 혁명 시기의 인민적 영웅들인 꼬슈트、뻬제피、딴시츠 및 기타를 수반으로하는 해방 투쟁도 실패하였다。

그러나 정당한 위업에 궐기한 웽그리야 인민의 이 민족적 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그들의 투지는 료원의 불길처럼 타올랐으며 자유 애호 인민들 특히 로씨야 인민의 동정과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一八세기 초 라꼬치가 지도한 웽그리야 인민의 해방 투쟁은 당시 로씨야의 수 많은 장병들의 후원을 받았으며 一八四八——一八四九년의 웽그리야 인민의 해방 투쟁은 一九세기 로씨야의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인 게르쩬、체르늬쉡쓰끼를 비롯한 진보적 인사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一九세기 로씨야의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은 당시 로씨야의 수 많은 진보적 인사들의 동정을 표명하면서 웽그리야 인민의 봉기를 진압하는 오지리 압제자들의 략탈적 행위를 도와준 황제 니꼴라이 一세의 치욕적 행동을 격분에 넘쳐 규탄하였다。 웽그리야 인민의 이 투쟁은 짜리 군대의 일부 장병들 속에서도 동정을 받았던 것이다。

로씨야 인민과 웽그리야 인민의 이 친선은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 시기에 특히 힘있게 나타났다。 一〇월 혁명의 승리에 크게 고무된 수천명의 웽그리야 근로자들은 청소한 쏘베트 공화국에 의하여 창건된 붉은 군대의 대렬내에서 분투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으며 一九一九년 三월에는 자기 나라의 부르죠아 정부를 전복하고 쏘베트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당시 위대한 레닌은 이 소식을 듣고 쏘베트 로씨야의 이름으로 웽그리야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당신들은 유일하게 합법적이며 참으로 혁명적인 전쟁、압박자들을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전쟁、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전 세계에서 로동 계급 속에 있는 고귀한 모든 것은 당신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그러나 一九一九년의 웽그리야 쏘베트 공화국은 五개월 후에 그 당시 영 불등 제국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은 웽그리야의 주인들——귀족、지주 및 자본가들과 우익 사회당원들에 의하여 교살되였다。 그리하여 웽그리야는 외래 제국주의 렬강에게 전적으로 예속되였는바 그들은 웽그리야의 경제 및 문화 발전을 백방으로 억제하였으며 략탈적 목적밑에 웽그리야의 락후성을 영구화하려 하였다。

당시 웽그리야의 통치 계급인 귀족、지주、자본가들은 외래 제국주의자들과 야합하여 호르티를 수반으로하는 팟쇼 군사 독재를 수립하였다。 반동적、반인민적 호르티 도당은 자기 나라의 근로자들을 가혹하게 착취、압박하였으며 대중적 실업의 나라、『사람을 매매하는 시장을 가진 나라』、『三백만의 거지들』을 가진 나라로 웽그리야를 전락시켰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고 오지리를 점령하자 호르티 도당은 히틀러가 조직한 一九四〇년 八월 三〇일의 윈나 협정을 적극 지지하여 나섰으며 一九四〇년 一一월에는 히틀러 팟쇼 쁠럭에 웽그리야를 끌어넣었으며 민족적 리익과 인민의 의사、요구를 배반하고 위대한 쏘련을 반대하는 범죄적 전쟁에 웽그리야를 몰아넣음으로써 웽그라야를 민족적 파국에 처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웽그리야 인민의 민족적 의지、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을 꺾을 수 없었다。 파시쓰트적 호르티 도당의 폭정하에서도 웽그리야 인민은 자기의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공산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웽그리야의 수 많은 투사들은 지하에서 자기 력량을 규합하였다。 당은 라꼬시 동지의 지도하에 반팟쇼 투쟁의 선두에 서서 국내의 모든 진보적 력량을 통합하여『민족 독립 전선』을 조직 지도하였으며 광범한 인민 층——농민、인테리、반파시쓰트적、애국적 기분을 가진 소부르죠아지와 중부르죠아지의 일부까지도 자기 주위에 집결하고 그들을 파시즘、제국주의적 노예、봉건주의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였다。이 투쟁에서 쏘련의 존재와 그의 성과는 웽그리야 인민의 해방 투쟁을 고무하여 주었다。

一九四四년 봄에 히틀러 파시즘을 격멸하면서 웽그리야 국경을 넘어온 위대한 쏘베트 군대는 웽그리야 공산당원들을 선두로 하는 인민 전투대와 빨찌산 부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동 작전하에서 一九四五년 四월 四일 웽그리야는 히틀러 폭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였다。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후 웽그리야 인민은 위대한 쏘련의 부단한 원조와 웽그리야 공산당의 지도하에 토지 개혁、산업 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사회—경제적 개혁을 실시하여 지주、자본가들의 경제적 및 정치적 지배를 종식시켰으며 一九四六년 一월 三一일에 력사적인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근면성、인내성 및 재능으로써 알려져 있는 영광스러운 웽그리야 인민은 인민 정권을 수립한 수년간에 벌써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를 복구 건설하였으며 자기의 근로자당의 지도하에 새 사회 제도의 창설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길에서 더욱 더 큰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웽그리야 인민이 진행한 이 모든 투쟁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다。 이 과정은 타도

된 부르죠아지들、수만 홀드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이전의 지주들、우익 사회 민주당원들의 반항과 그들을 조종하여 웽그리야의 내정에 간섭하며 웽그리야에 자본주의 제도를 복구하려고 시도한 미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계급 투쟁을 동반하였다。 미제의 앞잡이들인 국내의 반혁명 분자들은 초기에 정부와 의회에 잠입하여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옹호하면서 웽그리야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청산하고 『미국식 생활 양식』에 의한 『민주주의』를 창설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반동적인 정치적 및 경제적 립장을 보존하면서 온갖 수단을 다하여 정부 기관내에서 공산당의 령도적 역할을 배제하려고 하였으며 웽그리야를 쏘련으로부터 리간시켜 미 영 뿔럭측에 인입케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이 반혁명적 시도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공고화를 위한 웽그리야 인민의 그 후의 투쟁 행정에서、광범한 민주주의적 개혁과 일련의 사회주의적 방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폭로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가 폭로되자 더욱 더 자기의 반혁명적 면모를 나타냈는바 그들은 경제적 분야에서 해독 행위와 태업을 하게 되였으며 미 영 뿔럭의 지지하에 낡은 부르죠아 지주적 질서를 수립할 목적으로 반혁명적 음모를 조직하게 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이 반혁명적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으니 그것은 위대한 쏘련의 지지와 방조、반국가적 음모를 적발 분쇄하는 인민적 투쟁을 직접 조직 지도한 공산당의 부단한 투쟁에 의하여 련속적인 패배를 당하였다。

공산당은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정치적 및 경제적 과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와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 과정에서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부단히 강화하였으며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기초로 되는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공고화하였다。 一九四八년 八월에 진행된 공산당과 사회 민주당의 합당——유일한 웽그리야 근로자당의 형성은 로동 계급의 정치적 통일을 가일층 촉진시켰는바 이 모든 것은 웽그리야에서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이행을 보장하여 주었다。

웽그리야 근로자당은 오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웽그리야 인민의 확고부동한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다。

* * *

지난 一〇년간은 웽그리야 인민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 왔다。

인민 민주주의 웽그리야가 창건되기 전까지의 웽그리야의 경제는 장구한 기간 외국 독점 자본가들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으며 그들에 의한 잉여 상품의 범람、원료 원천의 략탈등으로 인하여 여지없이 령락되여

있었다。

인민 경제에서 주되는 부문은 락후한 농업이였는바 전체 농경지의 五분의 一을 백명의 대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반면에 一백만 이상의 소규모적 토지 소유자들은 전체 농경지의 절반도 못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공업、은행、대상업 단체들은 한줌도 못되는 자본가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었다。 게다가 제二차 세계 대전은 웽그리야의 경제를 혹심히 파괴하였는바 피해액은 一九三八년의 국민 소득보다 약 五배나 더 많았다。 공업 시설과 그의 생산 능력도 거의 절반이 파괴되였다。 그리고 철도는 六三%、자동차 수는 五三%、수 많은 교량들이 파괴되였으며 많은 가축들이 도살 당하였고 一二만호의 주택들이 파괴、손실을 입었다。

해방된 웽그리야는 이와 같이 파괴된 폐허 우에서 자기의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게 되였다。 웽그리야의 경제가 처한 이 락후성과 상처를 단시일내에 청산하고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 템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산당은 우선 一九四五년 봄과 여름에 낡은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청산하는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토지 개혁에 의하여 六〇만의 빈농민들이 三백만 홀드 이상의 토지를 분여받았으며 근로 농민은 세기적인 예속과 온갖 형태의 농노적 착취로부터 해방되였다。 토지 개혁의 결과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과의 동맹은 현저히 공고화되였다。

공산당의 발기에 의하여 웽그리야 국회는 一九四七년 一一월 二一일 一三개의 대은행을 국유화할 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동시에 이 국유화된 은행에 종속되였던 많은 대 중 공업 기업소들도 국유화하였다。 一九四八년 三월 二五일 一〇〇명 이상의 로동자 및 사무원들이 일하던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였다。 一九四九년 一二월 二八일 一〇명 이상의 로동자 및 사무원들이 일하던 공업 기업소의 보충적 국유화를 실시하였다。 결과에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부문의 비중은 五六%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산업 기업소의 대부분은 국가나 또는 협동 조합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一〇년 동안에 웽그리야의 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위대한 쏘련의 콕쓰、철광、면화 및 기타 원료에 의하여 무력하였던 공업을 복구 발전시키게 된 웽그리야 인민은 쏘련의 부단한 형제적 원조와 당의 정확한 지도하에 자기의 힘과 창조적 노력으로써 모든 난관과 애로를 타개하고 파괴된 공업을 복구、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현대적 공장、기업소들을 건설하였다。 최초의 三개년 계획(一九四七년 八월 一일——一九五〇년 八월 一일)을 성과적으로 완수한 기초 우에서 진행된 제一차 五개년 계획(一九五〇년——一九五四년)의 성공적 수행은 웽그리야 공업 생산을 대대적으로 증대시켰다。 三개년 계획의 말과 제一차 五개년 계획

의 초에 있어서 공업 생산은 一九三八년보다 三七·五%나 증가되였으며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말에 공업 생산은 一九三八년에 비하여 거의 三배로 장성하였는바 이것은 공업 생산이 년 평균 三〇%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 경제의 기초인 중공업과 그의 골간으로 되는 기계 제작 공업은 성과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채탄 및 석유 채취와 전력 생산이 최근 五년간에 二배로 증가하였으며 기계、강철、압연 금속、알미늄 및 기타 중요한 품종들의 생산은 二배 이상으로 장성하였다。

인민 경제 계획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웽그리야에는 六八개소의 새로운 대공업 기업소들이 건설되였으며 八四개의 기업소들이 대규모적으로 확대되였다。 쓰딸린 야금 꼼비나트、 레닌 야금 꼼비나트、『一一월 七일』 발전소、까진쯔바르찌까 화학 꼼비나트를 비롯한 수 많은 중공업 기업소들과 화물 자동차、 전기 기구、 기대등을 생산하는 새로운 공업 부문들이 창설되였다。 중공업의 발전과 함께 경공업、특히 방직 공업도 발전하였다。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도시들——쓰딸린바로시、 뾰믈로、 오로쓸란、 바르바로따등이 생겼다。 과거에 공업 방면에서 락후하였던 베께슈챠바、 덴테이슈、 야쓰베렌、 잘라에게르쎄그등과 같은 지방에 새로운 현대적 공장、 제조소들이 건설되였다。

공업에서 사회주의적 성분의 비중은 一九四六년의 五六%로부터 一九五二년에는 九八%로 장성되였으며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가 지배적인 형태로 되였다。

一〇년 동안에 웽그리야의 농촌 경리도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공산당의 발기에 의하여 실시된 토지 개혁과 그후 계속되는 당과 정부의 방조에 의하여 농업 생산은 제고되였다。 당과 정부는 농업 생산의 제고를 위하여 농촌에 엠·떼·에쓰를 설치하며 관개 공사、 운하 공사등을 실시하였으며 뜨락또르、 꼼바인、 탈곡기、 인조 비료등을 대량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一九五四년도에만 하여도 웽그리야 농촌은 四、五五六대의 뜨락또르、 三七一대의 꼼바인、 九五〇대의 탈곡기、 수천대의 자동차들을 공급받았으며 一九五四년도에 농업에 대한 기본 투자는 四五%나 증가하였다。

국가의 사회주의 공업화에 립각하여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진행되고 있는바 현재 웽그리야에는 一八만 七천호의 농호가 一백 五〇만 홀드의 지역을 차지한 三천 二백개의 생산 협동 조합에 참가하고 있다。 농업에서의 사회주의적 부문은 오늘 웽그리야의 전 농업 생산의 三분의 一을 차지하고 있다。

인민 경제 건설에서 웽그리야 인민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에 기초하여 로동자、 사무원、 농촌 주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도 현저히 개선 향상되였다。 一九四

五——一九四六년에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이 겨우 전전의 五〇——六〇%밖에 못되였다면 一九五四년 상반기에는 공장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전전 수준보다 五七%나 높아졌다。 一九五四년 상반기에 매 농가의 평균 실질 수입은 전전의 수준을 五〇% 릉가하였다。 一九五四년에만 하여도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은 一五% 장성하였으며 농민의 실질 수입도 더 증가되였다。 실질 임금 수준의 장성은 웽그리야 인민의 구매력을 장성시키고 있다。 一九五四년에만 하여도 면직물에 대한 수요의 장성은 二七%、 모직물은 四二%、 신발은 二九%、 견사는 三七%였다。

이 모든 경제 발전의 성과들은 웽그리야 인민의 문화 생활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一九五四년도에만 하여도 二、七五〇종의 각종 서적들이 출판되였으며 신문、 잡지의 수도 현저히 증가되였다。 一九五四년에는 벌써 三、九四九개의 도서관、 一、八八三개의 문화 회관이 사업을 개시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라디오 청취자들의 수도 현저히 증가되였는바 一九三八년에 四一만 九천명이였다면 一九五三년에는 一〇七만 九천 六백명、一九五四년에는 一二七만 二백명으로 증가하였다。 八학급제 초등 학교와 중등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는 전전에 비하여 三배로 증가하였으며 종합 대학 및 단과 대학들의 학생 수는 거의 五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一〇년간에 웽그리야는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도 현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지난 一〇년간에 달성한 웽그리야의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은 웽그리야의 사회 정치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전체 인민의 정치—도덕적 통일을 강화하였으며 국내의 계급적 구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계급으로서의 지주、 부르죠아지는 이미 소멸되였으며 최후의 착취 계급인 농촌 부르죠아지 즉 꿀라크 계급은 협소한 범위로 압축 당하고 있다。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웽그리야 로동 계급은 량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자각성、 문화 수준 및 조직성으로 보아 거대한 장성을 하였으며 자기의 경험을 풍부히 하였다。 무엇보다도 우선 로동 계급 대렬내에서는 국가와 인민 경제를 향도하고 있는 광범한 지도층이 배출되였다。 로동 계급 내부에서는 수십년간이나 존속되여 온 분렬이 청산되였다。 로동 계급은 웽그리야의 지도적 계급으로 되였으며 정치적으로 통일된 목적 지향성있는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통일되고 조직된 계급으로 되였다。

근로 농민은 은행과 지주들과 꿀라크들의 멍에밑에서 신음하고 억압 당하던 계급의 처지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였다。 농민의 대다수는 중농의 수준에까지 향상되였다。

인테리겐챠도 새로운 거대한 력량으로 되였다。 그들의 기본 대중은 이제는 부르죠아 인테리겐챠가 아니

다。 그들은 이미 새 사회 건설에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一〇년 동안에 웽그리야 인민이 달성한 이 모든 성과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위대한 쏘련의 물질—기술적 원조와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의 경제적 협조와 웽그리야 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인、라꼬시 동지가 지도하는 웽그리야 근로자당의 현명한 지도의 결과이다。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위대한 쏘련은 제二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제일 먼저 웽그리야와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쏘련은 웽그리야에 불공평한 강화 조약을,체결하려고 강요한 제국주의 쁠럭의 시도를 반대하고 웽그리야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一九四八년 二월에 체결된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 조약은 쏘련과 웽그리야간의 친선 관계를 공고화하였다。 조약 조인 후 량국간의 형제적 친선과 동맹은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그의 협조는 더욱 밀접하게 되였다。 쏘련은 웽그리야 인민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신설 공장、제조소들을 위한 기계 와 설비품、공업 원료 및 기술적 방조를 주고 있다。 웽그리야에 대한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과의 경제적 협조의 발전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웽그리야 인민의 창조적 적극성을 더욱 고무하고 있다。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의 원조에 의거하여 웽그리야 근로자당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항상 고무적、지도적 력량으로 되고 있다。 지난 一〇년간에 웽그리야 인민이 걸어온 력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투쟁의 매개 단계에서 당의 정확한 지도와 대책이 없었더라면 웽그리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 불가능하였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당은 자기 존재의 첫날부터 웽그리야 인민의 모든 투쟁을 조직 지도하였으며 당내 및 당외의 온갖 반혁명적、반당적 분자들의 음모 책동들을 제때에 폭로 분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경제 건설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시정하고 웽그리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보장하였으며 또 보장하고 있다。

당은 一九五三년 六월 이후 공업과 농업간의 불균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업화의 사업을 계속 추진시키는 조건하에서 농업의 가일층의 앙양과 경공업 및 식료품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도모하는 일련의 대책을 취하였으며 최근에는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레닌적 원칙을 외곡한 우경적 위험성을 비판、폭로함으로써 앙양의 길에 들어선 웽그리야의 공업 특히 중공업을 가일층 발전시킬 일련의 대책들을 취하고 있다。

최근에 개최된 웽그리야 근로자당 三월 전원 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우리 당의 기본 과업은——제三차 당 대회 결정에 상응하여——사회주

의를 건설하는 것이며 우리 조국에 사회주의의 토대를 축성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총로선、즉 인민 경제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사회주의 공업화 정책을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一九五五년 三월 一一일부『공고한 평화를 위하여、인민 민주주의를 위하여!』지에서)。

결정은 또한 一九五五년도 계획의 범위내에서 사회주의 공업의 생산을 一九五四년에 비하여 五·七%、농업 생산을 七·三%로 제고시킬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석탄 생산은 작년에 대비하여 四%、야금 생산은 四%、전력은 一〇%로 각각 장성시킬 것을 지적하고 있다。

웽그리야 인민은 오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레닌적 원칙의 외곡에 타격을 준 웽그리야 근로자당 중앙 위원회 三월 전원 회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으며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 도상에서 우선 중공업의 발전、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국방력의 부단한 강화 및 주민들의 생활 수준 제고 분야에서 자기 앞에 나서고 있는 과업을 명백히 알고 더욱 힘차게 궐기하고 있다。

* * *

오늘 인민 민주주의 웽그리야는 쏘련을 선두로 하는 평화、민주、사회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평화적 대외 정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웽그리야 인민 공화국의 대외 정책은 시종 일관한 평화 정책이다。 평화로운 환경과 평화로운 세계를 원하고 있는 웽그리야 인민 공화국은 호상 평등적이며 호혜적이며 령토와 주권을 호상 존중하는 원칙하에서 수 많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웽그리야 인민 공화국은 그가 창건된 첫날부터 다른 나라들과의 평화적 협조와 친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진출하였으며 또 진출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거대한 열성을 가지고 유네스코 및 기타 유·엔기구와 수 많은 국제 단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웽그리야 인민 공화국 정부와 웽그리야의 각종 사회 단체들은 一四〇개 이상의 국제적 조직의 성원으로 되고 있다。 一九五四년도에만 하여도 웽그리야 대표단은 一七〇회에 달하는 국제 회의에 참가하였다。

국제적 협조와 평화 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있는 웽그리야 인민은 다른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과 함께 서부 독일의 재무장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독일 군국주의 재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라파 제국 모쓰크바 회의와 세계 평화 리사회의 결정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그들은『우리는 독일 군국주의의 재생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구호하에 베르마흐트

의 재생을 방지할 것을 불란서와 서부 독일 근로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실례로 부다페스트 종합 대학 교원들은 소르본느 대학 교원들에게、 마티아스 라꼬시 명칭 꼼비나트 로동자들은 레노 자동차 공장 로동자들에게、웽그리야의 대피복 공장의 하나인 『붉은 一〇월』 공장 종업원들은 리온 방직공들에게 각각 그와 같은 호소문을 보내였다。 그들은 베르마흐트를 재생시키는 것이 구라파에서 원자 전쟁을 도발하려는 범죄적 시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유로운 인민들과의 동맹、 쏘련에 대한 충실성과 친선은 웽그리야 인민 공화국의 대외 정책의 확고부동한 기초이다。 위대한 쏘련의 덕택으로 웽그리야는 자기의 지난날의 고립 무원한 처지로부터 벗어났으며 평화 애호 진영의 동등한 일원으로 되였다。 쏘련과의 긴밀한 우의적 관계는 웽그리야의 독립을 유지 공고화하기 위한 가능성을 준다。

쏘련과의 우의적 친선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웽그리야 인민 공화국은 평화 진영의 다른 나라들과도 긴밀한 련계를 맺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과거 수백년을 두고 불신임과 적의의 근원의 하나였고 『분할하여 통치하라』라는 침략적 렬강들의 침략의 초점이였던 두나이 지역과 그 일대는 해방과 함께 평화적 협조의 지대로 변하였다。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와의 경제 문화적 협조는 웽그리야의 독립을 수호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웽그리야 인민 공화국은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한편 또한 다른 나라들과의 련계 강화도 존중하며 그의 발전을 추진시키고 있다。 지난 수년간에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는바 이를 실증하여 주는 것은 국경 충돌 사건의 방지를 위한 혼성 위원회 조직、 一、四〇〇만 딸라의 상품 무역을 예견하는 통상 협정、 기록 영화、 필림 교환에 관한 협정、 체육 문화 교류의 발전이다。 웽그리야 인민 공화국과 오지리와의 관계도 조절과 협조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두나이강 항행에 관한 오지리와의 협정、 영화 필림의 교환、 공민권에 관한 일련의 분쟁 문제의 해결、 체육상 련계의 강화、 이 모든 것은 오지리와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웽그리야 인민 공화국은 일련의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경제 문화 협정을 체결하며 외교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바 一九五三—一九五五년간에 웽그리야는 볼리비야、 씨리야와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일련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무역 관계를 확장하고 있다。 현재 웽그리야와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설정한 나라는 七〇개나 된다。

평화를 사랑하는 웽그리야 인민은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을 물심 량면으로 도와 주었으며 항상 우리에게 친선의 손길을 뻗쳐 주고 있다。

형제적 웽그리야 인민은 조선 전쟁이 개시된 첫날부터 위대한 쏘련、 중국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인민들과 함께 『미제는 조선에서 손을 떼라!』고 일치하게 웨치면서 싸우는 조선 인민에 대한 원호 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웽그리야 근로자들은 『조선 원조 작업반』을 조직하고 『조선 인민은 우리를 위하여서도 싸운다。 우리는 조선 인민을 위하여서도 일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치렬한 증산 경쟁 운동을 전개하였다。

형제적 웽그리야 인민은 조선 원조 운동의 첫 一주일간에만 하여도 一천 二백만 포린트에 달하는 거액의 원조금을 거출하였고 곧 뒤이어 자기들의 의료단을 우리 나라에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一九五一년 웽그리야 인민은 二천 五백만 포린트에 달하는 거액의 원호금을 수집하였으며 이해에 자기들의 인민 대표단을 우리 나라에 파견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을 고무 격려하여 주었다。 一九五二년 七월 웽그리야 평화 옹호 위원회 호소에 의하여 『조선 월간』운동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였는바 그들은 이 기간에 『조선 월간』 기념 스탐프 발간에서만 하여도 三천 三백만 포린트에 달하는 원호금을 수집하였으며 이 원호금으로써 우리에게 막대한 원호 물자들을 보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웽그리야 인민은 우리의 많은 전재 고아들을 양육하고 있는바 현재 웽그리야의 『김 일성 학원』에서는 우리의 수 많은 전재 고아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

一九五二년 一월부터 一〇개월간에만 하여도 웽그리야 인민은 조선 전재민 구호 위원회를 통하여 조선 인민에게 식료품 一천 一백 一一상자、 의료품 一三一상자、 위문 주머니 二천 五백 상자、 기타 위문품 七상자 등을 보내 주었다。

조선 정전 이후에도 웽그리야 인민은 우리의 전후 복구 건설 투쟁을 위하여 거대한 원조를 주고 있는바 一九五三년 九월 一〇일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웽그리야 인민 공화국은 一九五四년부터 一九五七년에 이르는 기간에 호를벤졸 생산 제호、 각종 염료 및 무수후탈산을 생산하는 유기 화학 공장、 도량형기 공장、 공장 기계 제작 공장등을 우리 나라에다가 무상으로 설치하여 주게 되였으며 또한 웽그리야 인민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전기 기계、 통신 기구등 각종 원조 물자를 보내 주기로 되였으며 조선에 기술 브리가다를 파견하여 우리의 기능자 및 기술자들을 방조하여 주기로 되였다。 오늘 우에서 말한 공장들은 이미 건설되면서 있으며 웽그리야 기술자들은 각종 건설장들에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웽그리야 인민이 우리에게 주는 계속 부단한 원조는 전쟁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여 주었으며 오늘은 파괴된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완성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고무하여 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량국간의 친선 관계는 더욱 공고 발전되고 있다。

* * *

무궁 무진한 번영과 발전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자유로운 인민 민주주의 웽그리야의 위력은 불패의 힘으로 장성되고 있다。

지난 一〇년 동안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업적들을 총화하는 인민 민주주의 웽그리야 앞에는 양양한 창조적 전망이 열려져 있다。 사회주의 건설의 길——오직 이 길만이 자기들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웽그리야 인민은 더욱 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자기들의 재능과 열성을 다 바치고 있다。

지난 一〇년간에 웽그리야 인민이 달성한 정치、경제、문화적 성과들은 평화、민주、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거대한 기여로 된다。 이 성과들은 웽그리야 근로자당의 옳바른 지도와 위대한 쏘련의 사심없는 원조와 분리할 수 없다。 웽그리야 인민이 달성한 이 모든 성과들은 웽그리야 인민의 완강한 투쟁의 결과이며 창조적 로력의 성과인 동시에 위대한 쏘련의 거대한 원조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다。

전투에서 단련된 웽그리야 근로자당의 령도하에 위대한 새 생활을 창조하고 있는 웽그리야 인민의 앞길에는 더욱 더 거대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

현대 부르죠아 철학의 반동성

리 춘 봉

오늘 맑쓰—레닌주의적、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조선 인민의 지도적이며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되고 있다。 이것은 해방 이후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심각한 사회—경제적 변혁들과 우리 당의 정확한 사상 교양 사업의 결과로서 달성된 거대한 성과이다。

맑쓰—레닌주의 사상、과학적 사회주의 사상이 인민 대중 속에 더 널리 침투되면 될수록、이 사상이 우리의 매개 당원、매개 인민의 움직일 수 없는 세계관으로 되는 것이 빠르면 빠를 수록 사회주의에로의 우리의 전진 운동이 더욱 촉진될 것임은 의심할바 없다。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자연 발생적으로는 발생、발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대중에 대한 새 형의 맑쓰—레닌주의당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활동、그들에 대한 부단한 맑쓰—레닌주의적 사상 교양 사업을 통하여서만 널리 대중 속에 침투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대중에 대한 맑쓰—레닌주의 교양 사업을 당의 가장 선차적인 사업의 하나로 인정하고 그를 진행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특히 오늘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간고하고 장기적인 성격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은 당원 대중과 광범한 비당원 근로자들을 견실한 프로레타리아트적 계급 의식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 반동의 온갖 요언、음모 책동들을 제때에 폭로 분쇄하고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완수할 수 있도록 사상 교양 사업을 가일층 강화할 것을 우리 당에 요구하고 있다。

당원 및 비당원 대중들에 대한 계급적 교양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르죠아 반동 사상 특히 미 제국주의의 반동 사상을 철저히 폭로 분쇄하는 사업이다。 그것은 오늘 국제 반동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지배와 사상적 지배를 목적으로 각양 각색의 반동적인『리론』과『주의(主義)』들을 조작하여 자본주의 세계에 류포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 나라 남

반부에 둥지를 틀고 온갖 반동적 사상——인간 증오、몽매주의、퇴폐주의 사상들을 전파시키며 소위 『미국식 생활 양식』으로써 남반부 인민들을 몽매와 타락에로 몰아 넣음으로써 우리 조국 남반부를 자기들의 『영원한』 예속국으로 전변시키려고 망상하고 있으며 또한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패 타락한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북반부에까지 침투시키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파산에 봉착한 현대 부르죠아 철학은 모든 진보적 사상의 극악한 원쑤로、침략적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 정책의 사상적 무기로 되고 있으며 그들의 침략 정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되고 있다。

독점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팟쇼적 통치를 유지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적 야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수 많은 반동적 이데올로그들을 동원하여 자기들의 충복으로 복무시키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오늘 부르죠아 사상계에서는 매일과 같이 『새 리론』들이 조작되고 있으며 자기들끼리 서로 『론쟁』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대 부르죠아 사상계에는 오늘 생겼다가도 래일 없어지는 단명한 『새 리론』으로부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제국주의자들에게 봉사하는 『권위있는』 『새 리론』에 이르기까지 각종 각양의 류파들이 있다。 그들은 말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리론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러나 변증법적 유물론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다 일치하게 공동 전선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부르죠아 출판물들은 부르죠아 세계에서의 이러한 각종 『리론』들의 『론쟁』을 마치도 『자유 세계』의 사상계의 『활발성』 혹은 『성황』을 의미하는 듯이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선전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르죠아 세계에 소위 『사상의 자유로운 발전』이 있는 듯이 가장해 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기만적 시도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 부르죠아 사회에 다종 다양한 사상적 류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현대 부르죠아 사상이 파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 각종 각양의 사상적 류파는 어느 것을 물론하고——공개적으로 신(神)의 『존재』를 시인하는 철학파나 또는 관념론과 유물론의 『제한성』을 『초월』했다고 떠들어대는 철학파나 할 것없이——철학의 기본 문제를 관념론적으로 해결하며 제국주의자들의 팟쇼적 대내 대외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돌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현대 부르죠아 철학가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수법의 하나는 과학의 성과에 『의거』한다는 명목밑에 극악한 중세기적 또는 팟쇼적 『리론』을 재생시키려고 하는 그것이다。

현대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맑쓰—레닌주의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그를 반대하여 나선다。 맑쓰—레닌

주의의 과학적인 사상 앞에서 완전히 무력하게 된 그들은 맑쓰주의를 반대하는 자기들의 투쟁을 용의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과 맑쓰—레닌주의 명제들을 외곡하며 허위를 날조하여 이것을 맑쓰주의라고 선전하면서 그에 대하여 『비판』을 전개한다。

우리는 부르죠아 사상가들의 이 모든 반동적 시도들을 세계 반동의 중심인 미 제국주의 사상계에서 실례를 들면서 비판하기로 하자。

* * *

현대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철학의 기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철학에 있어서 기본 문제는 의식의 물질에 대한 관계、정신의 자연에 대한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리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 활동의 지도 원칙에 관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철학의 기본 문제를 관념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억압、침략과 전쟁 도발을 위한 정책 및 방법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옹호、합리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현재 류행되고 있는 인격주의 철학은 一八세기 말기의 독일 관념론자 라이프니츠의 모나도로기야(모나도(單子)——정신적 요소)로부터 그의 사상적 소재(素材)를 빌려온 반동적 철학 조류이다。

인격주의 철학은 세계의 구성 요소로서 라이프니츠의 모나도를 『인격』이란 말로 바꾸어 놓은 것인바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세계는 최고의 『인격』인 신을 수위로 하는 『인격』들의 계층적 구조이라는 것이다。

만약에 인격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세계의 현실적 존재가 정신적인 핵심——『인격』이라고 한다면 인간 생활의 물질적 조건 또는 사회적 생산 관계의 체계는 제二차적인 것으로 되며 그것은 『인격』이 지배하는 속세의 가련한 현상으로만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에서 지배하고 있는 악、폭력、비정당성등을 사회 제도의 변혁에 의하여 청산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착오를 범하게 될것이다。 왜냐하면 인격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개인적 의식이 인간 생활의 기초이며 동력으로 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과업은 외적、물질적 또는 사회적 조건들을 변혁하기 위하여 로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신적 완성을 위하여 로력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인격주의자들은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근로자들에게 정신적 완성을 설교하며 경제적 및 정치적 투쟁을 포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격주의 철학의 대표자 부라이츠만은、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제 모순의 근원은 계급적 착취와 억압、사회적 불평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말하기를 『인격、이것이야 말로 모든

충돌이 발생하는 장소이다…이 장소에서 승리와 패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인격주의자들은 근로자들에게 착취자들과 폭압자들을 반대하여 싸울 대신에 자기의 인격 완성을 위하여 자기 자체와 싸우라고 설교하고 있다。실업과 빈궁、그리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라이츠만은、『현대 사람들은 자기의 리익을 위하여、마땅히 어떻게 되여야 할 그 자기를 위하여 현재의 자기로부터 구출되여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인민들에게 평화를 위하여 전쟁 방화자들을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할 대신에 원자탄 생산자들과 『힘의 정책』의 집행자들의 정신적 완성에 대하여 기대하라고 설교하고 있다。

인격주의자들에 의한 철학의 기본 문제에 대한 관념론적 해석과 그들의 실천적 면모는 대략 이상과 같다。

다음으로 신 토마스주의를 들어 보자。이것은 바찌깐의 철학적 기초이다。

七백여년 전에 봉건 사회에 사상적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창견되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이 현재 썩어져가는 자본주의에 봉사하기 위하여 재생 리용되고 있다。몇 세기 동안 내려 오면서 선진적、과학적 사상과 진보적 사회 운동을 반대하는 악독한 투쟁의 력사를 갖인 카토릭교의 몽매주의가 현재 제국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 무기의 하나로 되고 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신 토마스주의는 철학의 기본 문제를 단도 직입적으로 해결한다。즉 신이 세계의 창조자이며 립법자이며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신의 의지에 의하여 존재하며 신의 리성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이다。이 관념론 철학의 중심 문제는 악에 대한 문제이다。왜냐 하면 만약 이 세계에 신적 리성이 전능적으로 지배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악、비합리성、부당성에 대하여 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신의 전능 또는 신의 무한한 현명성과 이 세계에 존재하는 죄악과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신 토마스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철학적 저술의 하나로서 최근에 뉴욕에서 발간된 파울 지베크의 『악의 철학』이 있다。지베크는 이 철학 조류의 대표자의 한사람으로서 구라파를 떠나서 현재 자기 생활을 가장 풍족하게 보장하여 주는 미국 지배층의 사상적 충복으로서 복무하고 있다。

지베크의 견해에 의하면 사람들의 지상(地上)에서의 생활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러한 의의도 없으며 그들의 현실 생활은 무(無)라고 주장한다。그는 오직 피안(彼岸)의 세계에 있어서만 생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지베크는 『목적은 지상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성에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여기로부터 그는 지상에 있어서의 모든 악을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찬미까지 하고 있다。

지베크는 말한다:『사람은 자기의 고민으로써 악을 선택하는 것이며 또한 희생으로써 자기의 완전한 실현에 도달하며 리상에 접근하며 완성에 접근한다』고。그는 계속하여 『악은 우리 생활에서 그 얼마나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고 감탄까지 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베크의 악의 철학은 인민 대중의 현실 생활의 개선에 대한 지향을 쓸데 없는 락관주의라고 부르면서 그를 무한히 증오한다。지베크의 악의 철학은 인민들이 자기의 생활을 개선하지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더 훌륭한 생활의 희망을 근절하려고 시도하면서 『락관주의는 신의 역할을 저하시키며 유신론(有神論)과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지베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물건들이 더 훌륭하게 조렵될 수 있는가고 자문하고 다음과 같이 자답하고 있다:『존재하고 있는 경향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처음에 물체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물체의 본질 자체는 신에 의하여 만들어지는만큼 또 그것은 불가변적인만큼 존재하고 있는 세계는 현존하고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조렵될 수는 없다』。

여기로부터 지베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짓는다:『세상에 있는 모든 것、가장 비참한 것、죽엄까지도 인간에게 있어서 선으로 될 수 있다。이 세상에는 절대적이며 회복 못할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신 토마스주의는 제국주의자들의 모든 비인간적 도살 행위、모든 침략적 악행、인류를 반대하는 모든 죄악들을 미화하며 정당화한다。

그리하여 신 토마스주의는 미제 침략자들의 조선에서의 야만적 범죄 행위를 합리화하였으며 인류를 반대하는 원자 전쟁도 악으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오늘 널리 류행되고 있는 철학 조류의 하나인 어의론(語義論) 철학은 인격주의 또는 신 토마스주의 철학과는 달리 자기의 관념론적 본질을 음폐하고 있다。

어의론 철학자들은 철학의 기본 문제를 철학적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답할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단언한다。

어의론자들은 물질과 정신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에 불과한 것이며 철학자들은 이 두 개념을 대립시킴으로써 허위적인 문제를 설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 세상에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례컨대 책상、의자 또는 개별적 인간、동물등 개별적 사물에 대한 지각이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한다。따라서 물질은 모든 다른 추상적 개념과 마찬가지로 감성적

지각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떠들어댄다。 이 점에 있어서 어의론자들은 중세기 유명론자(唯名論者)들의 학설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서 유명론자들의 교시를 완전히 외곡하여 그의 합리적 핵심을 없애버리고 그의 관념론적 요소만을 소생시켜 현대 제국주의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주관적 관념론을 만들었다。

유명론자들은 일반적인 것이 개별적인 것과 독립하여 또 그 이전에、 그밖에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바 그것은 정당하였다。

그러나 유명론자들은 일반적인 개념은 개별적인 물체들간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련관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리해하지 못하였다。

물질은 어의론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허무한 단어가 아니라 다양하게 표현되는 객관적 실재인 것이다。

만약 유명론자들이 개별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을 부당하게 대립시킴으로써 착오를 범하였다면 현대 어의론자들은 이 오유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물체에 대한 개념을 주관적인 관념론의 정신으로써 외곡한다。

유명론자들은 개별적인 물체들의 선차성에 대하여 론하면서 인간의 의식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체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어의론 철학자들은 개별적인 것을 감각의 집합체 또는 주관적 경험의 내용으로 또는 의식 현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인간의 의식 밖에 존재하는 물체의 존재를 부인한다。 어의론자들은 이와 같이 철학의 기본 문제를 실지에 있어서 관념론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어의론자들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로동자 『스미스』와 공장주 『포드』에 대한 지각이 있을 뿐이요、 로동 계급과 부르죠아 계급과 같은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다만 물질에 대한 허무한 개념、 허무한 단어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의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파시즘과 민주주의등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개념들인 것이다。 어의론자들은 이렇게 철학의 기본 문제를 무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그들은 물질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철학의 기본 문제를 관념론적으로 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물질들에 대한 의식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철학의 기본 문제를 맛하주의적、주관적、관념론적 립장에서 해결하고 있다。 어의론자들은 언어의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사고의 불완전성』을 초래하며 따라서 사람들의 상호 몰리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론거로부터 그들은 철학의 『기본 사명은 언어의 완성』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의 모든 충돌과 모순의 원인을

언어의 불완전성에서 찾고 있는 어의론자들은 이 충돌과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리론적 문장론』의 연구라는 『처방』을 제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처방』은 제국주의의 첨예화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음폐함으로써 현대 독점 자본가들의 리익에 복무하기 위한 사상적 무기로 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전쟁의 원인、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간의 계급적 모순의 원인은 언어의 연구가 부족한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거제도에서의 조중측의 포로들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극악한 만행도、 조선의 평화적 주민들에 대한 대량적 학살도、 대만을 강점하고 중국의 해안 지대를 침범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죄악도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정책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과 미국 사람、 중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호상간 언어의 연구를 부족하게 하고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다。 어의론 철학은 이렇게 황당 무계한 론거로써 사실을 외곡하고 허위를 날조함으로써 인민을 기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현대 관념론 철학이 어떻게 제국주의에 복무하고 있으며 또 그가 자유와 해방、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나선 인민 대중을 어떻게 기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가를 미국에서 류행되고 있는 세개의 철학 조류를 통하여 보았다。

* * *

현대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과학적 성과』에 어떻게 『의거』하고 있는가。

현대 부르죠아 사상계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의 하나는 소위 『최후의 과학적 재료가 확증하는 새 리론들』이 등장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 부르죠아 사상계에서 류포되고 있는 이 철학、 사회 학설들에는 새로운 리론、 새로운 학설이란 하나도 없는 것이며 소위 『과학의 성과에 의거한다』는 것은 다만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 『새 리론』들은 세계 제패를 꿈꾸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어리석은 시도를 정치、 경제적 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상적 면에서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독점 자본의 리익에 복무하는 현대 부르죠아 사상가들이 중세기적 몽매주의 또는 팟쇼 리론들을 재생시킨 데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과학의 『성과』에 의거한다는 『새 리론』들이란 어떤 것이며 제국주의자들은 이를 어떻게 찬양하며 받들고 있는가를 몇개의 실례로서 보기로 하자。

一九五三년에 오스틴시 테하스 종합 대학에서 생화학 박사 로쟈 윌리암쓰의 『자유로운 것과 불평등한 것』、 『개성의 자유의 생물학적 기초』라는 저서가 나왔다。

부르죠아 출판물들은、이 저서에서 서술된 사회 학설을 현대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사상계의 『별』이라고 떠들어 댔으며 아이젠하워、버너드 비르흐、죤듀이등 기타 사람들이 흥미있게 읽은 책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생화학자 로쟈 윌리암쓰의 『새 사회 학설』이란 무엇인가。윌리암쓰는 평등에 관한 문제는 현재 세계에서 이 사상적 충돌의 초점으로 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자기의 철학적 과업으로 삼고 있다고 말한다。그는 평등에 대한 사상을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꾸며낸 것처럼 간주하면서 이것을 반미국적 위험한 사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산당、로동당들과 그리고 모든 진보적 사회 력량은 사람들의 권리의 평등을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사회의 진보와 근로자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투쟁을 조직 진행한다。그러나 평등에 대한 문제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창된 것은 물론 아니다。이 문제가 맑쓰 이전의 많은 선진적 사람들에 의하여 제창되였다는 것은 력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실례를 하나만 들어본다면 우선 바로 북미 합중국의 『독립 선언』에는 인간들의 평등에 대한 사상이 다음과 같이 명백히 지적되여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명백한 진리로 간주한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여 있다』고。

생화학자 윌리암쓰가 철학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 외로 한다 치더라도 그가 자기 나라의 멀지 않는 력사까지도 모르고 평등의 사상을 『반미국적』 사상이라고 소리 높이 떠들어대는 것은 소위 새 리론가로서 가련한 일이다。평등의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윌리암쓰의 가장 자랑할만한 『재간』은 생물학적 개념인 『동일성』으로써 사회학적 개념인 평등을 슬적 바꾸어 놓은 데 있다。

그는 자기의 론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사회학설로부터 생리학적 령역에로 론점을 전환시킨다。이러한 수법은 반동 사회학자들의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요、벌써 오래 전에 사회에 관한 진정한 과학에 의하여 폭로 분쇄된 요술인 것이다。윌리암쓰는 인간의 생리학상 『동일성』을 부정하고 인간의 평등은 무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는 자기의 『새 리론』을 전진시키면서 소위 『선발된 사람』들 즉 『자연적、유전적 귀족』들만이 사회에서 무제한한 지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는 이것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 『꾸며낸』 『평등』을 『론박』하였다고 망상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인민을 『창조적 소수』와 『비창조적 군중』으로 나누어 보는 현대 반동적 철학자들이 다 로인비에게서 자기의 사상적 밑천을 빌려 온 것을 숨기고 있으며 자기의 리론적 원천이 악명 높은 괴벨스와 로

젠베르그에 있다는 것을 음폐하고 있다。보는 바와 같이 윌리암쓰의 『새 리론』에는 새로운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으며 독일 파시즘 리론을 재생시킨 데 불과한 것이다。이것은 『과학의 성과』에 의거한다는 구실밑에 극악한 파시쓰트적 인종론을 재생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이다。이것이 과학의 성과에 『의거』한다는 새리론의 진상이다。그러므로 침략적 미국 지배층으로부터 사상계의 『별』이라고 찬양과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 소위 심오한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또 하나의 『새 사회 학설』을 보기로 하자。一九五三년 뉴욕에서 불르밍톤 대학 교수 동물학자 아•킨시의 저서 『녀성의 성적 행동』이 출판되였다。

이 저서는 미국에서 미증유의 쎈세이슌을 일으켰으며 미국의 권위있는 부르죠아 출판물들은 모두 다 이것을 새로운 『과학』의 창건이라고 떠들었던 것이다。잡지 『뉴 리퍼브릭크』는 이를 찬양하면서 『一九五三년은 여러가지 원인으로써 력사에 들어갈 것이다。의심할 바 없이 아•킨시를 중심으로 하는 위대한 성황의 해로서 남을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다른 잡지들은 학자로서 이만큼 인기를 끈 사람은 현대 미국 사회에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 어떤 잡지는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아•킨시가 『만약 출마한다면 틀림없이 당선될 것이다』라고까지 하였다。이 책은 一三개국 언어로 번역 출판되여 一년간에 一천五백만부가 판매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부르죠아 출판물들이 이처럼 떠들어댄 킨시의 『과학적 발견』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그의 『충분하고』『엄격한』재료란 어떤 것인가?킨시의 방대한 『과학적』재료라는 것은 킨시 자신과 그의 『협조자』들이 수집한 유곽에 있는 수천명의 녀자들과 과부들 기타 녀성들의 내면 생활에 관한 담화、내면 생활에서의 어지러운 사건、그리고 수천개의 공동 변소 벽에 써있는 락서들을 사진 찍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다。

킨시는 이와 같은 추잡하고 어지러운 것들에 대한 『통계적 분석』에 기초하여 『사람은 포유 동물의 출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인간 사회는 동물계에서 지배하는 쟝글(밀림——역자)의 법칙과 동일한 법칙에 의하여 발전한다』라고 자기의 철학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그러나 킨시의 이 『견해』는 물론 하등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파산된지 오랜 부르죠아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사람은 날때부터 성욕과 지배욕을 가지며 이것이 인간의 모든 행동의 기본으로 된다』는 견해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미국 지배층과 그의 출판물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과학의 성과』에 『엄격히』의거하는 『새 리론』들의 진

상이란 이러한 것이다。

독점 자본가들과 그들의 비호하에 있는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공산주의와의 투쟁에 있어서 『과학』의 외피를 둘러쓰고 가장 야만적、 침략적인 사상과 썩을대로 썩어빠진 사상적 독소를 인민 대중 속에 침투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 * *

다음으로 현대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맑쓰―레닌주의에 어떻게 조전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아세아와 구라파의 광대한 지역들에서 맑쓰―레닌주의가 실천적으로 승리한 오늘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한 멸망하여가는 제국주의의 리익을 대변하는 부르죠아 사상가들의 증오는 더욱 발악적으로 되여가고 있다。 맑쓰―레닌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 나선 이들은 맑쓰―레닌주의에 대한 『십자군』을 조직하기에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맑쓰―레닌주의를 론박할 아무러한 방법도 발견하지 못하고 단 하나의 상투 수단――외곡의 방법에 항상 의거하고 있다。 우선 이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맑쓰―레닌주의 명제들을 외곡함으로써 그와는 아무러한 공통성도 없는 것을 조작하여 그것을 제멋대로 맑쓰―레닌주의라고 명명해 놓고 그것을 비판함으로써 맑쓰―레닌주의는 『론박』되였다고 떠들어댄다。

이것은 마치 수차(水車)를 적군이라고 불려 놓고 그에 덤벼들었다가 말과 함께 수차로부터 뿌리침을 받은 후에 적군을 격파하였다고 망상한 돈•키호테의 재판이다。

몇개의 실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미국 부르죠아 사상계의 거두 실용주의자 죤 듀이는 그의 저서 『자유와 문화』에서 제四장의 전부를 맑쓰―레닌주의의 『비판』에 돌리였다。 그는 우선 맑쓰―레닌주의를 경제적 결정론으로 규정한다。 그는 『비판의 목적은 이 론의할 수 없는 요인、경제적 요인、이 모든 변혁의 원인으로써 고립시켜 관찰될 때 무엇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는 전제를 설정하고『비판』을 시작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쓰―레닌주의의 창시자들은 경제적 결정론을 소박한 유물론으로、 맑쓰주의의 원쑤로서 비판하였으며 경제적 토대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상부 구조의 위대한 역할에 대하여 재삼 강조하였다。

듀이는 다른 부르죠아 반동 사상가들과 같이 또 하나의 외곡을 감행한다。 그는 맑쓰를 한편으로 하고 레닌、쓰딸린을 다른 편으로 하는 『두개의 원칙적으로 상이한 리론』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면서 『순수한 맑쓰주의 리론』과 레닌、쓰딸린의 『극단론』을『구별』하면서 마치 맑쓰와 맑쓰주의를 『쏘베트주의』로 부터 『옹호』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것이 순전한 수정주의적 외곡이라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

다。 특히 그는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혁명 시대의 맑쓰주의로서의 레닌주의에 대하여 극악한 증오를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레닌주의의 기치하에 쏘련 인민과 구라파 및 아세아의 인민 민주주의 국가 인민들은 자본주의 체계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로 나아가고 있으며 자본주의 세계에 있어서도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공산주의 운동이 앙양되여 자본주의 체계의 근저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들이 미제가 강점하고 있는 남조선에서 조국의 통일 독립을 갈망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에게 얼마나 악독한 사상적 독소를 전파시키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는가를 남조선의 출판물들에 나타난 몇가지 실례들을 통하여 보기로 하자。

남조선에서 발간되는 잡지 『사상계』 一九五三년 八호에 게재된 론문 『맑쓰주의와 심리학』(저자 안드룹 스카트、 역자 전 태섭) 에서 스카트는 맑쓰―레닌주의의 불합리성을 말하면서『맑쓰와 엥겔쓰의 착오는 그들이 인간을 경제적 환경에 있어서 생산품과 전연 동일하게 간주한 데 있다』고 썼다。

물론 이러한 것은 맑쓰、 엥겔쓰의 사상과는 아무러한 공통성도 없는 허위 날조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인간을 상품 또는 한개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보통 현상이다。 독점 자본가들의 대변자인 스카트는 인간에 대한 배려를 최고 원칙으로 하는 맑쓰―레닌주의를 외곡함으로써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의 사회적 모순、 죄악들을 음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맑쓰―레닌주의에 넘겨 씌우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동 잡지에 게재된 론문『공산주의론』에서 필자 김 재준은 맑쓰―레닌주의에 대하여 갖은 무근거한 비난을 퍼부으면서 역시 공산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것을 공산주의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 그는 사회주의에서의 독재에 대하여 말하면서 『「독재」는 권력욕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사코 잃지 않을려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상에는 각이한 독재가 존재한다。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에는 프로레타리아 독재 또는 인민 민주주의 독재가 존재하며 남조선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에는 부르죠아 독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또는 인민 민주주의 독재는 다수의 인민의 극소수 착취자들에 대한 폭력에 의거하는 지배를 의미하며 부르죠아 독재는 극소수의 통치자들의 절대 다수의 인민에 대한 폭력에 의거하는 착취와 압박을 의미한다。 바로 김 재준이가 말하고 있는 『독재』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남반부 인민

들의 혁명적 력량이 장성하는 조건하에서 단말마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는 리 승만 도당의 전제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음폐하기 위하여 그는 무모하게도 죄악에 찬 전제주의를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에 뒤덮어 씌우려고 시도한다. 현대 부르죠아 사상계에 있어서는 몇백번 몇천번 맑쓰주의는 『론박』되였다고 떠들었으며 또 떠들어 대고 있다. 그러나 맑쓰—레닌주의는 부단히 발전하며 승리하고 있다. 그것은 맑쓰—레닌주의가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프로레타리아트와 모든 근로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 * *

오늘 조선 인민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의 가리키는 길을 따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의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고 있다. 이 투쟁은 우리 나라의 남반부를 미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우리 나라 남북반부의 상이한 발전 로선의 모순이 첨예화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대중 특히 당원 대중 속에서의 프로레타리아적 계급적 교양의 강화를 위한 당 사상 사업에 있어서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에 대한 비판 폭로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사상 투쟁을 더욱 날카롭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첨예화된 사상 투쟁에서 우리 당은 우리 나라의 령도적 계급인 로동 계급의 청소성과 농민들의 정치적 단련의 미약성을 타산하여 당원 대중과 비당원 근로자들을 혁명적, 프로레타리아적 계급 의식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는 남반부로부터 침입하는 반동적 사상을 막아 내고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의 사회주의적 계급 교양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것을 교시하였다.

우리 당의 계급 교양 사업에 있어서 특히 오늘의 정세하에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은 부르죠아 반동 사상을 폭로 분쇄하는 문제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 부르죠아 사상은 그 사조와 류파는 각양 각색이나 그러나 모두가 자국의 절대 다수의 근로 대중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가장 비인도적인 착취와 억압을 합리화하며 근로자들의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중세기적 몽매주의를 전파하고 있다.

현대 부르죠아 사상은 약소 민족에 대한 가장 야만적인 침략 정책과 만행을 감행하기 위하여 실지 생활

에 의하여 이미 격파된 팟쇼적 인종론을 재생시키고있다

현대 부르죠아 사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부르죠아지의 리해의 반영 이다. 그것은 위기에 봉착한 자본주의가 인간의 모든 건전한 지향을 반대하고 극단의 타락과 부페에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부르죠아 사상의 극악한 독소로써 남조선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마비시키며 도덕적으로 부페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 사회의 사상 전선의 약한 고리를 틈타서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침입시키려고 갖은 악랄한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부르죠아 반동 사상을 제때에 폭로 분쇄하는 것은 근로 대중 특히 당원 대중 속에서의 계급적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 사상 전선에 종사하는 일군들은 이 고리를 더욱 튼튼히 틀어잡아야 할 것이다.

맑쓰주의적 재생산 리론의 외곡을 반대하여

이·도로쉐브
아·루댠쩨브

맑쓰—레닌주의 창시자들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구명된 재생산 리론은 맑쓰—레닌주의 정치 경제학의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 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이 리론은 자본주의적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여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로동 계급과 그의 당을 무장시키고 있다。재생산에 대한 맑쓰주의 리론의 기본 명제들은 자본주의적 사회 구성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이 명제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완전히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생산의 제一부문과 제二부문간의 호상 관계(Ⅱc에 대한 Ⅰv+Ⅰm)에 대한 맑쓰의 공식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한 브·이·레닌의 말은 알려져 있는 바이다。재생산에 관한 맑쓰의 도식은 결코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모든 사회 구성태 특히 사회주의적 사회 구성태에 대하여서도 타당한、재생산에 관한 일련의 기본적인 명제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 이·브·쓰딸린의 말도 역시 알려진 바이다。

맑쓰주의 재생산 리론은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 즉 생산 수단 생산에 지출되는 사회적 로동의 몫의 계통적 장성이 온갖 확대 재생산의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생산을 확대(말의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축적」)하려면 우선 생산 수단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따라서 또 생산 수단을 제조하는 사회적 생산 부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전집 二권 一三七페지)。바로 이 때문에 맑쓰—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소비품 생산에 비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

성을 자본주의하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하에서도 작용하는 확대 재생산의 경제 법칙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쏘련 공산당은 이 중요한 맑쓰—레닌주의의 리론적 명제를 자기의 총로선의 기초로 삼았다。그리하여 쏘련 공산당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길에서와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점차적으로 이행하는 길에서 중공업의 결정적 역할과 경공업 발전을 릉가하는 중공업 발전의 더욱 급속한 템포의 필연성에 관한 레닌、쓰딸린의 교시에 의하여 향도되고 있다。바로 이것이 쏘련을 강력한 공업 국가로 전환시켰으며 농촌 경리에서의 사회주의 체제의 창설、쏘련 인민의 복리의 계통적 향상、쏘베트 국가와 그의 국방력의 강화를 보장하였다。

쏘련 공산당은 국제 국내 정세를 고려하여 견결히 또 부단히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의 기초로 되는 중공업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중공업 발전의 의의를 약화시키며 당의 총로선을 『수정』하려는 모든 기도들에 대하여서는 그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결정적 타격을 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일부 경제학자들의 론문과 토론들에는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의 합법칙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맑쓰주의와는 아무 공통성도 없는 수정주의적 견해들과 정치적으로 유해한 론의들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하여 주의를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농촌 경리를 급격히 앙양시키며 인민 소비품의 생산을 증대할 데 대한 당과 쏘베트 정부에 의하여 실시된 대책들의 본질을 외곡하면서 사회주의하에서는 확대 재생산을 실현함에 있어서 소비품 생산에 비한 생산 수단 생산의 더욱 급속한 발전이 필수적인 것은 전연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새로 출현한 『리론가들』은 확대 재생산에 있어서의 생산 수단 생산의 우위적 장성에 대한、맑쓰에 의하여 발견된 법칙은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적용되며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의 법칙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증명하려고 시도한다。이 한심한 경제학자들은 생산 수단 생산의 부단하고도 더욱 급속한 장성이 마치도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과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요구에 위반되는듯이 결론짓고 있다。쏘련의 현 조건하에서 생산과 소비간의 불균형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생산 수단의 생산과 소비품 생산의 장성 템포를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지어는 소비품 생산 템포를 더 빠르게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그들은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의 전 기간에 걸쳐 중공업의 더 급속한 발전 템포를 거부하도록 즉 공산주의의 건설에 있어서의 자기의 총로선을 거부하도록 공산당에 권고하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문제는 리론적으로나、정치적으로나

비상히 중요하며 공산주의 건설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에 관련되고 있다。 비록 경제학자들의 적은 구루빠만이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와 같은 견해의 전파는 우리 간부들을 그릇되게 이끌 수 있으며 공산주의 건설 사업에 엄중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와 같은 견해들이 대학의 강좌들에서 설교되고 과학 잡지들에 침투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본질에 있어서 우익 기회주의적인 이 반맑쓰주의적 견해는 무엇으로써 론증되고 있는가? 론증은 다음과 같은 점에 귀착한다。 즉 리윤이 생산의 목적으로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피하게 대중의 궁핍화가 진행된다。 이로 인하여 소비가 생산보다 뒤떨어진다。 거기에서는 생산 수단의 생산이 소비품 생산보다 더 급속히 장성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목적은 수요를 가진 인간이며 이것은 생산과 소비간의 다른 호상 관계를 초래한다。 여기로부터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발전은 마치 자본주의하에서만 확대 재생산의 법칙으로 된다는 듯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 『리론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주의하에서는 두 부문의 동일한 장성 템포 지어는 제二 부문의 더 급속한 장성이 확대 재생산의 기초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맑쓰주의와는 거리가 먼 아주 유해한 이 견해의 가장 적극적 선전자의 한 사람인 예·까찌몹쓰끼는 모쓰크바 재정 대학 정치 경제학 강좌 확대 회의에서 『사회적 생산의 두 부문의 장성 속도의 호상 관계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출연한 보고에 다음과 같이 썼다: 『지어진 리론적 결론들은 실천적 결론도 내릴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데 귀착된다: (1) 사회주의 공업화、과학과 기술의 성과인 인민 경제의 기술적 재장비 그리고 대외 무역의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제一 부문의 더욱 급속한 장성 템포는 객관적으로 필연적이며 불가피한 것이며、(2)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강력한 기술적 토대를 가진 고도로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의 조건하에서는 생산과 소비간에 불균형이 조성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두 부문의 동일한 장성 템포를 가진 확대 재생산이 완전히 가능한 것이며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다。 (3) 나라의 주민들의 소비를 급격히 높이지 않으면 안될 개별적 경우에는 제二 부문의 더욱 급속한 장성 템포하에서도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다』。

자기 보고의 다른 곳에서와 잡지 『경제 제 문제』 편집부에 제출한 론문에서 예·까찌몹쓰끼는 생산 수단 생산의 더욱 급속한 발전 템포는 오직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합법칙성으로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예·까찌몹쓰끼는 자기의 『리론적 연구』로부터 쏘련 공산당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공산당과 로동당들의 정책에 대한 비방을 내포하는 정치적 결론을 짓고

있다。 특히 그는 강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출판물들에서 선전되여 온 바 제一 부문의 더욱 급속한 발전에 대한 명제、즉 제一 부문의 급속한 발전은 객관적 필연성이라고 하는 명제에 언급하려 한다。 그러한 주장은 오직 일정한 호상 관계에만 리론적 기초를 두려는 옳지 않은 시도에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그릇된 것이며 유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주장은 또한 만일에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의무적으로 제一 부문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혀 옳지 않은 방향에로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을 인도하였다。

나는 그러한 명제가 우리 나라와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을 옳지 않은 방향에로 향하게 한 유해로운 명제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예·까찌몹쓰끼는 마치도 맑쓰가 자기의 연구에서 『두 부문의 장성 템포에서의 그 어떠한 합법칙성도 확립하지 않았다』는 듯이 무근거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맑쓰주의적 견해의 다른 옹호자들과 같이 예·까찌몹쓰끼는 자기 견해의 정당성의 론증으로서 재생산에 대한 온갖 종류의 산술적 도식들을 조작해 내고 있다。 그러나 이 도식들은 과학과는 아무러한 공통성도 없는 것이다。 수정주의자들이 언제나 하는 바와 같이 『숫자의 희롱』과 사기적 방법으로써 생산 수단의 우선적 장성에 대한 맑쓰주의적 명제를 론박하려고 그들은 시도한다。 이에 대한 명백한 실례로 되는 것은 레닌이 자기의 저작 『소위 시장 문제에 관하여』에서 인용한 확대 재생산의 유명한 도식을 예·까찌몹쓰끼가 외곡하고 있는 사실이다。 까찌몹쓰끼는 레닌이 인용한 도식을 자기의 견해에 편리하도록 제멋대로 고쳤다。 그리고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에 대한 맑쓰주의적 명제들이 론박되여야 한다는 론의도 바로 이 자의 (恣意)에 립각한 것이다。

이 미숙한 경제학도는 재생산 리론에 대한 맑쓰주의 리론의 가장 기본적 명제의 하나를 훼손하고 쏘련뿐만 아니라 강력한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적 위력의 공고한 기초를 이루는 중공업의 의의를 저하시키려고 시도한다。

예·까찌몹쓰끼에 뒤이어 드·꾸즈네쪼브는 잡지 『경제 제 문제』에 게재된 자기의 론문 『사회주의적 재생산 과정에서의 제一 부문과 제二 부문의 장성 템포의 호상 관계에 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생산 수단의 생산과 인민적 소비품의 생산이 동일한 장성 템포를 가진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은 그 어떤 종류의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보다도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된다。 만일에 제二 부문에 비한 제一 부문의 보다 높은 템포를 가진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이 인민적 소비 수준 장성의 상대적 지연(사회적 생산의 장성 템포와 비교하여)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또 만일에 소비품 생산 장성의 더 높은 템포를 가진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이 다만 제한된 범위에서만, 따라서 그 어떤 제한된 기간에 있어서만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제一 부문과 제二 부문의 동일한 장성 템포를 가진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은 적어도 우리들이 내다 볼 수 있는 전 기간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이 론의들의 사상은 명백한 것이니 중공업의 발전이 마치 인민 소비의 장성을 지연시키며 그렇기 때문에 『내다 볼 수 있는 전 기간』──따라서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의 전 기간──에 있어서 중공업의 우위적이고 앞서나간 발전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쁘·므쓰찌쓸랍쓰끼는 한걸음 더 나아갔다。역시 잡지 『경제 제 문제』에 제출한 론문 『사회주의적 재생산의 몇가지 문제』에서 그는 제二 부문의 더욱 급속한 장성은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요구에 가장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맑쓰주의적 리해를 외곡하고 이 법칙의 공식에 대한 자기류의 해석으로써 엄폐하면서 쁘·므쓰찌쓸랍쓰끼는 『갱사』 공업화에 대한 우경 복고(復古)주의적 설교──이미 四분의 一세기 전에 당이 분쇄한 견해를 재생시키고 있다。쁘·므쓰찌쓸랍쓰끼가 맑쓰주의적 명제들을 비속화한 탓으로 당 출판물에서 정당한 비판을 받은 것이 한두번이 아님을 지적해야 하겠다。

아·빨리쩨브도 역시 반맑쓰주의적 견해의 변호자로서 등장하였다。그는 잡지 『경제 제 문제』 편집부 회의에서 다른 경제학자들의 정당한 견해를 훼방하려 하면서 드·꾸즈네쪼브의 비맑쓰주의적 론문을 옹호하여 나섰다。동시에 아·빨리쩨브는 당의 정책을 그것이 전적으로 의거하고 있는 맑쓰주의 리론에 대립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반맑쓰주의적 견해들이 우리 출판물에서 자리를 차지하였다는 이 중요한 사실에도 주의를 돌리지 않을 수 없다。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잡지 『경제 제 문제』에 관한 일이다。이 잡지의 一九五四년 九월호에는 이·웨꾸의 론문 『사회주의의 경제 법칙들과 쏘베트 국가의 경제 정책』이 게재되였다。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과 계획적 발전 법칙의 요구에 부합되였던 중공업의 강력한 발전 속도의 정책은 현 단계에 와서는 이들 법칙의 요구와 모순되게 되였다』。

잡지 『우크라이나 꼼무니쓰트』 一九五五년 一월호에 발표된 므·게라시멘꼬의 론문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에 관하여』에서도 류사한 비맑쓰주의적 견해들을 볼 수 있다。실례로 저자는 가까운 장래에 소비 재생

산의 장성 템포가 생산 수단 생산의 장성 템포를 릉가할 것이라고 서슴치않고 주장하고 있다。아무 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대비될 수 없는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그는 공산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는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의 생산 수단의 우선적 장성에 대한 명제는 『특수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린다。

므·게라씨멘꼬가 고안해 낸 『특수한 형태』는 무엇 때문에 그에게 필요하였는가? 본질에 있어서는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의 필연성에 관한 맑쓰주의적 공식을 말살하기 위하여서였다。

상술한 보고, 테제 및 론문들의 출현은, 우리의 일부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을 그 어떤 『소비』 법칙으로 리해하는 옳지 못하고 유해한 관념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맑쓰주의를 비속화하는 자들의 모든 론의들은 한 가지 사실 즉 사회주의하에서의 중공업의 보다 급속한 발전의 필연성을 거부하는 데 귀착된다。다시 말하면 이 경제학자들은 공산주의의 물질적 기초의 창설과 우리 나라의 경제적 위력의 가일층의 강화와 그 국방력의 강화를 보장하는 결정적 조건들 중의 하나를 부정한다。바로 이것으로써 그들은 당의 총로선을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재생산에 대한 맑쓰주의 리론의 근본적 명제들 중의 하나를 론박하려는 지향에서 이 한심한 경제학자들은 온갖 종류의 비속화에 매달린다。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에 대한 개념을 생산 수단의 보다 급속한 장성에 대한 개념에 대치시킨다。그들은 이것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여기에서 그들은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을 공업 생산고 총량 중에서의 생산 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의 우세로서 해석한다。그들의 론의는 놀랠만큼 천박한 것이다。례컨대 그들은 만일 사회적 생산의 제一 부문과 제二 부문간의 호상 관계가 가령 七〇대 三〇으로 설정되였다고 한다면 제二 부문을 보다 급속한 템포로 발전시키거나 또는 두 부문을 동시에 발전시키면서도 우리는 제一 부문의 우선적 장성을 보존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한다。이 론의들로부터 생산 수단 생산의 제일차적인 우선적 장성이 반드시 소비품 생산의 장성 템포에 비한 보다 높은 그 장성 템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괴상한 결론이 나온다。제일차적인 우선적 장성이란 보다 급속한 템포 없이는 생각할 수 없으며 우위성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우위성을 부여하는 그 부문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박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소비품 생산에 대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위는 다만 공업 생산고 총량 중에서의 생산 수단의 보다 큰 비중에 있을 뿐이라고 한 테제는 비판을 감당해 내지 못한다。사실 사회적 생산의 제一 부문이 그 생산고의 비중에

있어서 아무리 제二 부문에 대한 우세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제二 부문이 보다 높은 템포로 발전한다면 조만간에 제二 부문은 그 생산고의 비중에 있어서도 제一 부문을 따라서게 되며 앞서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확대 재생산은 고사하고 단순 재생산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이 괴상한 견해의 저자는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부단한 기술적 진보의 기초우에서 완성되는 확대 재생산은 제二 부문에 대한 제一 부문의 항구적인 우위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 우위는 만일 그것을 맑쓰주의적으로 리해한다면 총 생산물중에서 생산 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상의 우세에 귀착될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에 귀착된다. 오직 제一 부문을 보다 높은 템포로 발전시킴으로써만 자기 자신의 물질적—기술적 기초와 함께 인민 경제의 기타 모든 부문들의 물질적—기술적 기초의 부단한 확대와 갱신을 보장할 수 있다. 이것이 사회의 경제적 진보의 선차적 조건이다.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에 관한 맑쓰주의적 명제에 대한 비판은 본질에 있어서 온갖 진보의 적이다.

생산 수단 생산의 보다 급속한 발전 법칙을 론박하려는 시도하에서 이 경제학자들은 흔히 一九五三년의 례를 들고 있는데 그들은 그해에 마치 당의 경제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여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을 거부하게 된 것처럼 보고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 건설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농촌 경리의 급격한 앙양과 인민 소비품 생산의 증가에 대한 심중히 고려된 당의 조치들을 당의 이전의 모든 정책에 대치시키고 있는바 그들은 마치 당의 이전의 모든 정책이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요구에 모순되였다는듯이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당에 대한 비방이다. 농촌 경리와 인민 소비품 생산의 급격한 앙양을 지향하는 당과 쏘베트 정부의 조치들은 당의 총로선에서 흘러 나오는 것이며 이 로선의 가일층의 실현인 것이다.

이 조치들은 중공업과 그의 심장인 기계 제조 공업의 전면적 발전에 의거하고 있으며 생산 수단 생산、우선 생산 도구 생산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한다. 바로 생산 수단 생산 즉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의해서 인민적 소비를 향상시킬 과업을 해결할 수 있다.

쏘베트 경제에서의 제五차 五개년 계획에는 진정으로 새로운 것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리론가들』은 그것을 필요한 곳에서 찾지 않는다. 새로운 것이란 국가가 제四차 五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종전에는 그를 해결할 조건이 없었던 새 과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더욱 큰 규모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였다는 데 있다. 특히 원자 에네르기 소유의 실천적 제일보 및 새로운 위력있는 동력 체계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공업의 기술적 수준은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였다. 농촌 경리의 모든 부문들이 앙양되고 있으며 처녀지와 황무

지의 거대한 면적이 개간되고 있다. 경공업과 식료품 공업이 현저히 확장되고 있다. 사실들은 쏘련이 자기 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의 필수성을 페기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더욱 더 높은 단계에로의 차후의 이행을 위한 그러한 장성을 요구한다. 농촌 경리의 급격한 앙양과 인민 소비품 생산의 증가에 대한 당의 조치를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에 대한 거부와 같이 묘사하려는 시도는 당의 정책을 외곡하는 것이다.

* * *

맑쓰—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사회적 생산의 두 부문의 호상 관계에 관한 문제의 깊은 리론적 해명을 주었다. 우리들이 론의하게 되는 몇몇 경제학자들의 반맑쓰주의적 견해와 관련하여 사회적 생산의 두 부문의 호상 관계에 관한 맑쓰—레닌주의 창시자들의 리론적 명제를 상기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 맑쓰는 자본주의적 재생산을 연구함으로써 처음으로 사회적 생산과 총생산물을 두 부문 즉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품 생산으로 구분할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기초지었다. 이것은 순수한 리론적 연구의 결과인 것은 아니였다. 맑쓰는 객관적 현실 자체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의하여 이 명제를 이끌어 냈다.

맑쓰는 모든 생산물 따라서 모든 사회적 생산은 두 개의 큰 부문 즉 생산 수단과 소비품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밝혀주었다. 생산 수단、이것은 로동 도구와 로동 대상이다. 로동력은 그와 결합됨으로써 생산 과정을 실현한다. 생산 수단은 그 자체로서는 개인적 소비 대상으로는 될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생산적 소비에만 들어갈 수 있다. 반대로 소비품은 개인적 소비와 의、식、주 기타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직접적인 용도를 가지는 것이다.

생산 수단은 물질적 부(富)의 생산의 필수적 조건이다. 로동 도구의 발전 수준은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 수준과 자연력의 정복 정도의 중요한 지표로 된다. 사회는 생산 수단으로써 더 잘 장비되면 될수록 생산의 가일층의 확대를 위하여서와 사람들의 개인적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더욱 많이 물질적 부를 생산할 수 있다.

맑쓰는 사회적 생산과 총생산물이 두 부문에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확정함과 동시에 이들 두 부문의 변증법적 호상 련관과 합법칙적 호상 관계의 필연성을 밝혔다. 맑쓰는 단순 재 생산의 조건이 일정한 등식(等式)이라는 것을 확정하였는바 이 등식에서 제一 부문의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의 총화는 제二 부문의 불변 자본과 상등(相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합법칙성은 Ⅰ(v+m)=Ⅱc라는 공식으로써 표현된다.

자본주의에서는 확대 재생산이 특정적이다. 확대 재

생산의 분석에서 맑쓰는 단순 재생산에서와는 다른 합법칙성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다。 그는 자기의 확대 재생산 도식에서 축적의 과정이 가져오는 변화를 묘사하였다。 축적은 확대 재생산의 유일한 원천이다。 그것은 사회의 순소득의 일부가 로동력과 생산 수단의 확대 재생산을 위하여 예정된 추가적 생산 수단과 추가적 소비품의 현물 형태로써 미리 생산되는 조건하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생산 과정이 확대되는 규모에서 반복되기 위하여서는 총생산물의 기본적 제 요소간의 다른 호상 관계와 그의 다른 구조가 필요하다。 확대 재생산의 출발 조건은 Ⅰ(v+m)>Ⅱc라는 호상 관계이다。

이것은 제一 부문에서의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의 총화가 제二 부문에서의 불변 자본보다 더욱 급속히 장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제一 부문에서는 제一 부문과 제二 부문에서 소비된 생산 수단의 단순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생산 수단이 생산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있어서 제二 부문에서의 축적의 가능성은 전적으로 제一 부문에서의 축적의 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 단순 재생산과는 달리 확대 재생산은 사회의 순소득의 전부가 개인적 소비 폰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소득의 일부는 확대 재생산에 돌려진다: 즉 생산적으로 소비된다。

맑쓰에 의하여 도출된 자본주의적 확대 재생산의 합법칙성은 사회적 생산 장성의 객관적 과정을 반영한다。 이 합법칙성은 무엇보다도 생산 수단 생산에 들어가는 사회적 로동의 몫이 소비품 생산에 들어가는 몫에 비하여 더욱 더 장성하여간다는 데 있다。 자본주의 조건하에서의 생산 수단 생산의 보다 급속한 장성의 경향은 가변 자본에 비한 불변 자본의 더욱 급속한 장성의 형태로써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有機的 構成)의 제고의 형태로써 나타난다。 가급적 큰 잉여 가치의 생산이 그 추동력으로 되여 있는 이 과정은 실업자의 장성과 로동 계급의 생활 수준의 저하에로 이끌어간다。

레닌은 새로운 력사적 조건하에서 인민파와 싸우면서 사회적 생산의 두 부문의 호상 관계에 관한 맑쓰의 명제를 가일층 발전시켰다。 사회적 생산물의 실현에 관한 인민파의 견해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레닌은 맑쓰의 도식들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장성과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야기되는 변화의 영향을 명시하였다。 재생산에 대한 레닌적 분석은 소비품 생산에 비한 생산 수단 생산의 더욱 급속한 합법칙적 장성에 관한 맑쓰의 명제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구체화하고 있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장성을 타산하는 도식들에 대한 고찰을 총화하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생산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 생산과 다음으로 소비재를 위한 생산 수단 생산이 더

욱 급속히 장성하며 소비재 생산은 더욱 완만하게 장성하는 것을 보게 된다』(전집 제一권 七一페지)。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맑쓰의 도식들을 인용하면서 마치도 맑쓰—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일반적으로 제一 부문의 보다 급속한 장성을 기술적 진보와 결부시키지 않은 것같이 주장한다。 이 날조는 마치도 사회주의의 조건하에서는 기술적 발전이 중공업을 보다 급속한 템포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는 것처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들은 이와 같은 날조를 론박하고 있다。 맑쓰—레닌주의 창시자들은 기술적 진보가 생산 수단 생산의 강력하고도 더욱 급속한 발전을 요구한다는 것을 루차 강조하였다。 이것은 기계의 생산과 또한 무엇보다도 우선 석탄、철、금속과 같은 기계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생산 수단 생산이 더욱 더 큰 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레닌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들은 진정한 『생산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들』인 것이다。 이 레닌적 명제들은 공산주의 사회 구성태에도 전적으로 타당하다。

맑쓰주의 정치 경제학은 모든 사회에서의 재생산 과정의 일반적 특징을 밝힘과 동시에 또한 각이한 사회에서의 이 과정들의 심각한 차이를 확정한다。 경제적 제 조건의 차이가 매개 사회 구성태에서의 재생산 과정의 특수성을 제약한다는 것은 완전히 명백하다。 사회주의하에서의 확대 재생산은 자본주의적 확대 재생산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지 않을 수 없다。 후자에 있어서는 맹목성、주기성、중단성 및 대다수 주민의 빈궁과 소수 착취자들의 부(富)간의 심연의 가일층의 심각화가 특징적이다。 자본주의적 확대 재생산은 생산과 소비간의 적대적 모순의 심각화를 의미한다。 생산은 주기적으로 소비로부터 괘리(乖離)된다。 리윤 추구에 날뛰는 자본가들은 시장 용적의 한계를 넘어서 생산을 발전시키며 불가피적으로 사회를 주기적 과잉 생산 공황에로 밀어 넣는다。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매개 새로운 주기마다 새로운 기초 우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 재생산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하에서의 확대 재생산은 자체내에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의 심각화、그 몰락과 멸망의 근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이것은 사회의 점차적인 상승의 길이며 공산주의에로의 그의 부단한 앙양 및 확고한 전진의 길이다。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은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과 인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 법칙의 요구에 상응하여 그에 고유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의 법칙에 의하여 수행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며 그것이 전체 사회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의 최대한의 충족

이라는 목적에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목적은 오직 높은 기술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생산의 부단한 장성 및 개선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이 과업의 해결에 대한 열쇠는 중공업과 그의 심장인 기계 제조 공업이다。 확대 재생산에서의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에 관한 맑쓰—레닌주의적 명제의 반대자들은 바로 이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맹목성과 주기성과 공황이 제거되여 있다。 여기에서는 계급적 적대와 함께 생산、 소비 및 축적간의 적대도 역시 제거되였다。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에 있어서는 사회적 생산의 모든 부문과 그의 모든 부면 즉 생산、 분배、 소비 및 축적을 포괄하는 전반적 앙양이 특징적이다。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착취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근로자들의 동지적 협조와 호상 원조—의 가일층의 발전과 개선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사회는 인민 경제의 발전 템포를 규정하며 각이한 제 부문 및 제 령역간의 균형을 설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요구에 부합되며 사회의 가일층의 전진 운동을 보장하는 생산과 소비、 소비와 축적간의 그러한 균형을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인민 경제와 같은 복잡한 기구를 계획적으로 지도함에 있어서 출발점으로 되는 것은 사회적 생산의 두 부문 즉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간의 호상 관계이다。 이것은 비단 리론상 근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혁명적 실천의 근본 문제이다。

공산주의와 높은 기술에 기초한 대기계 생산은 분리시킬 수 없다。 이미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더우기 공산주의의 첫 단계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기술적 진보를 위한 객관적 조건들이 조성된다。 그러한 진보、 로동 도구의 부단한 증가 및 그의 개선의 필연성은 자연적으로 사회적 생산의 제一 부문과 제二 부문간의 균형을 규정한다。 오직 이것만이 로동 생산성의 부단한 제고의 가능성과 따라서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회에 준다。

로동 생산성의 부단한 장성—이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자연적 필연성이다。 이는 오직 일꾼들의 기능 향상과 생산 기술의 창조적 습득과 중요하게는 새롭고 더욱 생산적인 기술로써의 근로자들의 장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사회적 생산의 제一 부문인 생산 수단 생산은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에 높은 템포를 보장하면서 이와 같은 높은 기술을 인민 경제의 전체 부문에 제공할 수 있으며 또 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사회적 생산의 제一 부문의 장성 템포가 제二 부문의 장성 템포보다 더욱 빨라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당은 중공업을 전진시키면서 무엇보다도 로동 생산성의 장성이 결국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데 대한 레닌의 강령적 명제로부터 출발한다。 공산주의의 최고 단계에로의 이행은 로동 생산성의 가일층 거대한 장성을 요구하는바 오직 그것으로써만 생산물의 풍요를 달성할 수 있다。 로동 생산성의 그와 같은 장성은 또한 기술의 무한히 높은 수준、 기계에 의한 수로동의 교체、 자동화、 모든 로동 과정의 전기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중공업을 백방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그 수준에 있어서 현재보다 무한히 더 높은 물질적 기초를 창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기초를 창설하는 것은 오직 제一 부문의 우선적 장성의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공업、 우선 중공업—석탄、 금속、 화학、 기계 제조、 전력 및 기타 부문에 더욱 더 장성하는 규모로써 생산 수단을 보장하여야 한다。 오직 이 부문들의 제一차적인 발전만이 제二 부문에 더욱 장성하는 규모에서 생산 수단을 보장할 가능성을。 주는 것이며 그것은 또 장성하는 사회의 수요를 더욱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비품 생산을 계통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게 한다。 그러한 정책은 진실로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요구에 부합되는 것이며 생산의 목적과 그의 실현 수단과의 통일을 고려한 것이다。 우리의 한심한 리론가들은 자기들의 리론 구성에서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적과 그의 실현 수단을 분리시키고 있다。 그들은 이 필요한 통일을 파괴하고 있으며 그리함으로써 사회주의를 소비적으로 리해하는 데로 떨어지고 있다。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은 비단 풍부한 생산물 뿐만 아니라 또 도시와 농촌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기술적 수준을 요구하며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간의 본질적 차이의 청산도 요구한다。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은 로동자 농민들의 문화—기술적 수준 제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제一 부문에서 조성되는、 부단히 완성되여가는 기술이 없이는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

더우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날 쏘련은 혼자가 아니고 제 인민간의 평등과 친선적 호상 방조에 기초한 국가들의 호상 관계내에、 공고하여가는 사회주의 진영 체계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의 거대한 의의이다。 이 진영에서는 그의 사회적 성질 자체로 보아 일부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의 농업—원료 공급지에 불과하게 되여 자기 나라에서 중공업을 발전시키지 않는다 (자본주의하에서 그러한 바와 같이)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도 없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는 자기 경제의 특수성에 상응하게、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의 기타 나라들의 경제적 발전을 타산하면서 자기의 중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선두에 서고 있는 쏘련은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중공업 건설에 있어서 그 나라들에

게 친선적 방조를 주지 않을 수 없다。 이 방조는 우리의 국제주의적 의무이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지위를 강화한다。 이로부터 우리들이 비판하는 경제학자들이 드러내 보이고 있는 중공업 발전에 대한 경시(輕視)가 얼마나 당의 정책에 무관계하며 또 유해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오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 두목들이 국제 정세를 첨예화하며 새 세계 전쟁을 열광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공산주의에로의 인류의 전진을 저지시키려고 기대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쏘련은 평화를 위하여 철저하게 투쟁하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나라들과 같이 자기의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부단히 장성하는 중공업의 위력은 쏘련의 국방력 강화의 필수적 조건이다。 이것을 『잊는다』는 것은—자본주의 진영의 면전에서 우리 나라를 무장 해제된 나라로 남아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맑쓰주의적 재생산 리론에 대한 수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스콜라적 실습(實習)에서 쏘련에서의 공산주의 건설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일체 내외적 조건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건들을 타산함이 없이는 사회적 생산 부문들간의 호상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회적 생산의 두 부문의 가장 합목적적인 호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강령적 명제들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사회의 운동의 일체 경제 정치적 제 조건과 사회 발전의 성숙된 제 요구를 타산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맑쓰주의 리론도、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경험도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이 없이는、 중공업의 더욱 급속한 발전이 없이는 새 사회의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경제적 법칙이다。

오직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에 기초하여서만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고 제二 부문의 제 령역을 끌어 올릴 수 있으며 이 령역들의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객관적 가능성이 나타나는 때에 그 장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의 법칙으로서의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인 장성 템포는 결코 개별적 년도들에 있어서의 제二 부문의 우선적 장성의 촉진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와 함께 중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제 조건을 조성하는바 중공업은 이번에는 소비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 수단의 생산을 더 확대한다。 두 부문의 호상 련관의 이 변증법을 가련한 경제학자들은 또한 리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소비품 생산을 확대할 데 대한 당과 정부의 대책들을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에 대한 로선의 거부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대책들은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을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서 내포하고 있는 당의

총로선 밖에서 관찰할 수는 없다。

만약에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을 이 새로 나타난 『리론가』들이 하듯이 一、二년을 두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간 더 장구한 기간(경제학자들은 재생산 문제를 다만 그와 같이만 연구하여야 한다)을 두고 관찰한다면 소비품 생산의 장성에 비하여 생산 수단 생산의 더 급속한 발전에 대한 도표가 명백하고 확증적으로 그려질 것이다。

쏘련에서 一九五三년도 대공업의 총생산액은 一九一三년에 비하여 三〇배(대비 가격으로)로 장성하였는데 생산 수단 생산은 五〇배 이상으로 장성하였다。 쏘련의 공업 총생산 중에서 생산 수단 생산의 비중은 一九二四—一九二五년에는 三四%、 一九三七년에는 五八%、 一九五三년에는 약 七〇%를 차지하였다。 제五차 五개년 계획의 三년(一九五一—一九五三) 동안에 공업 생산의 전체 장성은 四五%인데 생산 수단 생산은 四六% 장성하였으며 소비품 생산은 四三% 장성하였다。 一九五〇—一九五三년 동안에 중공업 생산은 용량으로 三、四배로 확대되였는데 공업 총생산은 二•八배로 확대되였다。 제二 부문 생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이 부문에서의 생산의 일반적 수준과 절대량은 전쟁전 一九四〇년보다 훨씬 더 높다。 왜냐 하면 현재의 증가 비률은 각각 절대적으로 큰 량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당에 의하여 확고하게 실현되고 있는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발전을 증명하여 주는 사실들은 이러하다。 오직 이에 기초하여서만 전체 인민 경제의 전반적 앙양과 소비품 생산의 부단한 확대를 보장할 수 있었으며 당은 실지로 이를 보장하였다。 현 단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민 소비품 생산의 증가를 위한 당과 정부의 대책들도 역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발전에 의거하고 있다。 이 대책들은 당의 총로선의 구성 부분이며 계속이다。

* * *

당에 의하여 폭로되였으며 완전히 분쇄된 우경 기회주의적 『갱사』 공업화의 구호를 재생시키고 있는 부분적 경제학자들의 이 죄악적인 견해는 당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배척된다。 이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반맑쓰주의적 발언을 태연하게 묵과하였으며 이 발언들에 대한 자기의 사업상 동지들의 정당한 비판을 지지하지 않고 침묵하였으며 리론적으로 완전히 파산적이고 정치적으로 유해한 주장에 타격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어는 맑쓰주의를 비속화하는 이들에게 연단까지 제공한 편집자들과 강좌장들의 립장은 참으로 리해하기 곤난하다。 사회주의의 리론적 및 정치적 립장의 강화에로가 아니라 그의 약화에로 이끄는 이 견해들의 재현은 이 일꾼들의 관대성과 타협성으로써만

설명할 수 있다.

당은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대중의 위대한 경험을 일반화하는 기초 우에서 맑쓰—레닌주의의 경제 리론을 심화 발전시키라고 과학 간부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 문제의 연구와 우리 나라의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에 대한 구체적 방도의 연구는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쏘베트 경제학자들 앞에는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 문제들에 관한 창조적 연구의 광범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그들의 노력은 현실적인 제마의 연구에 돌려져야 하며 당의 거대한 경험과 력사의 진정한 창조자인 인민 대중의 경험의 일반화에 돌려져야 한다.

리론은 우리들에게 전진의 길을 밝혀주며 목표에로의 우리들의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시키며 그 운동을 촉진시킨다. 당의 교시를 실천하면서 우리들은 공산주의 건설의 모든 사업 지도의 과학적인 기본이며 우리 승리의 강력한 무기인 맑쓰—레닌주의 리론의 온갖 외곡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꼼무니쓰트』 一九五五년 二호에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프·단꼬브제브

맑쓰—레닌주의의 창시자들은 인류 사회 발전법칙의 과학적 인식에 의거하여, 자본주의의 다음에는 공산주의가 도래하는바 공산주의의 첫, 낮은 계단은 사회주의 사회라는것,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오직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는 것을 확정하였다. 그들은 과도기의 기본적 리론 문제들을 연구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구체적 방도를 규정하였다.

자본주의의 발전 자체는 그에게 고유한 경제 법칙에 기초하여 불가피적으로 그의 혁명적 붕괴를 초래한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분산적인 생산을 사회적 생산으로 전환시켰다. 생산의 사회적 성격은 점유의 사자본주의적 형태와의 충돌에로 이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로동과 자본간의 적대적 모순을 심각화하며 부단히 격화시키며 로동 계급이라는 새로운 혁명적, 사회적 력량을 창조한다. 사회적 생산의 결정적 요소이며 사회의 가장 선진적 계급인 프로레타리아트는 력사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며 자기의 투쟁에서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의 요구에 의거하면서 혁명적 방법으로써 낡은 생산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생산력 성격에 적응하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수립한다.

사회주의 혁명은 생산력 발전의 질곡으로 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폭력적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로써 그를 대체하며 착취 계급이 없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새로운 사회를 건립하는 데로 이끈다. 이러한 임무는 생산 관계에서 전환을 완성한 다른 계급들에 의하여 일찌기 제기된 적이 없었다. 선행한 모든 혁명의 목적은 이러 저러한 착취 형태를 청산하는 데 국한되였다. 그런데 프로레타리아 혁명은 온갖 착취의 청산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에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과거의 모든 혁명에 대한 기본적 특성, 원칙적 차이가 있다.

이로써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다른 특성도 규정되는

바 그것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은 기성의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전혀 없는 조건하에서 시작되여 그를 창설하는 시초를 놓는데 있다。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는 오직 부르죠아 국가 기구의 혁명적 박멸、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수립、 생산 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의 수탈과 그의 국가적、 사회주의적 소유에로의 전환의 기초 우에서만 발생하며 발전한다。 프로레타리아 국가는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객관적 경제 법칙과 사회주의적 소유의 토대 우에서 산생한 새로운 경제 법칙의 요구에 의거하여 새로운 사회주의적 경제 건설의 령도자로 나선다。

* * *

사회주의의 경제적 토대를 창설하며 생산력의 강력한 발전을 보장하는 과업은 과도기를 통하여 해결된다。 이 시기에 로동 계급은 농민과 동맹하여 자본주의적 토대의 종국적 청산、 전체 인민 경제 부문에서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창설、 발전 및 강화를 위하여 거대한 혁명적、창조적 사업을 진행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국가는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며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 새로운 기술적 토대를 도입하며 대규모적 기계 생산의 기초 우에서 그를 재건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국가는 새로운 방식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련계를 조정하며 대규모의 사회주의적 생산의 새로운 길에로의 소규모적 및 가장 소규모적 농민 경리의 이행을 보장하며 근로자들의 대렬내에서 새로운 인테리겐챠를 육성한다。

그러므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필연성은 사회 발전의 객관적、 경제적 요구에 의하여 규정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과도기에 있어서 낡은 생산 관계를 제거하고 새로운 생산 관계를 확립하는 사업에서 거대한 역할을 논다。

프로레타리아트에게 국가 주권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면에서 그를 리용하기 위해서이다: 첫째로 착취 계급에 대한 진압、 나라의 방위、 다른 나라 프로레타리아트와의 련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며、 둘째로 부르죠아지로부터의 근로자들과 피착취 대중의 종국적 분리、 피착취 근로 대중과의 프로레타리아트의 동맹의 강화、 사회주의 건설에의 그들의 인입을 위하여 필요하며、 세째로 사회주의 건설、 계급의 청산을 위하여 필요하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이 세개 방면은 통일된 전일체이며 통일된 과정의 몇개의 측면인 것이다。

공산당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본적 령도적 력량이며 지도적 력량이다。 자기의 모든 실천적 활동에서 공산당은 가장 선진적인 맑쓰-레닌주의 리론에 의하여 지도되며、 객관적 경제 법칙에 의거하고 있다。 공산당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을 령도하며 프로

레타리아트 대렬의 행동 통일을 보장하며、 대중을 재교양하며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하며 그들에게 대한 지도를 실행하며 착취자들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비타협적 로선을 실시하며 계급적 원쑤들의 음모에 대하여 대중 속에 경각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공산당은 프로레타리아 독재 국가의 일체 경제-문화적 창조적 활동을 향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 생활양식을 건설함에 있어서 근로 대중의 조직자 및 령도자로 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국가는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의 요구로 부터 출발하여 인민경제의 지도적 부문을 근로자들의 수중에 넘긴다。 즉 그는 공업、 은행、운수 및 체신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국유화를 실시한다。 이로부터 자본주의의 기본적 모순——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사자본주의적 형태 간의 모순을 폐절하고 생산력 성격에 완전히 적응하는 사회주의적 소유 형태를 확립하며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경제적 토대를 축성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국가는 외래 자본가들의 소유를 수탈하며 예속적인 외채(外債)를 폐지하며 대외 무역을 독점하여 이로써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국가로 하여금 외국 자본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는 대 토지 소유를 몰수하고 토지 소유 계급(지주)을 청산한다。

쏘련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우리 나라 발전의 력사적 조건에 가장 적합한 쏘베트 정권의 형태로써 승리하였으며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인민 민주주의적 국가 형태로써 승리하였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얼마 동안이나 계속 되는 가는 이런 또는 저런 프로레타리아 독재 국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구체적 조건 즉 자본주의하에서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발전이 도달된 수준、 특히 도시와 농촌에서의 생산의 사회화의 정도、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문화 수준、 정치적 각성、 조직성 그리고 국내、국제 정세 여하에 의존한다。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은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에 쏘련이 처했던 조건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자기의 투쟁에서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은 강대한 쏘베트 동맹의 백방의 원조와 지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모든 나라들의 호상 원조、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풍부한 경험에 의거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제二차 세계 대전 시기에 파괴된 자기 나라의 경제를 급속히 복구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다。

* * *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경제의 특징은 경제의 다 우클라드성에 있다。 과도기에는 사회주의적 우클라드와 함께 소상품적 및 자본주의적우클

라드가 존재한다。쏘련에서는 그 밖에 과도기의 특수한 경제 우클라드로써 가부장적 농민 경제와 국가 자본주의가 있었다。

사회주의적 우클라드는 착취 계급의 수탈과 그들에게 속하고 있던 생산 수단을 국가적、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한 결과에 발생한다。이 우클라드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경제적 기초로 된다。벌써 과도기의 초기에 사회주의적 우클라드는 전체 경제 발전에서 지도적 역할을 놀게 되였다。사회주의적 우클라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다。그의 토대는 대규모적 기계 공업이다。여기에서 생산 관계는 착취에서 벗어난 근로자들의 동지적 협조와 사회주의적 호상 방조의 관계이며 여기에는 자본과 잉여 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로동력이 상품으로 되지 않는다。국영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가의 소유、즉 전체 근로 인민의 소유이다。

소상품적 우클라드가 보존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농촌에 수백만 소생산자 대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생산 수단에 대한 개인적 소유에 의거하고 있는 소상품 생산은 그 기초로 보아 자본주의적 생산과 동일한 류형이다。그러나 소상품 생산은 고용 로동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자 자신이 직접적으로 진행한다。바로 이것이 농민의 二중적 처지를 규정한다。즉 한편으로 농민은 소규모의 사적 소유자이며 다른 편으로 그는 근로자이다。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간에는 물가 및 세납 등의 령역에서 부분적인 모순 들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근본적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의 리해 관계가 일치하고 있다。즉 두 계급은 착취의 청산、사회주의의 승리에 혈연적으로 공통한 리해 관계를 가진다。여기에 그의 공고한 친선적 동맹의 기초가 있다。이 동맹의 강화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최고 원칙으로 된다。로동 계급은 근로 농민에 대하여 지도、그와의 단결、재교육 및 그들의 소소유자적 본성에 대한 제한 정책을 실시하여 그들에게 거대한 방조와 지지를 준다。

가부장적 농민 경제는 소상품적 우클라드와 련접하고 있으며 그와 밀접히 엉크러져 있다。가부장적 우클라드는 시장과 거의 련계가 없는 농민 경리이다。

소상품 생산자들의 필연적인 분화、그들 층으로부터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배출、또 프로레타리아 국가가 인민 경제의 전체 령역에서 즉시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로써 자본주의적 형태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사태는 자본주의적 우클라드——사자본주의적 및 국가 자본주의적 우클라드의 존재를 조건지어 준다。

자본주의적 경제 우클라드는 도시와 농촌의 사자본주의적 산업 및 상업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에는 혁명 후 까지 보존되였거나 혹은 소상품 생산의 분화의 기초 우에서 새로 발생한 부농적 경리가 들어 있다。자본주의적 기업에서는 로동력은 상품이며 거기에는 자본주의적 착취 관계가 보존되며 각종 형태의 잉여 가치도 존재하게 된다。자본주의적 경제 형태들은 제한 및 구축을 받으며 그리고 다음에는 필요한 조건들의 조성에 따라 사회주의적 공업 발전과 농업의 전반적 집단화의 기초 우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청산된다。

국가 자본주의적 우클라드는 자본가들이 프로레타리아 국가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이다。자본가들과 국가간에 체결되는 계약에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의 절차、로동력 사용의 절차와 조건들이 규정된다。국가 자본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리권제와 임대차이다。리권제는 국가가 나라의 자연 부원(지하 자원、삼림등)의 개척 및 개발을 위한 기업 조직을 위하여 개인 자본、주로 외국 자본을 인입하는 것이다。임대차는 국가 자체가 어떤 사정으로 직접 리용하지 않는 소 중 국가 기업들을 국가가 개인 자본가들에게 대부하는 것이다。국가 자본주의적 기업은 국가의 통제하에서 경영된다。이런 기업들은 자본가가 고용 로동을 착취하는 기초 우에서 경영되지만 그러나 이런 착취는 프로레타리아 국가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프로레타리아 독재하에서의 국가 자본주의는 부르죠아지의 지배하에서의 국가 자본주의와는 다르다。그는 프로레타리아 정권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리용된다。쏘베트 정권 존재의 초기에 있어서 국가 자본주의의 실시는 국내에서의 대규모적 산업 생산의 역할을 제고하며 국가가 처분할 수 있는 공업 제품의 량을 증가시키며 그리하여 로동 계급과 농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며 사자본주의 및 소부르죠아적 자연 생장성을 제한하는 목적을 추구하였던 것이다。그러나 쏘련에서 국가 자본주의는 그다지 큰 역할을 놀지 못하였다。쏘베트 국가는 자체의 힘으로써 공업 생산을 제고 발전시켰으며 도시 농촌간의 련휴를 보장하였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는 모든 나라들에、지어 가장 발전된 나라 들에서 까지 경제의 다우클라드성이 존재할 것이다。다우클라드적인 과도기 경제의 특성으로부터 그에 본질적인 다른 특징——탄생되였으나 그러나 첫 시기에는 아직 약한 사회주의와、타도되였으나 아직 얼마 동안은 강하며 소상품 생산에 뿌리를 밖고 있는 자본주의간의 적대적 모순의 존재——이 흘러 나온다。경제 생활의 모든 령역에 있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투쟁은『누가 누구를』이라는 원칙에 의하여 전개된다。로동 계급은 전체 인민경제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승리를 위한 투쟁을 진행한다。

로동 계급은 이 투쟁에서 근로자인 농민의 근본적 리익에 호소하면서 농민계급과의 동맹에 의거한다. 부르죠아지는 농민의 사적 소유의 관심을 리용하려고 시도하면서 국제 자본의 지지, 자기 수중에 남아 있는 약간의 생산 수단과 자금, 낡은 인테리겐챠 와의 련계 등등에 의거하여 낡은 질서를 복구하려고 애쓴다.

* * *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의 경제적 제 조건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들은 처음에는 지배적 지위에서 떨어졌다가 후에는 청산된다.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들은 부단히 발전되며 그리고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지배적인 경제 형태로 된다. 사회주의적 우클라드의 발생과 함께 사회주의의 경제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투쟁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경제 법칙들—자본주의의 기본적 경제 법칙,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의 법칙 및 기타 법칙은 그의 효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무대에서 물러서게 되며 사회주의의 경제 법칙들의 작용 범위는 부단히 확대된다.

이 시기의 경제 발전의 주요한 추세는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요소의 부단하고 급속한 그리고 계획적 장성이며 자본주의적 요소의 약화이다. 이 추세는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경제 법칙의 요구와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추세의 작용의 힘은 경제 우클라드들의 비중에,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력량 대비에 의존하는 것이다.

사실상 사회주의의 건설은 자연 생장적으로는 수행되지 않는다. 과도기 경제에는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객관적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의 재생을 위한 객관적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건설의 객관적 가능성과 그를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리용하는 프로레타리아 독재 국가의 정확한 경제 정책은 거대한 역할을 놀게 된다. 사회주의의 건설을 실현하고 있는 외국에서의 제 조건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례하면 오늘날의 조건에 있어서는 쏘련측으로부터의 강력한 지지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진영 나라들의 형제적 호상 원조는 심지어 그다지 발전되지 못한 나라들까지도 자본주의적 발전 단계를 뛰어넘어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따라 발전할 가능성을 지어 주었다.

과도기에 있어서 사회 발전의 경제적 제 조건의 변화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이 발생 작용하는바, 그의 주요한 특징과 요구는 높은 기술적 토대 우에서의 사회주의적 생산의 부단한 장성 및 개선에 의한 전 사회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의 최대한의 충족의 보장이다. 이 법칙의 작용 범위는 다만 사회주의적 우클라드의 한계내에 국한되는바

거기에서 그는 생산의 새로운 목적을 규정한다. 그와 동시에 이 법칙은 전체 인민 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영향을 준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강화 및 장성에 따라 그의 작용 범위는 더욱 더 확대된다.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의 경제 법칙도 발생되며 부단히 발전하는바 이 법칙은 계획적인 생산 방향과 생산 부문간의 균형 성을 요구하며 사회주의의 승리와 근로자들의 장성하는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사회주의적 우클라드에서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기초하여 매개 로동자들이 소비한 로동의 량과 질에 상응한 필수품 분배를 요구하는, 로동에 의한 분배의 경제 법칙도 발생하며 작용하기 시작한다.

기본적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사회화와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작용의 기초 우에서 상품 생산과 가치 법칙의 범위는 제한되며 그와 동시에 그의 역할도 근본적으로 변화된다. 상품 생산과 가치 법칙은 프로레타리아 국가에 의하여 사회주의의 건설과 자본주의의 청산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리용된다. 가치 법칙은 사회적 생산 전체의 조절자의 역할을 놀지는 못하게 된다.

공산당과 사회주의의 국가는 과도기 경제에서 작용하고 있는 법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경제 정책의 기초와 그의 성공적 실천의 방법들을 규정한다. 매개 나라들의 구체적 조건에 상응하여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약간의 특성이 생긴다. 그러나 이 정책의 일반적이며 원칙적인 로선은 같은 것이다. 매개 프로레타리아 독재 국가의 경제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 경제 법칙에 적응해야 하며 또한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수행할 때의 나라의 경제 발전의 구체적 수준을 고려하여 야 하며 국제 국내 정세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즉 첫째로 사회주의적 공업의 강화와 사회주의의 기초인 중공업의 창설에 대한 부단한 배려의 필연성, 집단화에로의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계획적 준비와 실현의 필연성, 둘째로 인민경제의 계획화 (처음에는 사회주의적 부문, 그 다음에는 전체 인민 경제 부문)와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요구의 계획에서의 가장 완전한 반영과 계획의 개선 및 국가 계획 규률의 강화의 필연성, 세째로 사회주의적 경쟁의 전개에 의한 로동 계급의 생산적 열성의 전면적 강화와 생산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한 투쟁의 필연성, 네째로 사회주의적 생산 발전에 있어서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강력한 자극으로 되는 로동자들의 개인적, 물질적 관심의 광범한 리용의 필연성, 다섯째로 도시와 농촌간의, 국영 공업과 농민 경리간의 경제적 련계를 위한 시장과 가치 법칙의 리용의 필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건설의 경험은 국영 산업과 농민 경리간의 확고한 경제적 련계가 없이는 사회주의의

적 국영 산업의 강력한 발전과 소농 경리의 대규모적 사회주의적 생산의 궤도에로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또 농민을 위한 이 련계의 유일하게 정당한 형태는 상품 교환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공산당과 쏘베트 국가는 이에 상응하여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유일하게 정확한 경제 정책을 작성, 실시하였는바 이 정책은 도시와 농촌간의 시장적 련계를 리용하여 국영 산업을 발전시키며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의 건설에 농민 대중을 인입하며 자본주의 경제 형태를 점차 완전히 청산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 건설 행정에서 전면적으로 작성한 이 정책을 력사에서 신 경제 정책——네쁘라고 불으게 되였다.

신 경제 정책은 二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일정한 한도내에서와 일정한 기간내에서 개인 상업의 존재, 따라서 자본주의의 존재도 허용한다, 물론 프로레타리아 국가 수중에 인민 경제의 지배적 지위가 장악되여 있는 조건하에서. 국가는 이 지배적 지위에 의거하여 시장을 조절하며 자본주의적 요소에 손실을 주면서 인민 경제의 사회주의적 요소가 부단히 장성 강화하는 것을 보장한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각이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나라들에서의 전체 사회주의적 부문과 소상품적 부문의 력량과 비중은 각이하며 그리고 역시 가치 법칙의 작용 범위도 각이하다. 따라서 시장적 련계를 리용하는 정도와 자본주의적 요소를 허용하는 정도도 각이하며 국가 측으로부터 개인 시장, 소상품적 우클라드 및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에 간접적 작용을 주는 공간을 리용하는 정도도 각이한 것이다. 쏘련에 있어서는 경제적 파괴의 결과에 상품 생산과 가치 법칙의 작용 범위는 신 경제 정책의 초기에 있어서는 아주 넓었었다. 당시 국영 공업, 상업 및 협동 조합은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그 반면에 농촌 경리에서는 소상품 경리가 지배하고 있었음으로 간단히 법령의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청산하기는 곤난하였었다. 그러한 방책은 오직 광범한 필수품 생산과 도시와 농촌 간의 상품 교류의 조절을 저해하며 농촌 경리의 상품화률의 장성을 저하시키며 따라서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련계의 확대와 강화를 저해하며 로동 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의 강화를 저해할 뿐이였다. 새로운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산생하고 있던 소상품 생산이 보존되고 있었던 까닭에 더욱 이런 대책으로서는 자본주의를 소멸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오직 사회주의적 대공업의 성과적 발전과 농촌 경리의 점차적인 사회주의적 개조의 기초 우에서만 도시와 농촌에서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다음에는 완전히 청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산당과 쏘베트 국가는 국영 산업과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에 의거하여 자본주의에 대한 제한 및 구축의 로선을 철저히 실행하였다. 국가는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에 가장 유리한 조건들을 지어 주었으며 개인 상인들보다 더욱 우월한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하여 주었다. 국가는 수공업 협동 조합, 농촌 소비 조합, 생산 협동 조합의 발전을 백방으로 장려하여 주었다. 쏘베트 국가는 협동 조합과 국가의 수매 체제를 통하여 농산품 시장에서와 농촌 주민에 대한 공업 제품 공급의 령역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견고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개인 상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농민 경리와 공업을 련결한 예약 수매 체제는 농산품 시장을 장악함에 있어서, 농민 경리의 생산성과 상품화률을 장성시킴에 있어서, 특히 농업의 원료 생산을 확대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이 모든 조치들은 국가의 수중에서 상품량이 동시적으로 장성하는 조건하에서 자유 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가격의 파동을 제한하였으며 개인 자본의 투기 범위를 부단히 축소시켰다. 전체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부문의 령도적 역할의 강화는 쏘베트 루블리의 구매력을 제고시켰으며 로동자와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을 제고시켰으며 도시와 농촌의 근로자들의 물질적 복리를 향상시켰다.

사회주의 경제의 성과적 발전은 개인 자본에 대한 구축 및 제한의 조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성공적인 국가 공업화와 대중적 농업 집단화의 기초 우에서 인민경제의 계획적 령도를 위한 새로운 조건들이 조성되고 자본주의적 생산 특히 부농적 생산 없이, 그리고 또한 개인 중간 상인들이 없이도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였을 때 공산당과 쏘베트 국가는 자본주의적 우클라드와 착취 계급을 완전히 청산하는 길에 들어 섰다.

지금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은 쏘련에서 축적된 소상품적 및 자본주의적 우클라드에 대한 프로레타리아 국가의 작용에 대한 거대한 경험을 성공적으로 리용하고 있다. 이 경험은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도 비상히 고귀한 것으로 되고 있다.

* * *

자본주의로부터 사의주의에로의 과도기에 프로레타리아 국가의 경제 정책에서 결정적 고리로 되는 것은 전체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하는 국가 공업화와 농업 집단화이다. 국가 공업화와 농업 집단화의 필요성은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전체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기계 생산의 기초 우에서 농업까지도 포함한 모든 생산 부문을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생산 부문을 개조하려면 대 공업 특히 기계 제조 공업의 발전이 없이는 곤난한바 이는 인민 경제의 전체 부문을 선진적 기술로 무장하는 것을 보장하여 주며 사회적 로동의 부단하고 급속한 장성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그는 사회적 부의 부단한 증가, 근로자들의 문화의 앙양과 물질적 복리의 제고, 나라의 물질적 및 정신적 력량의 전면적 장성, 과학 및 기술의 발전등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국가 공업화는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발전에 물질적 기초를 창설하여 주며 소상품적 우클라드와 자본주의적 우클라드에 대한 사회주의적 우클라드의 장성하는 우세를 보장하여 준다. 공업의 발전에 따라 로동 계급의 수와 비중이 증가되며 사회에서의 그의 령도적 역할이 장성되며 따라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강화된다. 공업화의 기초 우에서 기술 및 로동 생산 능률의 령역에서의, 자본주의적 기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기업의 우월성이 보장되는바 이는 자본주의의 완전한 구축에로 이끈다.

사회주의적 공업화는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농업 집단화를 위한 열쇠로 된다. 오직 새로운 생산력과 대규모의 기계 농업 기술의 기초 우에서만 농촌의 근본적 사회—경제적 개조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꼴호즈 제도의 승리의 기초 우에서만 사회주의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조건을 창조할 수 있는바 그것은 농업이 공업의 원료 및 곡물의 기지인 동시에 또 공업 제품의 판매 시장이기 때문이다.

공업화는 국가로 하여금 필요한 생산 도구와 일체 현대적 공업 원료를 자력으로써 생산할 수 있게 하여 주며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사회주의 국가의 기술—경제적 독립을 보장하여 주며 기술—경제적 관계에서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를 따라잡고 또 따라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 공업화는 나라의 국방력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자본주의적 공업화와는 정반대로 사회주의적 공업화는 실업의 청산,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의 장성, 근로 대중의 복리 향상, 과거에 락후했던 민족 지구들의 경제적, 문화적 앙양에로 이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에 대한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의 직접적인 관심을 조건 지운다.

쏘련에서의 공업화는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형편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업화는 쏘련에서 전쟁전 五개년 계획들의 기간에 즉 전례없이 짧은 력사적 기간에 실현되였었다. 그로 인하여 쏘련은 락후한 농업국으로부터 선진적 공업국으로 전환되였는바 이것은 한개 비약이였다. 어떠한 자본주의 국가도 이렇게 짧은 기간내에 이러한 발전 로정은 걸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로써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 대한 사회주의 경제 체계의 우월성, 공업화의 자본주의적 방법에

대한 쏘베트적 방법의 우월성을 반박할 여지 없이 보여 주었다. 이 우월성들은 가장 거대하고 집중되고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된 공업으로서의 사회주의적 공업의 자체 성격에 있는 것이다. 이 우월성들은 공업에 대한 국가의 계획적 지도에서, 그 자원의 합리적 리용에서, 로동 계급의 로력적 열성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에서 표현된다. 이것은 또한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이 없어졌고, 대량적인 비생산적 소비 및 기생적 소비가 없어졌으며 또 자본주의적 공업에 고유한 생산 과잉의 공황을 사회주의 공업은 알지 못한다는 사정에 의하여 조건지어 진다. 선진적 공업 강국에로의 우리 나라의 급속한 전환은 쏘베트 국가가 사회주의 공업화의 수요의 우선적 보장을 위하여 국내의 모든 축적 원천을 정확하게 동원한 까닭이며 절약을 위한, 전 국가 기관의 간소화 및 경비 절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소유와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의 달성을 위한 전 인민적 투쟁을 조직한 까닭이다.

현재 자기의 사회주의적 공업을 고속도로 발전시키고 있는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은 쏘련의 사회주의 공업화의 경험에 의거하고 있다. 발전된 공업의 창설은 이 나라들의 생활적 요구로 된다. 그러나 이 나라들의 공업화는 쏘련측으로부터의 방조와 전체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경제적 협조와 호상 원조에 의하여 특이한 조건하에서 실현되고 있다.

국가 공업화는 일정한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농업의 집단화를 야기시킨다. 사회주의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농업의 장성을 요구하는바 농촌에 확대 재생산을 할수 없고 또 상품화률의 정도가 낮은 그런 락후한 소소유자적 생산이 현존하는 한 농업은 공업과 상응한 속도로 발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농업 집단화는 사회주의의 건설과 농민의 근본적 생활적 관심의 충족의 견지에서 볼때 이 모순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도로 된다. 농업 집단화는 농업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과학의 성과들을 리용하며 농업의 상품화률을 제고하며 근로 농민의 물질적 복리와 문화 수준 제고을 위하여서도 광범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사회주의 공업화는 一九二九년 하반년에 쏘련에서 시작된 농촌의 전면적 집단화를 준비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으며 농촌에 필요한 뜨락또르와 농기계의 대규모적 생산을 보장하여 주었다. 첫 꼴호즈들과 쏩호즈들의 성공적 사업과 기계—뜨락또르 정류소의 창설도 역시 거대한 의의를 가졌는바 이러한 것들은 농민들에게 집체 로동과 대규모의 기계화 경리의 우월성을 보여 주었다.

엠·떼·에쓰는 사회주의적 공업과 집단적 농업간의, 도시와 농촌간의 생산적 련휴의 형태로 되였으며 그는 꼴호즈에 대한 국가적 지도와 그의 조직적—경제적 강화를 보장하여 주었다. 집단화의 성공적 실시에 있

어서 당과 정부로부터의 꼴호즈와 쏩호즈들에 대한 백방의 물질적 지지, 우수한 간부와 훈련을 거친 조직 일꾼들의 도시로부터 농촌에로의 파견 및 꿀라크의 적대적 행위에 대한 당과 쏘베트 정권 기관의 견결한 방침들도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로동 계급이 정권을 탈취한 후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가장 곤난한 력사적 과업은 농업의 집단화 및 그 토대 우에서의 계급으로서의 부농의 청산에 의하여 해결 되였었다. 집단화에 의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세가지 근본적 과업이 해결되였다. 즉 첫째로 수량상으로 가장 많은 착취 계급——국내에서 자본주의 복구의 지주 이던 부농을 청산하였다. 둘째로, 국내에서 수량상으로 가장 많던 근로 계급——농인 계급을 사회주의의 길에로 인도하였다. 세째로 농업이라는 이 거대하고도 중요하며 그와 동시에 가장 락후한 인민 경제 부문에다 사회주의적 기초를 창설하였다. 이 과업들의 해결은 전체 인민 경제에서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완전히 승리하고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과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작용 범위가 인인 경제의 모든 기본적 분야에까지 확장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리하여 국가의 사회주의 공업화와 농업 집단화의 기초 우에서 『누가 누구를』 이라는 문제는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종국적으로 해결되였으며 사회주의적 형태는 전체 인인 경제에서 즉 도시에서와 같이 농촌에 있어서도 승리하였다. 쏘련은 벌써 一九三〇년부터 사회주의의 시기에 들어섰으며 각 전선에 걸쳐 사회주의의 전면적 진공을 개시하였다. 제一차 五개년 계획에서는 사회주의의 경제적 토대를 축성하였으나 제二차 五개년 계획 년간에는 전체 인민 경제의 기술적 재건을 기본적으로 완수하였으며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체계의 완전한 지배를 보장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종결을 의미하였다. 쏘베트 사회는 공산주의의 첫 계단으로 되는 사회주의의 건설을 기본적으로 완수하였다.

쏘련에서의 농업 집단화의 준비와 실현의 경험은 모든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국가를 위하여 가장 귀중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의 건설의 길을 따라 전진하고 있는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은 바로 이 경험에 의거하고 있다.

* * *

국가 경제에서의 변화에 따라 쏘베트 사회의 계급적 구성에서도 커다란 변동이 발생하였다.

각 계급들의 처지와 그들의 호상 관계에서의 근본적 변화는 이미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 함께 진행되였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계급적 력량은 사회주의에 대하여 더욱 유리한 호상 관계를 형성하였다.

로동 계급은 착취를 당하며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를 상실한 계급으로부터 국가 주권과 기본적 생산 수단을 자기 수중에 장악한 계급으로, 전체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령도하며 전국적 규모에서 대규모의 생산과 근로자들간에 국가에 속한 소비품의 분배를 조직하는 계급으로 전환되였다. 로동 계급은 부르죠아지를 전복, 수탈하고 계급 절멸에 가장 결정적으로 나선다. 즉 로동 계급은 모든 착취자들을 반대하여 끝가지 계급 투쟁을 진행하는바 과도기에 있어서 그 투쟁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첨예화되며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 그들은 자기의 국가 정권을 리용하여 부르죠아지의 반항을 진압하며 수천만 농민 대중을 령도한다. 로동 계급은 근로 농민과의 긴밀한 동맹을 결성하고 전체 인민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그러한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생산력의 창조를 보장한다.

쏘베트 국가의 령도적 력량으로서의 로동 계급의 발전과 그 역할의 강화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전 기간을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 형태의 발전을 위한 계급 투쟁의 행정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성공의 기초 우에서 진행된다. 국가 경제에서의 근본적 변화의 기초 우에서 쏘련의 프로레타리아트는 인류 력사에서 루례없는 완전히 새로운 계급——사회주의 국가의 로동 계급으로 되였다.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의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에 의하여 쏘베트 사회 생활에서의 로동 계급의 역할은 더욱 더 강화되였으며 로동 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결정적 조건을 창조하였다.

농민은 자본주의하에서 도시와 농촌 부르죠아지와 지주의 예속 및 착취를 당하던 과도적인 계급으로부터 두 기본 계급의 하나로 된다. 프로레타리아트의 동맹자로서의 농민은 국가로부터 거대한 방조와 지지를 받을뿐만 아니라 부농, 개인상 및 고리 대금업자의 착취를 받지 않게 된다. 농민은 처음으로 자기를 위하여 일하게 되였으며 모든 사업에서 자유를 향유하게 되였고 기아를 면하게 되였다. 로지는 발갈이하는 자에게 돌아갔다. 짜리 로씨야에 특징적이던 경상적으로 땅이 없다는 현상은 근절되여 버렸다. 쏘베트 정권하에서 근로 농민들의 새로운 처지는 그들과 로동 계급과의 동맹을 강화하였으며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그들의 리익의 공통성을 강화하였으며 국가 정권을 자기의 정권으로, 로동자와 농민의 정권으로 보는 새로운 태도를 규정하였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근로 농민의 로동 조건과 생활 형편은 가일층 개선된다. 농촌은 빈농의 감소에 의하여 중농화하며 많은 빈농민들은 중농의 수준에까지 제고된다. 농민은 나라의 사회—정치 생활과 국가 관리에 더욱 광범히 참가한다. 협동조합 운동은 그의 각종 저급한 형태에서 광범한 범위

로 발전한다。 수백만 근로 농민들은 소비 조합、 공급―판매 조합、 신용 대부 조합을 통하여、 그리고 토지 공동 경작 조합을 통하여 협동 조합에 가입하며 그로부터 자기의 일상 생활에서 집체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꼴호즈 제도의 승리는 농촌에서의 생산 관계의 근본적 변화와 농민에 대한 착취의 가능성의 청산을 의미하였다。 그리하여 쏘베트 농민들은 인류 력사상 류례없는 완전히 새로운 계급――꼴호즈 농민으로 되였다。 로동자와 농민의 리익은 더욱 더 접근하여 졌으며 그들간의 동맹은 더욱 더 공고화되였다。 새로운 조건하에서의 이 동맹의 가일층의 전면적 강화는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쏘베트 국가 발전의 기초로 되였으며 되고 있다。

자본가 계급은 지배 계급으로부터 차요적인 계급으로 되며 그는 과도기의 상당한 기간 동안 여전히 일정한 력량을 보존한다。 이 계급의 력량은 무엇보다도 인민 경제에서의 그의 경제적 지위에 의하여 규정된다。 국가 공업화、 국가의 사회주의적 농업의 급속한 장성、 국영 및 협동 조합 상업의 발전의 토대 우에서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의 비중은 부단히 축소되고 구축을 받아 나종에는 공업과 상품 교류 령역으로부터 제거되고 만다。 전반적인 집단화가 시작되기 이전까지에는 부농 계급은 아직 일정한 역할을 놀고 있었으나 전반적인 집단화의 토대 우에서 그들도 종국적으로 청산되였다。 부농 계급의 청산은 최후의 착취자 계급의 청산이였다。 제二차 五개년 계획 년간에 일체 자본주의 적요소는 철저하게 청산되였었다。

인테리겐챠는 기사―기술 일군、 문화 일군 기타들을 포함한 사회의 계층이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착취 관계가 지배하는 조건하에서의 지적 활동은 지배 계급의 특권으로 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간의 모순을 극단에 까지 발전시킨다。 자본주의 하에서 인테리겐챠는 기본적으로 착취 계급의 출신이며 그들의 대부분은 지주와 자본가들에게 복무한다。 인테리겐챠의 대렬 내에서 용감하고 혁명적 기분을 가진 일부 인테리들은 로동 계급의 리익을 수호하며 자기의 운명을 로동 계급의 운명과 함께 련결 시키나 모든 인테리겐챠의 면모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과도기에 있어서의 인테리겐챠의 처지와 역할은 크게 변화되였다。 쏘베트 정권의 승리는 낡은 인테리겐챠 속에서 분화를 촉진시켰다。 그중 가장 세력있는 일부분은 적의 편으로 돌아갔다。 수효가 보다 많은 다른 일부분은 돌아가는 형세만 보고 『좋은 시기』만 보던 데로부터 쏘베트 정권을 위해 복무하게 되였다。 제三 부분은 즉시로 인민의 편에 서서 쏘베트 정권에 충성하였다。

이와 동시에 로동 계급、 농민 및 기타 근로자들의

출신인 새로운 쏘베트 인테리겐챠가 형성되였다。 쏘베트 정권에 의하여 육성된 쏘베트의 대학과 전문 학교들을 졸업한 수십만 청년은 인테리겐챠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개변시켰으며 인민적 인테리겐챠로 전환시켰다。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승리에 의하여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간의 리해의 대립은 청산되였다。 육체 로동자와 지도자간에 원래 있던 적대적 태도도 영영 제거되고 말았다。 인테리겐챠는 모든 쏘베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인민과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복무한다。 쏘베트 인테리겐챠는 인류 력사상 류례없는 완전히 새로운 근로 인테리겐챠이다。

이와 같이 우리 쏘베트 사회주의 사회에는 로동 계급과 농민 계급이 남아 있으며 사회 계층으로서의 인테리겐챠가 남아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개변되였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사회주의적 소유의 기초 우에서 무계급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의 완성과 공산주의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그들의 리해의 일치성이 발생되였으며 력사에 전례없는 우리 나라 인민의 정신―정치적 통일과 친선을 강화하였다。

쏘련은 一九三六년에 채택된 새 헌법으로써 사회주의 승리를 공고화하고 자기 발전의 새로운 시기――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완성과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의 시기에 들어섰다。

(『경제 제 문제』 一九五四년 제六호에서)

선거 후의 일본 정세

편집국은 독자들로부터 『선거 후의 일본 정세』에 관련된 많은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다음의 론문을 게재한다。 ──편 집 국

지난 二월 二七일 일본에서는 전후 여섯번째의 중의원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일본에서의 二월 총선거는 일본 인민의 민족적 리익을 유린하면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점령 및 재무장 정책을 전적으로 추종하여 오던 전 요시다 정부가 붕괴된 직접적인 결과로서 실시되게 된 것이다。 전후 六년 동안이나 미국의 강점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여 온 전 요시다 정부는 미국의 강점 정책을 반대하며 쏘련 및 중국과의 정상적 외교 관계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여 나선 일본 인민의 전 민족적 운동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작년 말에 이르러 이미 더는 출로를 찾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달았던 것이다。 일본이 자기의 린접 국가들、우선 쏘련 및 중화 인민 공화국과의 정상적 관계를 회복함이 없이 미국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여서는 결코 살아 나갈 수 없다는 견해가 당시 일본에서는 한개의 전반적 추세로 되고 있었다。

그러나 요시다는 그의 매국 정책에서 물러서려 하지않았다。 이것은 곧 일본 통치층의 심각한 위기를 반영한 것이였다。

일본의 대자본가들은 요시다로 하여금 당시 반(反) 요시다 보수 정당으로서 새로 조직된 일본 민주당의 하또야마에게 수상직을 넘겨 주게 하고 자유당과 민주당을 재합당케 함으로써 보수 세력의 통치를 계속 유지하며 의회의 해산과 새로운 총선거의 실시를 가로 막으려 하였었다。

그러나 당시 이미 새로 조성되고 있던 정세하에서 새로 총선거를 실시한다면 파산 지경에 이른 자유당을 대신하여 국회내에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안정된 지반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타산한 하또야마의 민주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좌우 량과 사회당과 결탁하여 요시다 정부를 총사직케 하고 의회 해산과 새로운 총선거를 실시케 하는 길을 취하였다。 좌우 량파 사회당도

야당과 세력을 규합함으로써 우선 요시다 내각을 넘어뜨리고 새로 총선거를 실시하려는 의도밑에、그리고 또 그를 조전부로 일본 민주당을 지지하였던 것이다。 그들도 역시 총선거를 통하여 국회내에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였다。 보수 세력의 분렬로 국회에서 이미 과반수의 의석을 상실한 요시다는 민주당과 좌우 량파 사회당의 련합 세력 앞에서 물러나는 수 밖에는 딴 도리가 없었다。

요시다 정부의 붕괴는 미국의 침략 정책에 전적으로 추종한 일본 지배층의 반인민적、반민족적 정책과 미국의 점령 정책의 실패를 그대로 확증하여 주는 것이다。 요시다 정부가 붕괴된 후 일본에서는 의회 해산과 총선거 실시까지의 중간、림시적인 정부로서 하또야마 내각이 조직되였다。 요시다 정부의 붕괴와 관련하여 실시하게 된 총선거는 미국에 추종하는 전쟁 정책과 인민 생활을 파괴하는 반동 통치를 반대하여 일본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광범한 인민 대중의 불요 불굴의 투쟁으로 인하여 새로 일본에 조성된 정세 발전 속에서의 불가피한 귀결이였으며 그것은 새로운 정세하에서의 각당 각파의 력량 재편성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모든 정당들이 각기 자기의 구호、각기 자기의 강령들을 들고 선거전에 진출하였다。

일본 인민의 일치한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일본 공산당은 일본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며 일본 인민의 행복과 평화를 쟁취할 수 있는 정확한 강령을 제시하였다。

일본 공산당은 쌘프랜씨스코 단독 『강화 조약』、미—일 『안전 조약』 등 일체 불평등 조약의 폐기、평등 및 자주적 립장에서 모든 국가들과의 평등 호혜적인 통상 및 문화 교류 관계의 실현、쏘련 및 중국과의 외교 관계의 회복、원자 및 수소 무기의 시험 및 사용 금지、일체 반민주주의적 법령의 폐지、평화와 인민의 민주주의적 권리의 보장、국가 재정 정책의 근본적 개선 등을 주장하였다。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간의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다는 데 대한 리념이 더욱 더 광범한 계층들 속에 침투되고 또한 일본의 미국에 대한 일방적 예속관계가 얼마나 일본의 민족적 리익을 침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미 론의할 여지없이 명백히 된 조건하에서 기타의 정당들도 많은 점에 있어서 공상당의 주장과 동일한 것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좌우 량파 사회당은 그의 공동 강령에서 미국의 『원조』하에서의 일본의 재무장과 징병제 실시를 반대하며 재무장을 금지한 현 헌법 조항의 옹호와 불평등 조약의 취소를 주장하였다。 동 선거 강령에서는 일본과 쏘련 및 중국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좌우 량파 사회당은 다른 한편 반공산주의적 구호를 그의 강령에 내포하고 있었다。

일본 민주당도 『미—일 협조의 기본 방침을 고수하며 이를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기본 방침』에 어그러지지 않는한 이란 예비적 조건을 부치고 있었다 하더라도 쏘련 및 중국과의 정상적인 관계 조정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동시에 일본 민주당은 평화를 표방하여 주택 건설의 촉진、세금 감소、실업 소멸등을 약속하였다。 다른 한편 일본 민주당은 전쟁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 헌법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며 일본의 재무장 촉진을 합법화하려고 하였다。

수치스러운 파산을 당한 요시다의 자유당은 여론을 기만하기 위하여 일본의 『독립 체제』의 완성이니、『가족 제도의 부활 반대』、『주택 문제 해결』이니 하는 일련의 말들을 더 보충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쏘련 및 중국과의 외교 관계 회복을 반대하여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추종하며 일본의 재무장과 그를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선거의 결과 총 의석 四六七석 중 일본 민주당은 一八五석、자유당은 一一二석、좌파 사회당은 八九석、우파 사회당은 六七석、로농당은 四석、공산당은 二석 소수파 및 무소속이 八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선거는 물론 부르죠아 의회 정치의 선거이며 일본 공산당을 위시한 진보적 력량에 대한 란포한 박해와 각종 제한이 가해지는 조건하에서、그리고 친미적 독점 자본가들의 지지를 받는 보수 정당들의 추악한 매수 행위등 전후 최고 기록에 달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감행된 조건하에서 진행되였다。 일본 국립 경찰 본부가 발표한 三월 一六일까지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四、九三〇건에 달하며 이로 인하여 체포된 자는 무려 九、二七四명에 달하고 있다。 그중의 절대적 다수가 투표 매수건이다。

그러나 선거의 결과는 각 계급 력량 대비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선거의 전반적 행정은 오늘날 일본 인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 주었다。

선거전에 진출한 주요 정당들의 선거 강령은 각이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은 전연 고립된 견지에서 관찰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평화와 전쟁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각 당파는 二대 진영으로 나누어졌다。 일본 공산당을 위시하여 로농당、좌우 량파 사회당등 좌익 력량은 재무장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여 일본의 평화적 발전의 길을 주장하였다。 일본 민주당과 자유당의 두 보수 정당들은 재무장을 주장하며 전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 헌법의 수정을 주장하였다。 민주당과 자유당의 두 보수 정당은 이 목적을 위하여 금번 선거에서 기어코 헌법 수정에 필요한 三분의 二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들은 실패하였다。

재무장과 헌법 수정을 반대하여 진출한 공산당、로농당、좌우 량파 사회당은 三분의 一 이상인 합계 一六二석을 차지함으로써 보수 정당들의 헌법 수정 기도를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게 되였다。 이것은 일본 인민이 평화를 요구하여 전쟁을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있다는 데 대한 단적 표현이며 선거에서의 평화 력량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였다。

금번 선거 결과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기되였던 바와 같이 자유당이 참패한 사실이다。 자유당이 전후에 실시된 여섯번의 선거중 가장 적은 의석을 차지한 것은 금번 선거인바 전번 선거에 비하여 六八석이나 감소되였다。 선거에서의 자유당의 이와 같은 참패는 일본의 자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의 예속 정책을 일관하게 수행한 요시다 정부의 붕괴에서 이미 표명되였는 바 그것은 일본 인민의 자유당에 대한 증오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침략 정책이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였다。 이것은 자유당에 다시는 국가 관리를 맡기지 않으려는 일본 인민의 결의를 그대로 확증하는 것으로서 전후 일본의 정치 생활에서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사건 중의 하나이다。

선거에서 자유당이 참패한 반면에 민주당은 현저한 진출을 하였다。 그는 六一석을 더 차지하게 됨으로써 중의원에서 제一당이 되였다。 민주당이 이렇게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주로 그가 쏘련 및 중국과의 정상적 관계의 회복을 주장한 데 있다。 쏘련 및 중국과의 관계의 정상화를 주장한 모든 정당들이 현저한 진출을 하였는바 이는 곧 쏘련 및 중국과의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일본 인민의 전 인민적 요구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가 당초에 예기하였던 의석 수의 과반수는 차지하지 못하였다。 이 사실은 벌써 민주당의 지반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선거의 결과 자유당과 민주당을 합한 전체 보수 세력의 의석 수는 전후 그 어느 시기보다도 감소되였는바 이것은 또한 주목할만한 사실이다。선거의 결과 보수 세력의 의석 수는 선거 전(前)에 비하여 七석이 감소되였으며 一九四九년의 선거에 비하면 三六석、一九五二년의 선거에 비하면 二八석이 감소되였다。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보수 정당의 의석 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보수 정당들이 그들의 반동 정책으로 말미암아 날로 더욱 광범한 일본 인민으로부터 배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로써 설명되며 또한 그것은 그에 대치하고 있는 좌익 정당들의 현저한 진출과 관련된다。

선거 후 재 합당하기로 결정하였던 좌우 량파 사회당은 금번 선거에서 二一석을 더 차지하여 국회에서 제二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이는 전후 사회당이 차지한 최고의 의석이다。 금번 선거에서의 좌우 량파 사회당의 승리는 결코 일본 공산당의 활동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일본 공산당은 그의 선거 강령에서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모든 애국자들이 일치 단결하여 선거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일본 공산당의 선거 운동과 그의 정치적 영향은 광범한 일본 인민을 동원하였으며 그들의 적극성을 제고하였다。 그리하여 선거 실시 직전에 일본 공산당은 동일한 선거구에서의 평화 력량의 분산을 회피하기 위하여 三九명이나 되는 많은 자기 당 립후보자들을 스스로 철회하기까지 함으로써 그의 투표가 좌익 당과 립후보자들에게 집중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좌우 량파 사회당이 승리를 획득케 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으며 바로 이에 의하여 공산당、좌우 량파 사회당、로농당의 四개 민주 정당은 국회에서 三분의 一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였다。

비법적인 제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은 총투표수에 있어서 전번 선거 때보다 二〇%나 더 많은 一백 九만표를 획득하였으며 선거 전보다 一석을 더하여 二석을 차지하였다。 금번 선거에 있어서 보수 정당들의 헌법 수정 음모를 격파함에 있어서 공산당은 실로 결정적인 역할을 놀았다。

총체적으로 보아 금번 선거는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일본 인민의 투쟁이 새로운 기세로 앙양되고 그의 력량은 이미 일본 통치층에게 일정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화되였으며 따라서 일본 지배층들이 더는 낡은 방식으로서는 통치할 수 없을만큼 사태가 조성되였다는 것을 여실히 실증하여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총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특히 보수 정당들이 재무장을 위한 헌법 수정에 필요한 三분의 二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미 관변 당국은 실망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례를 들면 워싱톤 二월 二八일발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미 상원 의원 맨스필드는 일본의 선거 결과에 대하여 『요시다가 당한 력량의 손실은 일본이 미국과 보다 더 강력하게 련계를 강화할 정책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리하여 서방 동맹국들과 협동이 악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서방 국가 출판물들은 일본 선거의 결과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론평하였다。 영국 신문 『만체스터 가디안』지는 『일본은 서방에 대하여 더욱 독자적인 로선을 취할 새 정책을 생각하여 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미국무성을 행복하게 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선거는 끝났으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 투쟁은 지금에 있어 필연적으로 정기적 투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투쟁에 있어서 우선 일본 인민 앞에 제기되는 과업은 정권을 재차 장악한 하또야마의 민주당으로 하여금 그의 선거시의 긍정적 약속들을 실천에 옮기도록 함에 있다。

* * *

三월 一八일에 새로 선거된 중의원 회의가 소집되였

다。 소집된 중의원은 하또야마 이찌로를 재차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수상 선출 표결에 있어서 하또야마는 민주당과 자유당의 지지를 받았다。 좌우 량파 사회당은 좌파 사회당 위원장 스즈끼 모사부로를 지지하여 투표하였었다。 수상으로 선출된 하또야마는 민주당의 일당 내각을 조직하였다。

새로 조직된 하또야마 정부 앞에는 평화와 민주 진영 제 국가와의 일본의 통상 및 외교 관계 회복 문제、일본의 재무장 여부 문제등 일본의 사활적 리익에 직접 관계 되는 절실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제二차 내각을 조직한 하또야마는 三월 一九일 그의 취임 성명에서 선거 당시의 자기 맹세를 리행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진영 제 국가와의 통상 및 외교 관계 회복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거듭 언명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오늘날 일본이 쏘련 및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문제는 하또야마 정부 앞에 제기되고 있는 초미의 문제이며 하또야마 민주당에게 있어서 정치적 생명의 한개 관건으로 되고 있다。 선거전 一월 二三일 하또야마는 중의원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바 있다：『나는 오늘의 우리 나라의 최대의 임무는 신속히 국가의 독립과 자주성을 달성하는 데 있다고 확신한다』고。 만약 제二차 하또야마 내각이 진정 일본의 독립과 자주성을 확보하려 한다면 그는 무엇 보다도 요시다 내각에 의하여 집행되던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예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일본의 『독자적 외교』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며 또 그의 린방인 쏘련 및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회복하여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또야마는 쏘련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일본과 미국간에 이미 설정되고 있는 관계를 손상시킴이 없이 실현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요시다 정부의 붕괴 후 그리고 선거에서의 민주당의 승리 후 미국 관변 당국이 쏘련 및 중국과의 일본의 관계의 정상화를 방해하기 위하여 온갖 압력을 가하고 있음은 누구에게나 비밀이 아니다。 일본 교도 통신의 워싱톤 주재 기자 이와다떼는 로골적으로 쓰기를 미국 정부는 하또야마가 『중 쏘 량국과의 적극적 접촉』에 관한 구호로써 선거에서 승리한 이상 이제는 다시 『대미 협조의 로선에로 결정적으로 전환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세와 관련하여 도꾜발 로이터 통신이 『하또야마는 일본인에게 말할 때는 미국으로부터의 「독립」과 공산측과의 더욱 많은 무역 및 더욱 좋은 관계를 보다 더 강조하였었다。 그리고 해외에 대하여 말할 때는 일본과 미국 및 기타 서방 국가들과의 변함없는 동맹을 강조하였었다』고 보도한 것은 매우 의미 심장한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하또야마의 이러한 태도를 『량면 외교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또야마 정부는 과연 어떻게 이 두가지 면을 조화시킬 것인가? 三월 二四일 중의원 회의에서 외상 시게미쯔는 또 다시 강조하기를 일본이 쏘련 및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에 있어서 미-일 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쏘련과의 회담은 『워싱톤과의 긴밀한 절충 후에 개시』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확실히 일본의 미국에 대한 예속적 관계를 말하여 주는 것이며 『자주적 외교』를 표방한 하또야마의 주장과는 전연 배치되는 것이다。 지어 하또야마 정부는 쏘련 및 중국과의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대하여 미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하여 외상 시게미쯔를 워싱톤에 특사로서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四월 三일 미 국무장관 덜레스는『그런 것은 필요없다』는 격으로 갑짜기 이 특사 파견을 거절하는 것으로써 일본에 대한 무례한 압력과 위협을 가강하여 나섰다。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지배층으로부터 강력한 압력과 무례한 위협까지 당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하또야마 정부가 과연 어떻게 하여 민주 진영 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며 민족적 독립 및 자결의 길을 확보하겠는가 하는 것은 실로 하또야마 정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 인민 자체에 대한 큰 시련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사태는 미국의 압력에 대한 일본의 건전한 사회 력량으로부터의 반항과 그 사회 력량의 하또야마 정부에 대한 더욱 강력한 압력만이 하또야마 정부로 하여금 그의 선거전 약속에서 물러날 수 없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의 평화 진영 국가들과의 관계에 관한 하또야마의 선거 후의 기타 언행에서도 하또야마가 과연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거전 약속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일본 인민은 의혹을 품고 있는 것이다。

三월 一〇일 하또야마는 유·피 통신 기자와의 회견 석상에서 소위 『두개의 중국』에 관한 미국의 침략 로선을 지지하며 전쟁이 개시되는 경우에는『미군의 일본 기지 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하였다。 三월 二五일 참의원 회의에서도 하또야마는 같은 론조를 되풀이하였다。 하또야마의 이 발언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침략 전쟁에 일본을 이끌어 넣으려는 외 아무 다른 것이 없는 것이며 중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데 대한 그 자신의 희망과도 전적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三월 一四일 하또야마는 또한 『만일에 필요하다면 자기는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축적하는 것을 허가할지도 모른다』고 하여 아이·엔·에쓰 통신이 보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자탄의 피해를 직접 체험한 『일본 인민의 폭풍같은 분격을 일으켰다』。 하또야마의 이 언명은 원자 무기의 금지를 보장하겠다고한 그의 선거전 약속에 배치되는 것이며 그가 선포한 『평화적 대외 정책』에 모순되는 것이다。

하또야마는 선거 기간중 일본 경제의 자주성을 강조하며 쏘 중 량국과의 관계 조정에 따르는 무역 관계의 확장을 약속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일본 경제는 미국의 통제하에 놓여 있으며 대외 무역은 완전히 미국의 지배하에 있다。 지난 一년간에만 하여도 일본의 경제적 위기는 더욱 심각화되였다。 일본에서의 실업자와 반실업자의 수는 도합 一천 四백만명에 달하고 있다。

一九五四년 일본의 대외 무역을 보면 딸라 지역에 대한 일본의 수출은 二억 七천 七백만 딸라인데 딸라 지역으로부터의 일본의 수입은 八억 六천 七백만 딸라에 달하였다。 그런데 또한 미국은 일본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에 대하여 三〇——七〇%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미국의 수출품들은 거의 완전히 관세로부터 면제되고 있다。

미국에의 일본 경제의 의존과 일본의 미국과의 불평등한 통상 관계가 일본의 경제적 난관의 주요 요인으로 되였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일본의 공업가들과 실업가들은 전통적인 중국과의 통상 관계의 확장을 요구하게 된다。 일본의 중국과의 무역 관계 확장은 일본 외상 시게미쯔까지도 중의원에서의 발언에서 『중국과의 통상이 경제적으로도 일본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만큼 일본에게 절실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방면에 있어서도 일본의 민주 진영 제국과의 통상 관계 확장을 저해하기 위하여 선거 후 각방면으로 횡포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도꾜발 아이·엔·에쓰 통신에 의하면 『미국 대사관 고급 관리는 경고하여 말하기를 일본이 공산 중국에 대한 무역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그의 미국에 대한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은 또한 중국과 통상하는 일본 회사들에 대하여는 그의 미국에 있는 재산들을 동결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또야마 정부가 과연 어떻게 일본의 경제적 자주성을 회복할 것인가는 역시 주목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상술한 일련의 사실에서도 오늘날 일본의 정상적 발전의 길에 놓여 있는 장애물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침략 정책이라는 것이 명백하여진다。

다른 한편 하또야마 정부는 선거의 결과 보수 정당들의 재무장을 위한 헌법 개정 시도가 패배하였으며 일본 인민이 평화를 요구하며 재무장을 원치않는다는 것이 명백히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훈을 받아들이려 하지않고 있다。

三월 二六일 하또야마는 중의원 예산 위원회 회의에서 많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규탄하고 있는 헌법 제九조를 『적절한 시기』에 개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선거 후 하또야마 정부는 이미 일본 재무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소위 『방위 六개년 계획』을 조급히

작성하였는바 그에 의하면 일본 륙군을 一八만명으로 증가시키며 해군은 二백척 (一二만톤)의 함선을 가지게 하고 공군은 一천 二백대의 비행기와 三만명의 비행 인원을 가지게 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재무장 정책은 일본의 평화적 발전의 길과 결정적으로 량립될 수 없는 것이다。

과거 一○년간에, 일본이 미국 군대를 위하여 지불한 『점령비』만 하여도 五○억 딸라를 훨씬 넘으며 현재에도 일본은 여전히 미국 군대를 위하여 매년 약 六백억원 (약 一억 七천만 딸라)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은 이 부담을 삭감하여 줄 데 대한 일본의 요구를 항상 무시하여 왔으며 도리여 일본의 군사비 지출을 증가시킬 것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 三월 일본을 방문하였던 스탓센은 일본이 자기를 『방위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타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재무장의 촉진을 강요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마이니찌 신붕』까지도 오늘의 일본의 경제 형편으로 볼 때 군사비 지출은 삭감되여야 한다고 론평한바와 같이 재무장 정책의 강화가 일본의 전반적 경제 생활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극히 명백한 것이다。

그런즉 하또야마 정부가 방대한 재무장 정책을 추진시키면서 그와 동시에 그가 선거 운동시에 약속한 주택 건설, 세금 인하, 실업 소멸등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리해하기에 어렵지 않은 것이다。

선거 후 새로 조직된 하또야마 정부 앞에 제기된 일련의 중요 문제들과 관련한 일본에서의 정세 일반은 대략 이상과 같다。

총괄적으로 말하여 일본에서 실시된 전후 여섯번째의 총선거와 하또야마 내각의 정식 취임으로 일본의 정세는 확실히 변하였다。 이 변화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계속되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장기간 미국에 추종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온 결과 조성된 비정상적인 관계를 타파하고 린접 국가들 우선 쏘련 및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며 발전시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할 근거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또한 변경된 새로운 정세임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일본에 대한 일방적 압력을 계속 가강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이 다른 한편으로는 례하면 일본의 재무장 촉진 문제, 一억 딸라의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일본에 판매하는 문제등과 관련하여 일본과 미국간의 모순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정세들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반드시 지적할 것은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중의원에서 제일당의 지위는 차지하였으나 과반수의 의석은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에 바로 하또야마 정부의 불안정성의 근본 요인의 하나가 있다。 일본 헌법 제五六조는 『량 의원 (중의원 및 참의원)의 의사는 헌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써 가결된다』고 지적되여 있다。 따라서 지금 하또야마의 민주당은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어떤 당의 지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는 이미 중의원의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 명백히 표현되였었다。 자유당은 수상 지명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지지하였으나 두 보수 정당간의 사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의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립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중의원 의장에는 자유당의 마쯔다니 슈지가, 부의장에는 우파 사회당의 스기야마 겐지로가 각각 선출되였다。 참의원에서의 민주당의 지위는 더욱 미미하다。 참의원 총의석 二五○석중 민주당은 다만 二二석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며 자유당이 九一석을 차지하고 있다。

자유당은 하또야마 정부의 이러한 불안전성을 리용하며 위협함으로써 하또야마 정부를 이미 파산 당한 전 요시다 정부의 정책에로 다시 복귀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만약 제二차 하또야마 내각이 자유당과 손을 잡는 길을 취한다면 결국에 있어서 그의 정책은 다시 자유당이 좌우하는 것으로 되리라는 것은 아무 의심할 바도 없는 것이다。 벌써 선거 다음날인 二월 二八일에 자유당 총재 오가다는 『만약 민주당이 자유당의 협조를 얻어 선거 이후의 정치 정세를 안정시키려 한다면 그는 우선 일 쏘 관계를 조정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로골적으로 말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지금 일본의 모든 사회계는 하또야마의 민주당이 금후 자유당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이며 또 쏘 중과 협조적 관계를 맺는다면 그가 과연 전 요시다 정부와 무엇으로 구별될 것인가 하는 데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만약 하또야마 정부가 자유당과의 협조의 방향에서 출로를 찾는다면 그것은 또 다시 일본 인민의 력량이 용허치 않을 것이니 기필코 요시다 정부가 당한 그러한 파국에만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아무 의심할바도 없는 것이다。 도꾜로부터의 통신 보도들에 의하면 야당인 좌익 정당들은 앞으로 더욱 더 빈번히 하또야마에 대한 력량 시위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 일본 인민은 자기들 앞에 두개의 길이 놓여 있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그의 하나는 미국의 반점령 상태로부터 벗어나 민족적 독립과 평화를 쟁취하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의 침략 전쟁 로선에 굴복하여 일본의 민족적 독립을 상실하고 일본을 다시 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 넣으며 일본의 파멸을 초래하는 길이다。 일본 인민은 결정적으로 전자의 길을 택하고 있다。 일본내의 어떠한 정치적 력량도 일본 인민의 이 한결같은 념원을 더는 무시할 수 없다。 일본 인민은 지금 하또야마의 신 정부로 하여금 그의 선거전 약속을 반드시 리행케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근로자 제四호
(루계 제一一三호)

一九五五년 四월 二〇일 인쇄
一九五五년 四월 二五일 발행

편집 위원회

발행소 로동 신문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값 六〇원)

ㄱ—30070호